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2 2 Vol.242



피아니스트 임동혁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http://culture.busan.go.kr)



# 22년간의 기다림 세계 4대 뮤지컬

**최고의 작품! 화려한 귀환!** 설명이 필요없는 세계 4대 뮤지컬 미스사이공의 무대가 4월 부산에서 펼쳐진다.

## 미스사이공의 저력! 세계를 감동시킨 완벽한 드라마!

'뛰어난 가창력, 연기, 춤 한마디로 예술의 결정판', '뮤지컬의 기본을 잘 보여준 작품' 등 관객들의 리뷰에서 볼 수 있듯 모성애를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뮤지컬을 당당히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킨다. 1970년대 베트남전을 소재로 1989년 런던에서 개막한 작품이지만 여주인공 '킴'의 사랑이 여전히 눈부시게 젊고, 눈시리게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 무대위의 캐딜락, 첨단 3D 영상의 헬기씬!

베트남전 당시 운행되었던 실제 캐딜락을 무대위로 옮겨놓은 이번 무대는 미스사이공의 전체 이야기를 끌어가는 실질적인 주인공 '엔지니어'의 "아메리칸 드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이다. 또한 미스사이공의 핵심 장면인 헬기씬은 첨단 3D영상으로 생생하게 처리됐고, 무대 비주얼을 강화한 베트남과 방콕 거리는 '킴'과 '크리스'의 러브 스토리를 한층 리얼하게 보여준다.

## Review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은 호소력 짙은 사랑, 객석을 울리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알려주는 교과서 - 매일경제

'이젠 우리도 이만큼 완성도 있는 무대를 만들어 내는구나' 라는 자부심이 느껴진다 -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

숨죽인 객석... 이토록 아련한 선율의 군더더기 없는 스토리와 입체적인 캐릭터를 구축하다니 - 중앙일보

마지막 총성, 관객들도 감전된 듯 음악과 드라마의 힘이 맺을 듯한 조화 - 헤럴드경제

미스사이공은 우리에게 육중한 메시지를 던진다. 화려한 무대장치, 3D 헬리콥터씬은 눈길을 끈다 - 세계일보

2012년 4월 5일-4월 2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 VIP석 130,000원 R석 110,000원 S석 90,000원  
A석 70,000원 B석 5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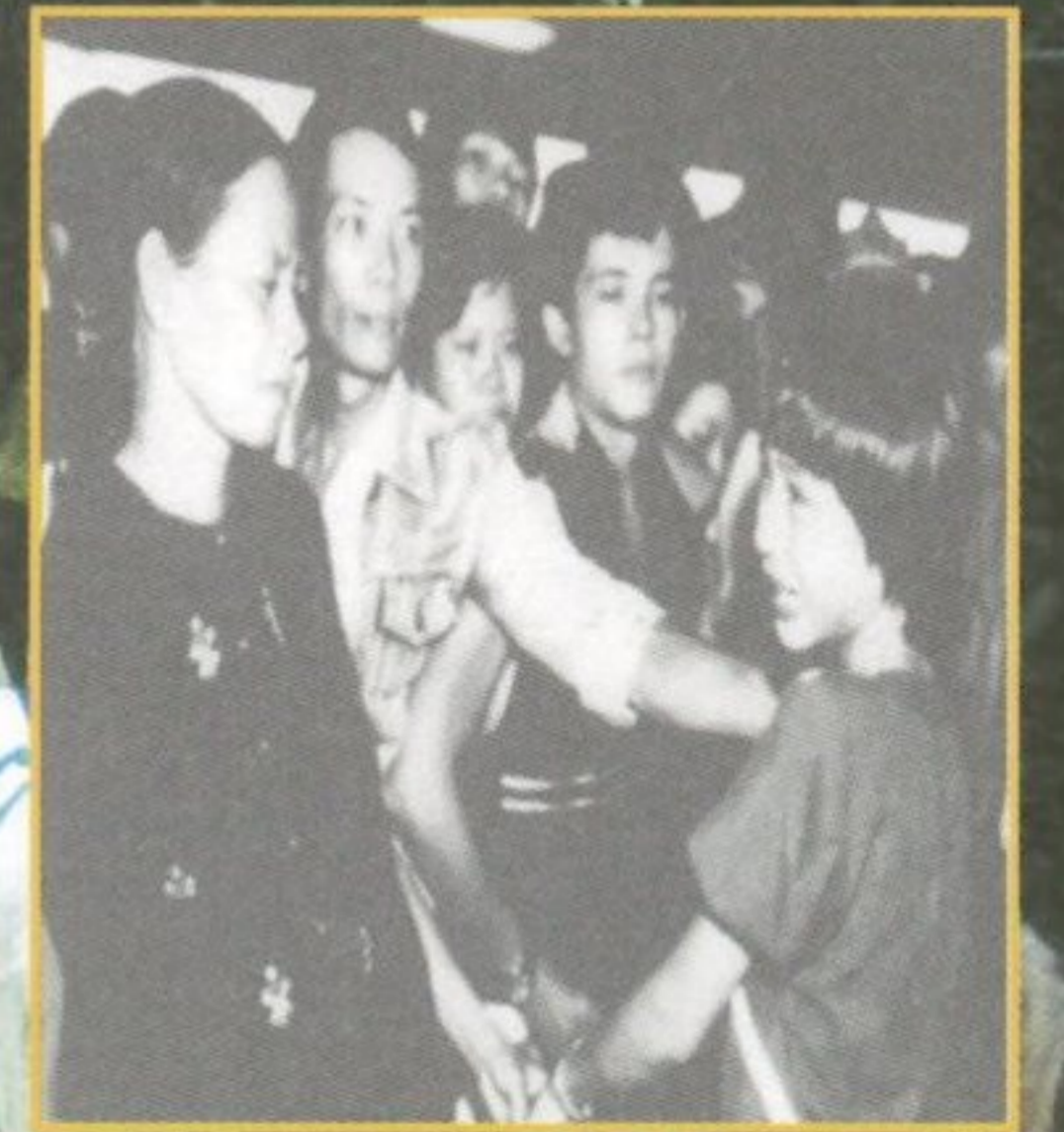
# 미스 사이공

## 미스사이공의 기록들

- \* 1989년 런던 초연 후 지금까지 26개국 317개 도시에서 13개 언어로 22,000여 회가 넘는 공연을 기록
- \* 3번의 토니상을 비롯한 33개의 주요 극장상을 수상
- \* 1991년 미국 브로드웨이 개막 전 3,700만 달러의 예약 티켓이 팔린 이변으로 기네스북 등재
- \* 런던에서 처음 음반 발매시 3일만에 150,000장을 판매하며 'Golden Disc' 독일 캐스팅으로 발매한 음반은 250,000장을 판매하며 1998년 'Golden CD' 로 선정
- \* 브로드웨이 역사상 7위의 흥륜을 기록
- \* 1,300:1의 오디션 경쟁률로 기록 갱신

## 한장의 흑백 사진에서 뮤지컬의 선화가 탄생했다.

사이공이 몰락해 가기 몇 주전, 미국에서의 희망찬 삶을 위해 자신의 아이를 떠나 보내고 있는 한 베트남 여인의 사진이 부브리과 쏬버그에게 강한 영감을 주면서 오페라 나비부인의 이야기 속으로 그들을 빠져 들어가게 만들고 그것이 뮤지컬 미스사이공으로 탄생된다!!



예매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interpark.com 문의 | 1599-1980 goconcert.co.kr

주최 | 부산광역시 KNN 부산일보사 주관 | 부산문화회관 (주) 예술기획 성우

제작 | (주) 예술기획 성우 KCM I



# 2012 Yamaha Grand Piano Fair

2012. 2. 1 [Wed] ~ 2. 28 [Tue]  
삼성동 코엑스 1층 Yamaha Artist Services Seoul

부산·경남 총판  
그랜드피아노 특별할인판매  
국가공인 1급 조율사 대표 : 이상근  
문의 : 010-3579-0905  
학교, 교회, 관공서, 전공자 문의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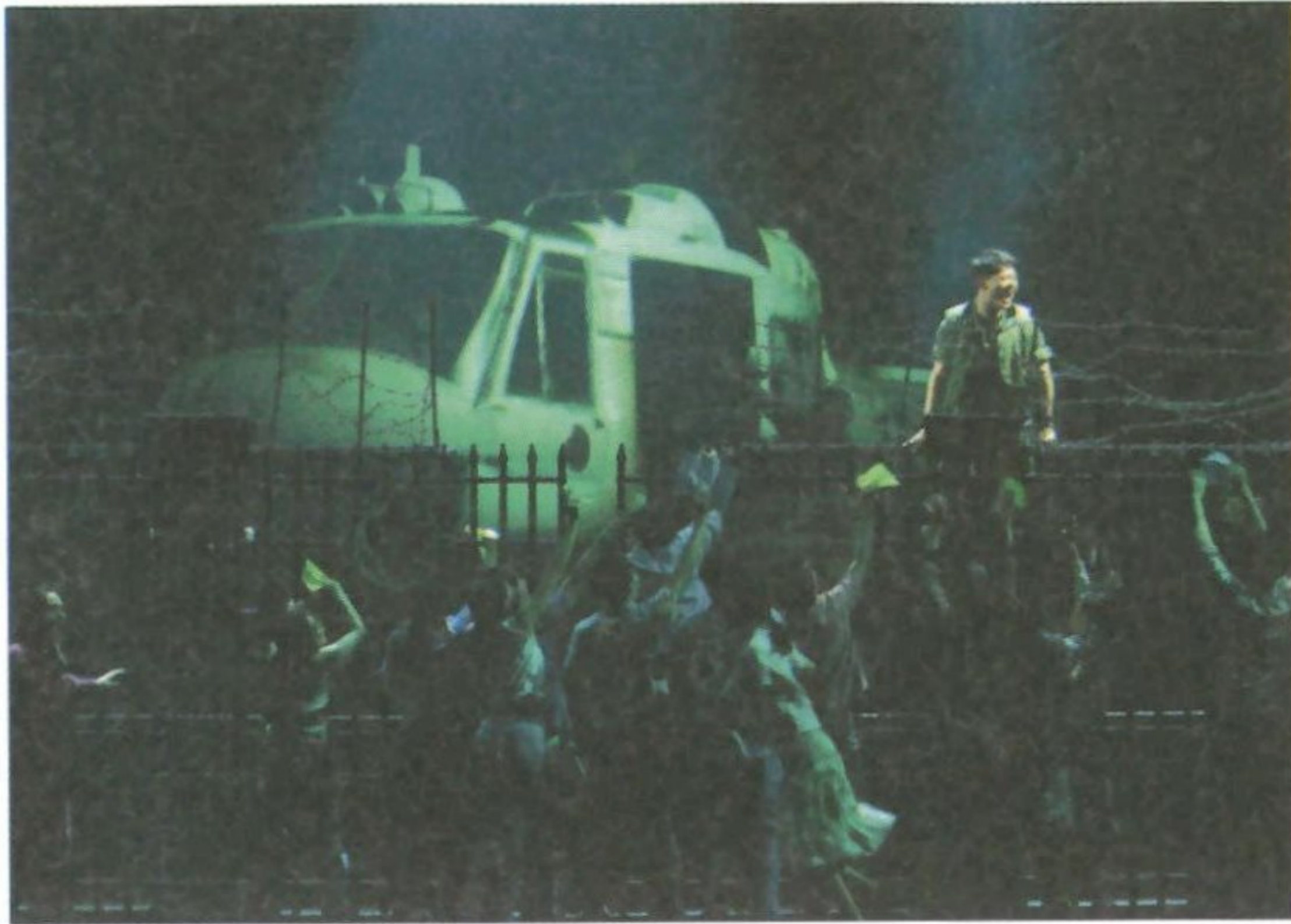
그랜드피아노 최대 전시장  
매장(양정본점)에서 그랜드피아노를  
직접 연주해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그랜드피아노 전문상담 010-3579-0905(국가공인 1급)



2.10 [Fri] pm 7:30  
CONCERT 1 김태형  
2010 원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입상

2.11 [Sat] pm 5:00  
CONCERT 2 손열음  
2011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피아노부문 2위





## C/O/N/T/E/N/T/S

### 06 커버스토리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거장 피아니스트 임동혁

### 08 프리뷰

### 16 반갑습니다

김종해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 18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오스트리아의 신년음악회 | 김현도

### 22 클래식, 문학을 만나다 ②

푸시킨과 스비리도프의 '눈보라' | 이동신

### 24 불멸의 거장, 흥난파 ⑥

음악의 양식과 특징 | 김창욱

### 26 그림, 풍류를 만나다 ⑫

노년에 보는 꽃은 안개속에서 보는 듯 | 변광석

### 28 그곳에 가면

울산의 역사를 아우르는 도시역사박물관 울산박물관

### 30 우리는 문화가족

부산광역시 공무원합창단

### 32 리뷰

부산시립교향악단 2012 신년음악회

'Ballet Music' | 박진홍

전두인 展 - 허구속의 상상력 | 박미경

### 34 프로그램 가이드

### 50 나의 애청음반

요요마 첼로 모음곡 | 박성희

### 51 100자 토크

### 52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 54 부산문화회관 소식

### 56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년 2월호 통권 242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 Fax. 051-607-3109

발행인 | 최동환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2년 1월 25일  
인쇄처 | 소문출판인쇄사 Tel. 051-256-2301~3 / Fax. 051-248-7960



##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거장 피아니스트 임동혁

한국 클래식계를 대표하는 스타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2월 14일 부산문화회관 2012년 첫 기획공연의 주인공으로 부산을 찾는다.

임동혁의 국내 무대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무대는 2008년 바흐, 2010년 쇼팽 프로젝트에 이어 2년 만에 갖는 국내 무대이다. 쇼팽스페셜리스트로 유명한 임동혁이 선택한 레퍼토리는 그의 음악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의 대표 작곡가인 라흐마니노프. 라흐마니노프의 폭발적인 강렬함과 낭만적 피아노의 정수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임동혁의 무대를 그래서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실력과 노련함으로 빠르고 화려한 커리어를 쌓아온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1984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7살에 피아노를 시작하여 10살 때 가족들과 함께 러시아로 이주한 임동혁은 모스크바 국립음악원에서 수학하였다. 10살의 꼬마 임동혁이 러시아의 분위기를 익히며 내공을 다져왔던 만큼 그의 피아노 선율은 현재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11살 때 임동혁은 모스크바 총대주교 알렉세이 2세가 참관한 가운데 독주회를 가졌고, 러시아 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의 앞에서 공연을 했다.

클래식 연주자로서는 전무후무하게 인터넷 팬 카페 회원수 4만여 명을 보유한 임동혁은 지난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의 리사이틀을 통해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500석 전석을 매진시키며 한국 클래식계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다.

임동혁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6년 모스크바 국







제 청소년 쇼팽 콩쿠르 2위에 입상하면서부터이다. 형인 임동민은 1위에, 임동혁은 2위에 나란히 입상하면서 두 형제는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가브리엘로프, 부닌 등을 길러낸 모스크바 국립음악원의 명교수 레프 나우모프(Lev Naumov)는 “임동혁은 황금손을 가졌다”고 극찬하며 임동혁을 누구보다 아낀다.

많은 화제를 몰고 다니는 클래식계의 스타연주자답게 임동혁은 화려한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2000년 부조니 콩쿠르와 하마 마츠 콩쿠르 입상을 시작으로 2001년 롱-티보 콩쿠르 우승과 더불어 솔로 리사이틀상, 오케스트라상, 프랑스 작곡가 해석상, 파리 음악원 학생상, 마담 가비 파스키에상 등 5개상을 수상했고 2003년에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편과 판정에 불복해 수상을 거부하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클래식계에 핫 이슈를 몰고 왔었다. 이어 2005년 제 15회 국제 쇼팽 콩쿠르에서 3위를 수상한 임동혁은 2007년 6월, 제 13회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분에서 1위없는 공동 4위를 수상하며 이른 바 세계 3대 콩쿠르로 대표되는 ‘퀸엘리자베스 콩쿠르(2003년)’ ‘쇼팽 콩쿠르(2005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2007년)’ 를 석권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피아노의 여제 아르헤리치의 추천으로 10대 피아니스트로는 이례적으로 세계적인 음반사인 EMI를 통해 음반을 발매한 임동혁은 이 음반으로 ‘황금 디아과종상’에 선정되었다. 2004년에 출시된 그의 두 번째 음반 ‘쇼팽 리사이틀’은 프랑스의 쇼크상을 수상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협주곡, 바흐-부조니 샤콘느를 포함한 3번째 음반은 2008년 6월에 출시 되었다.

국내외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동혁의 연주활동은 그가 더 이상 신동이 아닌 세계 클래식계에서 당당히 인정받는 젊은 거장임을 보여준다. 샤를르 뒤트와와 정명훈 지휘 아래 NHK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뉴 재팬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였으며 유리 테미르카노프가 이끄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마에스트로 쿠르트 마주어의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와도 협연 무대를 가졌다.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거장 임동혁과의 만남이 그래서 더욱 기다려진다.

· 프로그램/차이코프스키 ‘사계’, 라흐마니노프 ‘프렐류드’, 라흐마니노프 ‘소나타 2번’





## PREVIEW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2012 악기가족이야기

2월 6일(월)~7일(화), 9일(목)~10일(금), 13일(월)~14일(화), 16일(목)~17일(금) 오전 10:30, 오후 3: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미취학 아동들에게 오케스트라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여주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공연 ‘악기가족이야기’가 2012년 올해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2009년 쇼케이스의 성공에 이어 2010년 정규 프로그램으로 첫선을 보인 ‘악기가족이야기’는 악기가족을 소개하는 동화구연과 연주, 악기 체험 등을 통해 오케스트라 악기의 종류와 기능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오케스트라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클래식음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눈높이 음악회로 많은 인기를 모았다. 2010년과 2011년에는 ‘전석 매진’이라는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어린이들의 체험교육 프

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전체 공연은 연주를 곁들인 동화구연을 시작으로 악기에 대한 설명, 악기와 연주자에 대한 질문과 응답, 어린이의 눈높이를 고려한 클래식명곡 감상, 다양한 악기체험으로 구성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각 악기파트 연주자들이 앙상블팀을 구성, 타악기가족, 나팔가족, 피리가족, 바이올린가족 등 다채로운 앙상블 연주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연주에 앞서 동화구연가 김영주, 김경애, 장지영, 전유진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요(타악기가족 이야기)’ ‘서로 달라도 함께해야 아름다워요(나팔가족 이야기)’ ‘어른들께 높임말을 쓰는 예의바른 어린이가 됩시다(피리가족 이야기)’ ‘혼자 잘 수 있어요(바이올린가족 이야기)’ 등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함께 교훈을 주는 동화구연을 들려준다.

### 공연일정 및 프로그램

2월 6일~7일 월~화요일 오전 10:30, 오후 3:30

#### • 쿵쿵 탕탕, 타악기가족 이야기

- 동화구연 ●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요
- 연 주 ● 전영수(팀파니), 조용길(세트드럼), 박용갑(마림바), 김왕진(차임), 김자연(소품류 타악기), 김영립(하프), 이은정(피아노)

2월 9일~10일 목~금요일 오전 10:30, 오후 3:30

#### • 뿌우 뿌우, 나팔가족 이야기

- 동화구연 ● 서로 달라도 함께해야 아름다워요
- 연 주 ● 드미트리 로카렌코프(트럼펫), 안세윤(트럼펫), 김대영(호른), 정선화(트롬본), 송인봉(튜바)

2월 13일~14일 월~화요일 오전 10:30, 오후 3:30

#### • 휘릭 휘릭, 피리가족 이야기

- 동화구연 ● 어른들께 높임말을 쓰는 예의바른 어린이가 됩시다
- 연 주 ● 조성철(플루트), 유종석(오보에), 윤두현(클라리넷), 장정호(바순), 안주환(호른)

2월 16일~17일 목~금요일 오전 10:30, 오후 3:30

#### • 찌가 찌가, 바이올린가족 이야기

- 동화구연 ● 혼자 잘 수 있어요
- 연 주 ● 우소라(바이올린), 최은해(바이올린), 홍영선(비올라), 신지현(비올라), 서송은(첼로), 윤강희(더블베이스)

● 입장권 | 균일 1,000원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40주년 기념 특별연주회

# A Jubilant Song(기쁨의 노래) & 발레가 있는 합창

2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972년 창단 후 올해로 창단 40주년을 맞는 부산시립합창단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며 창단 40주년 기념 특별무대 ‘A Jubilant Song(기쁨의 노래) & 발레가 있는 합창’을 펼친다.

부산시립합창단 트레이너 박광하가 지휘하고 김옥련발레단이 특별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립합창단은 창단 후 지난 40년간 사랑받아온 감사의 마음을 연주곡에 담아 들려준다.

이번 무대의 첫 곡은 J. 그루버의 ‘잔다르크 미사(Mass in Honor of St. Joan of Arc)’. 강

인한 정신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있는 ‘잔다르크 미사’ 중에서 ‘불쌍히 여기소서(Kyrie)’ ‘영광(Gloria)’, ‘거룩(Sanctus)’, ‘하나님의 어린양(Agnus Dei)’을 들려준다. 이어서는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백두산의 위엄과 정신을 그린 부산의 원로작곡가 최인식의 창작합창 ‘백두산’을 들려준다.

1부 마지막 무대에서는 A. Favero ‘너를 사랑해(Te Quiero)’, 오스트레일리아 민요 ‘마틸다 왈츠(Waltzing Matilda)’, L. Farrow ‘자메이카 시장터(Jamaican Market Place)’, N. D. Joio ‘감사의 노래(A Jubilant Song)’ 등 각기 다른 나라의 합창곡으로 다양함과 재미를 선사한다.

2부에서는 발레가 함께하는 특별한 합창 무대가 펼쳐진다. J. 슈트라우스의 대표적인 왈츠곡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An Der schoenen blauen Donau)’, ‘봄의 왈츠(Fruehlingstimmen)’를 최석태가 편곡, 부산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옥련발레단이 특별한 무대를 꾸민다.

김옥련발레단을 이끌고 있는 김옥련은 경성대학교 무용학과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김옥련발레단, 숲속어린이발레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KBS 부산콩쿠르 발레부문 금상, MBC 창작무용경연대회 우수상을 수상한 김옥련은 대표작으로 ‘분홍신 그 男子’ ‘날개’ ‘꿈속의 꿈’ ‘순간’ ‘영혼의 동반자’ 등이 있다.

이어서는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비제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를 합창곡으로 들려주며 작곡가 김명자의 흥겨운 창작곡 ‘흥부와 놀부 이야기’로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 PREVIEW

# 부산문화회관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2 웰빙콘서트시리즈 I '11시에 만나요' 무대예술의 결정체 '오페라' - 라 트라비아타

2월 23일 목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이동신

연출 유철우

소프라노 구민영

테너 김지호

바리톤 강경원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부산의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인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웰빙콘서트-11시에 만나요' 2012년 첫 무대가 2월 23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영화 속의 클래식, 그림 속의 클래식'이란 주제로 영화와 미술이라는 시각장르와의 접목을 시도해 호평을 받았던 웰빙콘서트는 2012년 무대예술의 결정체인 걸작 오페라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그 첫 무대는 바로 베르디의 걸작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 프랑스 작가 알렉상드르 뒤마 2세의 소설 '춘희'를 원작으로 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파리 사교계의 고급 창녀 비올레타가 귀족 청년 알프레도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처지 때문에 그의 곁을 떠나 괴로워하다 결국 폐렴으로 죽는다는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목인 '라 트라비아타'는 '길을 벗어난 타락한 여인'이라는 뜻으로 여주인공인 비올레타를 칭하는 말이다. 1853년 3월 이탈리아 베네치아 페니체 극장에서 초연되었으며, 널리 알려진 '축배의 노래'를 비롯해 '아 그이인가' '프로벤자 내 고향으로' '파리를 떠나서' 등의 아리아가 유명하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이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이동신이 지휘와 해설을, 명신대학교 유철우 교수가 연출을, 소프라노 구민영과 테너 김지호, 바리톤 강경원이 주역을 맡아 비극적 사랑을 무대에서 펼쳐보인다.

연출가 유철우는 계명대학교 음악대학과 미국 인디애나음대 오페라 연출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토스카' '라보엠' '리골레토' '팔리아치' '돈조반니' 등 오페라 연출과 한국초연 오페라 'The Scarf' '요리사 Mavra' 번역 및 연출, 창작오페라 '장어선생의 외출' 연출, 뮤지컬 '반디의 노래' 'Godspell' 연출 등 100여회 이상 오페라, 뮤지컬, 발레, 콘서트 등 공연예술제작에 참여해왔다.

이번 무대에서 비올레타 역을 맡은 소프라노 구민영은 한양대학교 성악과와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Accademia Internazionale DI Musica, Accademia di roma를 졸업하고 현재 이탈리아 I Virtuosi della Musica Sacra 소속가수, 이태리음악연구회, 아모로제 성악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구민영은 Premio Enrico Segattini 국제콩쿠르 특별상, Musica Sacra 국제종교성악콩쿠르 로마지역청상, Lauri Volpi 국제콩쿠르, Ritorna Vincitore 국제콩쿠르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알프레도 역을 맡은 테너 김지호는 경성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쾰른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기독교대 외래교수, 독일가곡연구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국제신문이 선정한 2007년 올해의 예술인으로 선정된 바 있는 김지호는 국립오페라단 '살로메', 2009년 쿠바국립오페단 초청 오페라 '팔리아치', 2010년 제 1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아이다', 2010년 고양아람누리 초청 오페라 '나비부인', 2011년 부산문화회관 기획 오페라 '투란도트', 부산 APEC 기념 꼬레아오페라단 창단공연 '팔리아치' 등 다양한 무대에서 주역으로 활동했다.

알프레도의 아버지 제르몽 역에는 바리톤 강경원이 맡아 무대에 선다.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BS마린캄머오페 대표, BS행복음악회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경원은 안토닌 드보르작, 니코 도스탈, 로버트 스톨츠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고 그동안 금난새의 오페라시리즈 '라보엠' 과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팔리아치' '사랑의 묘약' '비밀 결혼' '카르멘', 국립창작오페라 '시절인연', 부산창작오페라 '아리랑' 출연, 해설이 있는 다이어트 오페라 기획,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 입장권 | 균일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2012 웰빙콘서트시리즈 공연일정 및 프로그램

#### 도니체티 '사랑의 묘약'

4월 26일 목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지휘, 해설\_이동신
- 연출\_유철우
- 소프라노\_고예정
- 테너\_김성진
- 바리톤\_김태우
- 베이스\_함석헌

#### 극중 배역

네모리노 Nemorino(젊은 농부, 아디나의 구혼자) 테너  
 아디나 Adina(농장주의 딸) 소프라노  
 벨코레 Belcore(하사관) 바리톤/베이스  
 돌카마라 Dr Dulcamara(돌팔이 의사) 베이스

#### 비제 '카르멘'

9월 7일 금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지휘, 해설\_이동신
- 연출\_유철우
- 소프라노\_김유진
- 메조소프라노\_성미진
- 테너\_김화정
- 바리톤\_박대용

#### 극중 배역

카르멘 Carmen(집시 여인) 메조 소프라노  
 돈 호세 Don José(상등병) 테너  
 에스카밀로 Escamillo(투우사) 베이스-바리톤  
 미카엘라 Micaëla(시골 처녀) 소프라노

####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11월 16일 금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지휘, 해설\_이동신
- 연출\_유철우
- 소프라노\_장은영
- 테너\_조윤환
- 바리톤\_박기국
- 바리톤\_김종화

#### 극중 배역

로시나 Rosina(바르톨로의 피후견인) 콘트라알토/메조 소프라노  
 바르톨로 박사 Doctor Bartolo(로시나의 후견인) 베이스  
 알마비바 백작 Count Almaviva(지방 귀족) 테너  
 피가로 Figaro(잡역부, 세비야의 이발사) 바리톤





22년간 전 세계를 감동시킨 불멸의 뮤지컬

# ‘미스 사이공’ 드디어 부산 상륙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준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이 오는 4월 5일, 드디어 부산에 상륙한다.

부산문화회관 리모델링 전 공연장 시설 문제로 2007년 부산공연이 무산되어 안타까움이 컸던 터라 이번 첫 부산공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더욱 높다.

이번에 부산 무대에 오르는 <미스 사이공>은 한국 초연 무대에서 더욱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버전의 작품이다. 세련되게 다듬어진 스토리 텔링과 보다 자연스러워진 한국어 가사 번역, 실제로 차가 등장하는 ‘캐딜락 씬(scene)’, 네덜란드에 이어 전 세계에서는 두 번째이자 국내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엘렌’ 역의 신곡 ‘Maybe’의 처녀 발표 등 이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무대로 감동을 선사한다.

지난 1월 1일 2012년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첫 공연이 열린 대구 계명아트센터에서는 1,900여석을 가득 매운 관객들로 ‘미스 사이공’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대구의 경우 2007년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43회 공연을 가진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공연. 2007년 대구공연 당시 53,000여명의 관객이 모여 미스 사이공에 대한 관심과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2011년 11월 25일부터 진행된 새로운 버전의 ‘미스 사이공’을 관람하기 위해 관객들이 공연기간 계명아트센터를 찾았다.



## 5년간의 진화 2012 미스 사이공

뮤지컬 '미스 사이공'은 베트남 여성이 울고 있는 아이의 손끝을 붙잡고 있는 한 장의 흑백사진에서 탄생했다. 미군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미국으로 떠나보내는 베트남 여성의 모습이 담긴 이 사진은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원작자인 알랭 부브리외와 미셸 쇠베르그에게 강한 영감을 줬다. 알랭 부브리외와 미셸 쇠베르그는 이 사진에 푸치니의 오페라로 잘 알려진 '나비부인'의 이야기를 더해 뮤지컬 '미스 사이공'을 제작했다.

이번에 부산에서 만나는 '미스 사이공'의 매력은 무엇일까. 2007년 부산 공연 무산 이후 서울과 대구, 김해에서 '미스 사이공'을 관람했던 매니아들도 첫 부산 공연에 기대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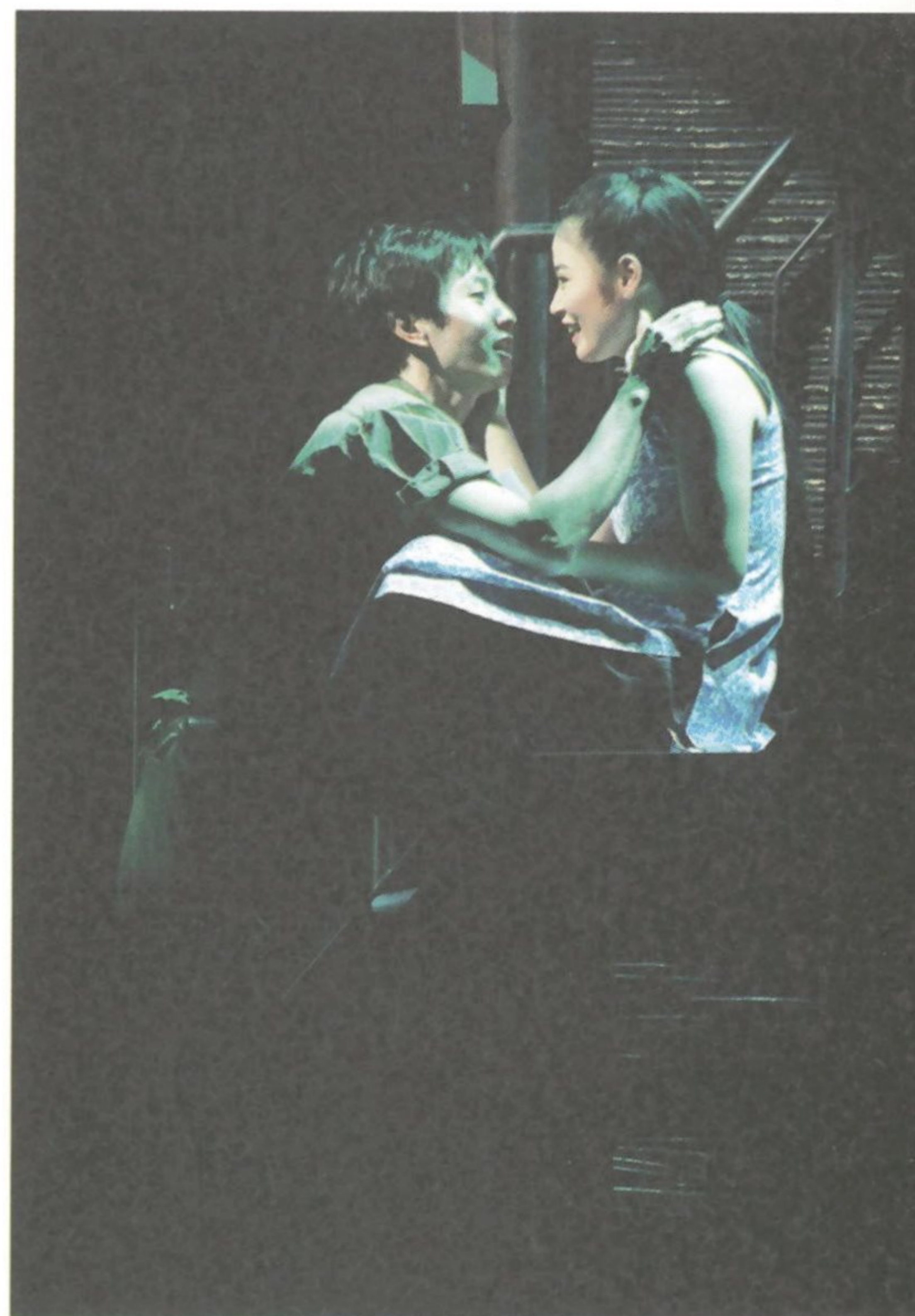
첫째 미스 사이공의 저력은 무엇보다 드라마의 힘이다. '뛰어난 가창력, 연기, 춤으로 예술의 결정판'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스 사이공은 가벼운 오락거리로 끝나는 기타 뮤지컬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작품이다. 1970년대의 암울한 베트남전을 소재로 한 작품이지만 1980년대 영국에서 만나는 여주인공 '킴'의 사랑이 여전히 눈부시고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드라마의 힘이다. 이 때문에 '미스 사이공'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관객을 울리며 장기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드라마와 함께 미스 사이공의 가장 큰 장점으로 '중독성 강한 음악'을 꼽을 수 있다. 피겨 스케이터 김연아의 2007-08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컨셉트였던 '미스 사이공'의 음악은 또 한 번 세계인을 감동시킨 바 있다. 소프라노 조수미도 최고의 뮤지컬로 '미스 사이공'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조수미는 자신의 앨범 <Only Love>에 킴과 엘렌의 이중창 I still believe를 삽입한 바 있다.

한국초연 당시 아쉬웠던 점으로 지적된 가사 전달의 부자연스러움을 2011 '미스 사이공'에서는 원 저작권자 카메론 매킨토시 측(CML)과 4년간의 공동작업을 통해 완전히 수정, 보완하여 미스 사이공의 최대 강점인 아름답고 서정적인 노래와 가사들이 유감없이 객석에 전달된다.

1,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류한 실력과 배우들의 힘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미스 사이공'이 운명적인 만남과 헤어짐, 아이를 향한 애틋한 모성과 살인, 자살로 이어지는 드라마틱한 러브 스토리에 더해진 감미롭고 중독성 강한 음악과 웅장한 무대 예술로 '뮤지컬의 교과서' 같은 작품이라고 평가 받고 있는 데는 실력과 배우들의 연기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 뮤지컬 역사상 최다 지원자가 몰리면서 1,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무대에 선 이들은 3주 동안 치러진 오디션을 통해 발탁된 최고의 배우들이다.

연기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은 김성기가 엔지니어役に 캐스팅되어 화려하게 무대를 장악하고 있으며, 브로드웨이에서 아시아계 최고의 스타로 인정받고 있는 마이클 리, 뮤지컬계의 스타 이견명, 한국초연 <미스 사이공>의 신데렐라 김보경이 지난 공연에 이어 주역으로 캐스팅되었다. 특히 김보경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김보경'이란 예명을 얻으며 연약한 소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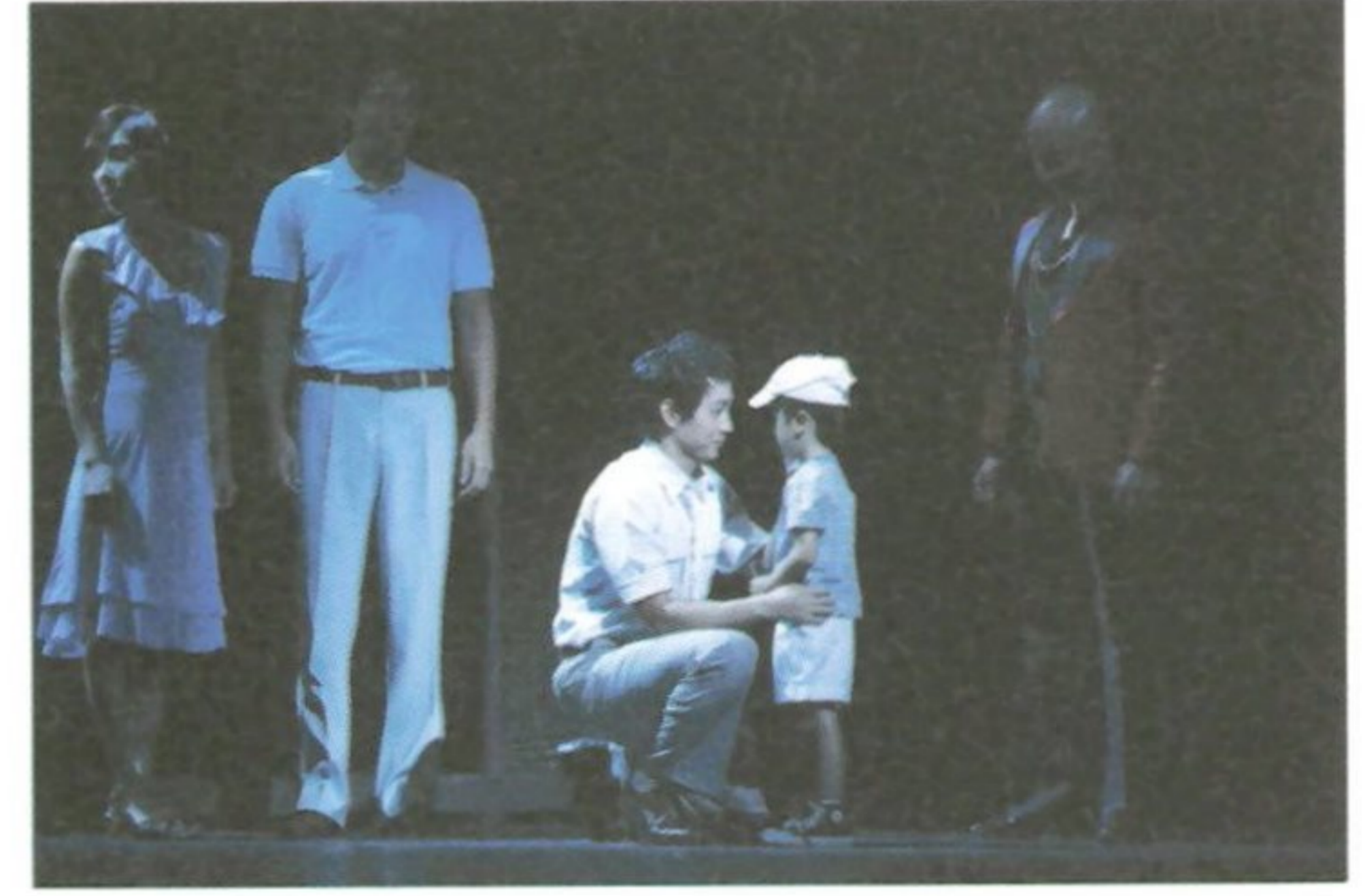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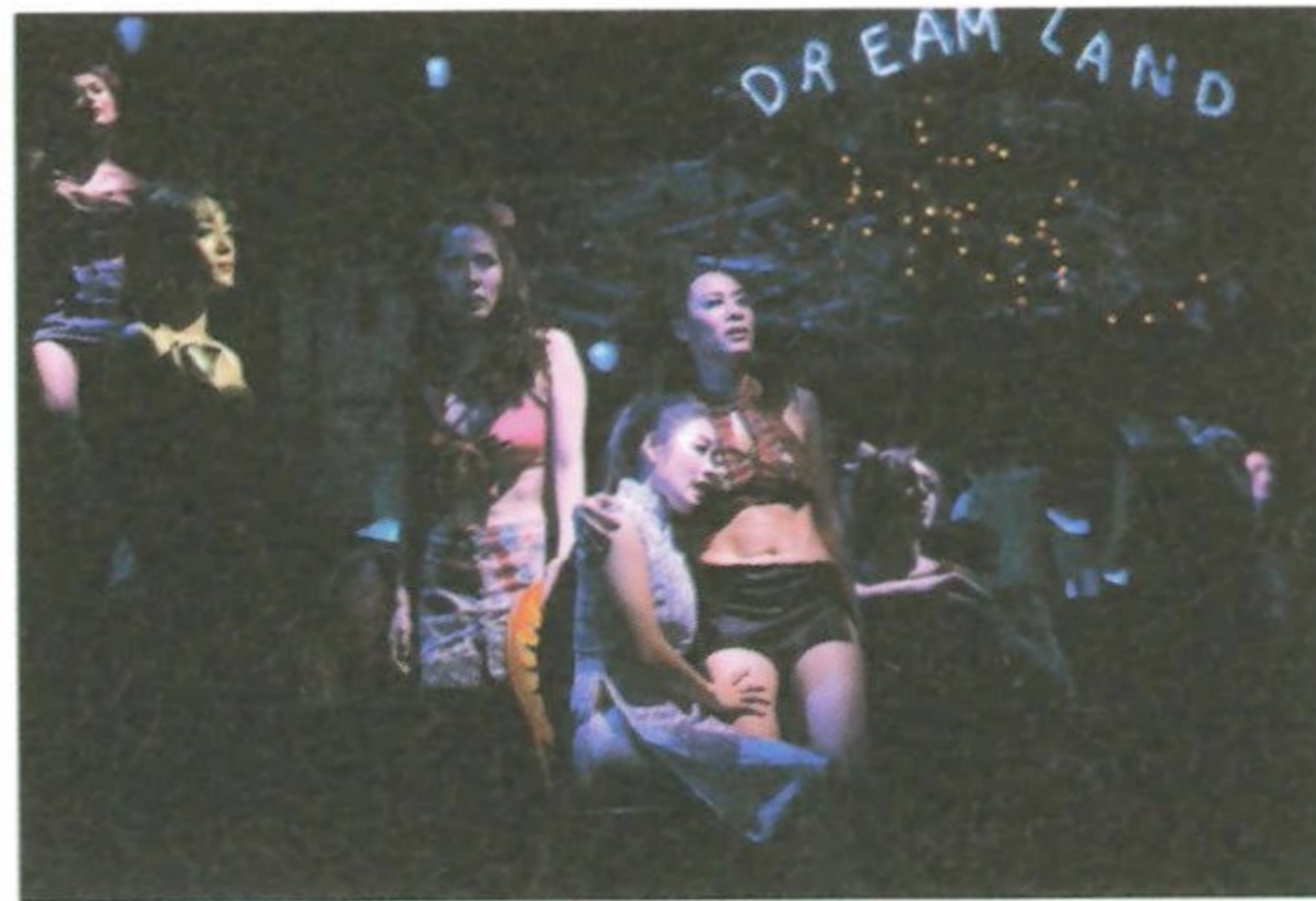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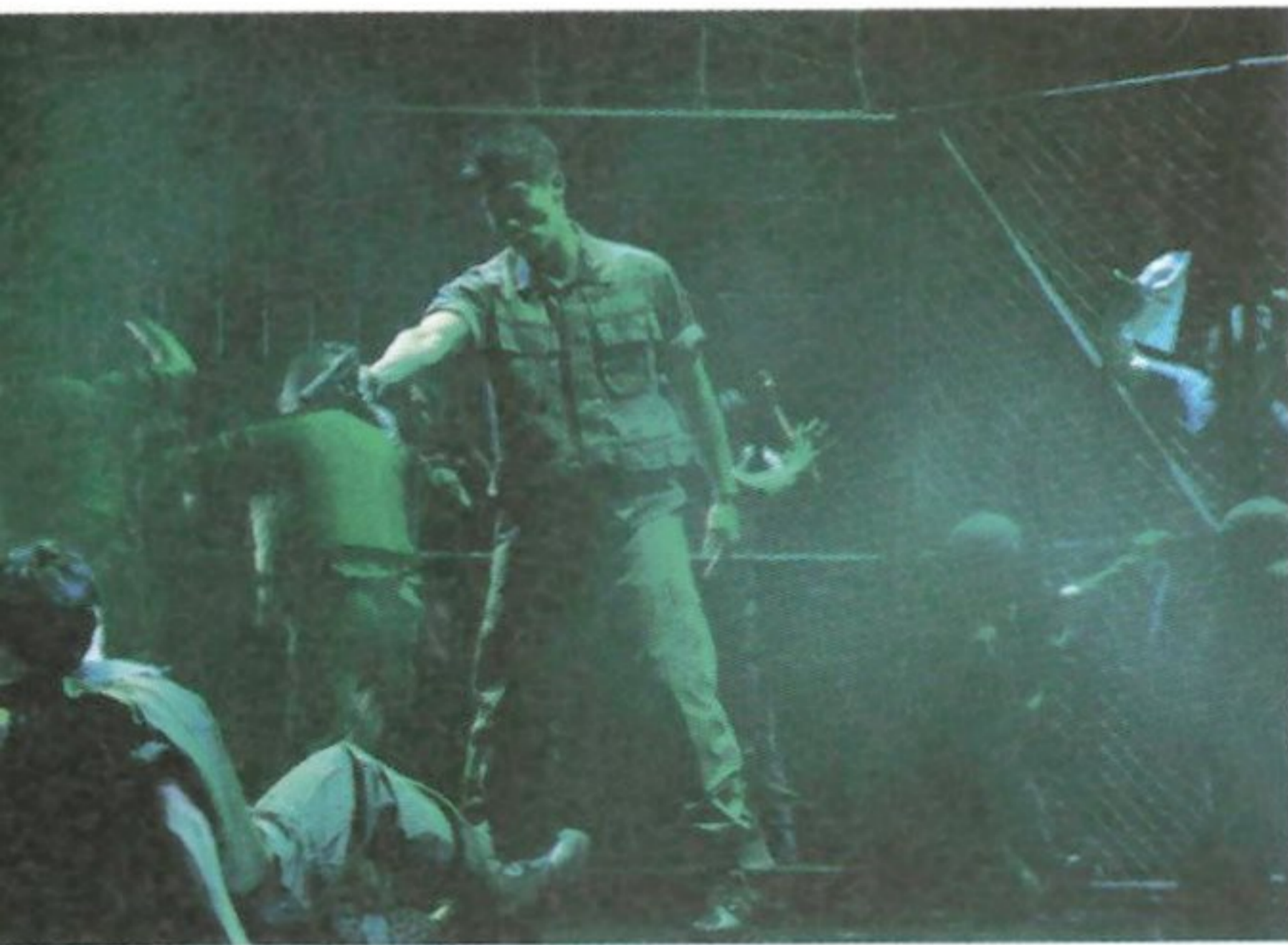




## PREVIEW

강철 같은 어머니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연기를 감동적으로 펼쳐내고 있다. 김보경 외 2009년 제 3회 더 뮤지컬 어워즈, 제 15회 한국 뮤지컬 대상 여우신인상 수상, KBS '남자의 자격' 에서 큰 인기를 모은 임혜영, 영국 오리지널 프로덕션의 지지를 받으며 '미스 사이공' 의 킴에 캐스팅된 이하나가 서로 다른 킴으로 매력을 전한다. 또한 꽃미남 실력파로 인정받고 있는 김우형이 연기하는 존 등 최고의 작품을 위해 최고의 기량으로 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17회 한국뮤지컬대상 시상식에서 뮤지컬 '미스 사이공' 의 주역들인 '존' 役의 김우형과 '크리스' 役의 이견명이 각각 남우주연상과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1,300:1의 경쟁률을 뚫고 오디션을 통과한 배우들과의 만남이 기다려진다.



### 첨단 3D영상과 스타들이 사랑하는 음악

미스 사이공은 2004년부터 최첨단 영상 효과와 탁월한 디자인으로 베트남과 방콕의 거리를 재현한 뉴 프로덕션으로 투어 공연을 계속 하며 뮤지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작품 중 하나라는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무대는 미스 사이공 최고의 장면인 '헬기 장면' 이 첨단 3D영상으로 생생하게 처리된다. 4월 공연에 앞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시설을 보완해 환상적인 헬기장면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또 무대 비주얼을 강화하여 베트남과 방콕 거리를 생생하게 재현함으로써 킴과 크리스의 러브 스토리를 한층 리얼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초연 당시 제반 여건으로 인하여 시도할 수 없었던 캐딜락 세트를 무대 위에서 볼 수 있다. 원래 오리지널 미스 사이공 무대에서 '헬기 장면' 과 더불어 '캐딜락 신' 이 관객들의 많은 탄성을 자아냈지만 2004년부터 시작된 미스 사이공 투어공연에서는 일반적인 공연장들의 무대 사이즈에 맞지 않아 사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작품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카매론 매킨토시 측에서는 마침내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캐딜락 세트를 제작했고, 2007년 호주 공연에서 캐딜락이 다시 무대에 등장했다. 이 무대용 캐딜락은 베트남전 당시 운행되었던 실제 캐딜락과 똑같은 모델로서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실질적인 주인공 엔지니어의 '아메리칸 드림' 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라 극중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2007년 한국 초연 당시 세종문화회관 유료관객 점유율 80%, 대구, 김해 유료관객 점유율 90%를 차지하며 전국 각지에서 25만 여 명이 넘는 관객들을 불러 모으며 공연계 최고 화제로 떠올랐던 뮤지컬 '미스 사이공'. 그 신화를 부산에서 다시 이어갈 '미스 사이공' 에 관심이 모아진다.





## “미스 사이공은 우리에게 꿈의 무대죠” 2012년을 ‘미스 사이공’ 으로 연주역 김보경 · 이건명

‘미스 사이공’의 완벽한 드라마와 화려한 무대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주역들의 힘이다. 2012년 1월 1일을 뮤지컬 <미스 사이공>으로 연 김보경, 이건명에게 2012년은 특별한 해이다.

“뮤지컬 배우에게 미스 사이공은 꿈입니다. 뮤지컬 공부를 할 때 바로 이 미스 사이공 악보를 보며 그 무대를 꿈꾸며 공부를 했죠.” 2007년 한국 초연 무대를 빛낸 뮤지컬 배우 김보경과 이건명이 2012년 드라마틱한 사랑의 주인공으로 다시 만나 미스 사이공의 감동을 전해준다. 두 배우 모두에게 미스 사이공은 뮤지컬배우를 꿈꾸게한 최고의 작품이다.

초연 무대에 이어 다시 김으로 열연한 김보경은 한국 초연 오디션에서 500여 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김’ 역으로 박타된 신데렐라. 김보경은 2007년 제1회 대구 국제 뮤지컬페스티벌 여자신인상에 이어 지난해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김보경과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는 이건명은 한국초연 당시 존으로 무대를 빛냈다. 이번에 당당히 크리스로 무대에 오르는 이건명은 <틱틱뵘>의 조나단 <키스미 케이트>의 빌칼룬 <맘미아>의 스카이, <렌트>의 로저 <시카고>의 도박사 <젬블러>의 젬블러 <아이다>의 라다메스 역 등을 소화해 내며 최고 주가를 기록한 뮤지컬 배우다.

“미스 사이공은 연기를 하는 우리들은 물론 보는 관객, 공연 기획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극한 상황에서 피어난 김과 크리스의 아름다운 사랑에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따뜻한 4월 부산에서 뵈게요.”

부산 공연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뮤지컬 ‘미스 사이공’. 최고의 배우들이 선보이는 최고의 무대가 기다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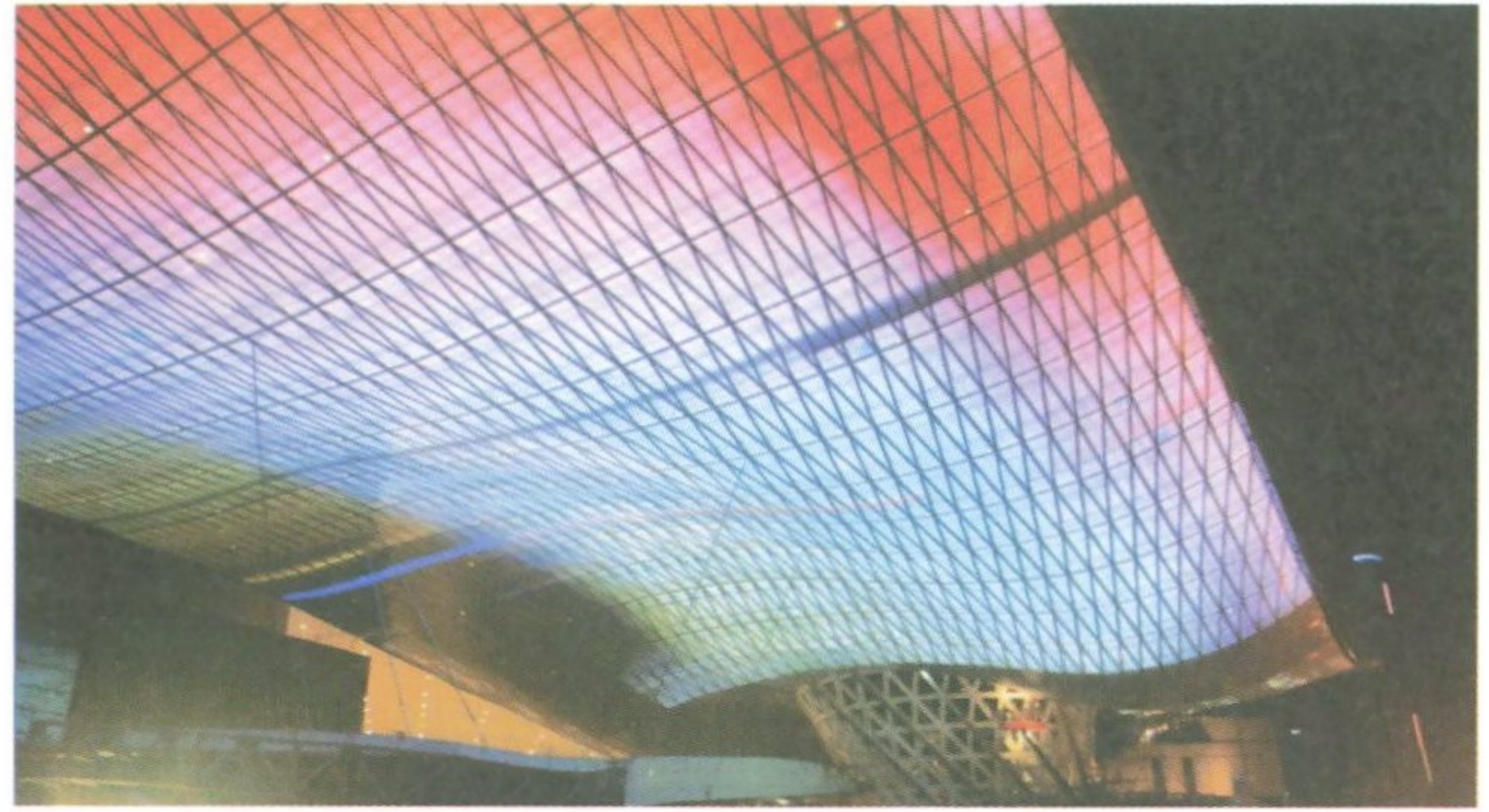
함께 꿈꾸고, 함께 희망을 꽃피우는 문화도시 부산

김종해 부산시 행정부시장



“부산은 그 이름만으로도 역동적인 힘이 느껴지는 우리나라의 대표 도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경제가 강한 도시, 일자리가 많은 도시, 시민들이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복지도시, 문화와 예술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문화도시, 세계일류 국제해양도시 부산을 꿈꾸고 싶습니다.”

지난 1월 6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부산시 신임 행정부시장 김종해. 2010년 말 지방행정연수원장 발령으로 부산을 떠난 지 1년 만에 부산시로 복귀한 그는 지난 1년, 부산을 떠나 부산의 숨은 매력과 가능성을 다시 볼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을 보냈다.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인 영화의 전당

2012년 임진년(壬辰年) 새해, 다시 부산의 너른 품으로 돌아와 “우리 모두가 꿈꾸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로 바쁜 시정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종해 부시장은 1981년부터 부산시에서 부산문화회관장, 공보관, 문화관광국장, 행정관리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책기획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풍부한 행정경험과 강력한 업무추진 능력, 친화력을 두루 갖춘 행정전문가로 손꼽히는 김종해 부시장은 부드러운 감성과 열정을 지닌 시인이기도 하다. 2004년 시집 ‘바보의 사랑일기’를 발간하기도 한 그는 부산문화회관장, 부산시 문화예술과장, 부산시 문화관광국장으로 재직한 문화공무원이다.

평소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종해 부시장은 그동안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저력 있는 문화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한달간 계속된 부산문화회관 전관개관 축제를 비롯해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바다축제 등 굵직한 부산의 축제들이 김종해 부시장의 뜻과 열정, 부산사랑으로 탄생되었고 부산의 대표 축제로 성장했다. 때문에 그의 취임을 반기는 부산문화예술인들의 축하인사가 끊이지 않는다.

행정부시장이 부산시립예술단장을 겸임하기 때문에 김종해 부시장의 취임과 함께 2012년 부산시립예술단도 새롭게 출발했다. 김종해 부시장은 2012년 부산시립예술단에게 ‘변화’와 ‘경쟁력’을 화두로 제시했다. 부산시립예술단이 관객의 변화를 인식하고 경쟁력을 갖춘 예술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그는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고 싶어 할 만큼 좋은 작품, 좋은 무대를 제작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여줄 것을 당부한다.

“2012년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창단 50년을, 부산시립합창단이 창단 40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음악의 꽃을 피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이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이제 창단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을 위한 진정한 예술단, 관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데 온 힘을 쏟겠다는 김종해 부시장은 일상생활 어디서나 문화가 넘쳐흐르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산시립예술단은 물론 부산의 문화예술인, 시민들과 부산의 문화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그의 열정은 깊은 부산 사랑에서 출발한다. 1년 간 부산을 떠나 있는 동안 영화의 전당 개관,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각종 정부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 부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다는 그는 서울 생활 중 서울지역 교향악단 활동을 지켜보며 부산지역 문화 활성화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함께 꿈꾸고, 함께 희망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한다면 힘든 일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김종해 부시장. 김종해 부시장과 함께 그려가는 2012년 부산의 모습에 기대가 크다.





오페라하우스 전경

# 오스트리아의 신년음악회

김현도\_오스트리아 유학생, 작곡 전공

2012년 임진년이 밝았습니다. 한해를 맞이하는 기쁨이 세계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겠지만 유럽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중심으로 축제분위기가 한창입니다.

연말연시를 이용하여 수많은 관광객이 유럽으로 모여들기도 합니다. 베를린, 파리, 런던과 같은 문화가 집약된 대도시는 다들 그러 하듯이 12월 1일이면 변화가 주 거리에는 엄청난 조명물이 설치되어 도시의 야경을 매우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물론 그 도시의 특색에 따라 조명을 밝힌 조형물과 디자인등의 색채나 화려함은 다르지만 빈 시민이나 빈을 찾는 관광객들은 빈 거리를 으뎌서칩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연말연시는 유럽의 다른 도시와 별반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빈의 연말은 성탄절과 함께 모든 가족이 집이나 고향에 모여서 저무는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풍속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든 빈부가 있지만 간혹 빈의 빈부의 격차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느낄 때가 바로 연말연사일 것입니다. 빈 시가



지의 중심부를 구성하고 있는 링(Ring-반지) 안에 역사적 건물에 비추어진 조명을 입은 고풍스런 건물은 과거와의 만남 뿐만 아니라 건축예술의 극치를 보여주고 그에 따른 조명은 색채 미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그중에서도 하우스의 야경은 일품입니다.

연말연시이면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아주 큰 공연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매 시즌 시작에는 연간 빈의 모든 공연의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오페라 하우스 뮤직페라이언, 콘체르트 하우스, 폭스오퍼, 그리고 크고 작은 극장이나 공연장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으니 연말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연초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러가야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과 연초에는 특별한 공연과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비너 오픈발(Winner Openball)'은 2012년에는 2월 16일 빈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립니다. '비너 오픈발'은 음악회는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브르조아 집단의 송년 대파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명문 집안의 자제 수백쌍이 하얀 드레스와 검은 연미복을 입고 비엔나필하모니의 반주에 맞춰 입장해 왈츠를 즐기고 유명 성악가, 유명 발레리노, 유명 정치인, 부자들이 모여 마시고 놀고 카지노도 하고 한마디로 노는 최대의 장입니다.

입고 온 의상과 타고 온 자동차들이 너무 고급스러워,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화려함과 사치의 극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부자들은 이렇게 즐기는구나. 기본 입장료가 250유로이고 좌석에 옵션이 추가 되면 최대 1만유로가 넘는 회원권도 있습니다. 물론 노는 것만 아닙니다.

'비너 오픈발'에는 그에 걸맞게 세계 분쟁지역의 어린이라든지 아프리카의 어려운 난민이라든지 전 세계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회도 열려 오픈발 다음날 누가 얼마를 어디에 기증했다는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선행사도 하니 없는 자들은 이러한 사치와 화려한 파티에 토를 달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오페라 하우스 입구에서 간혹 과격 한 청년들이 욕설을 퍼부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너 오픈발'에서는 기라성 같은 음악가와 예술가들이 공연을 합니다. 올해에는 누가 출연을 하고 어떤 곡을 연주하며 어떤 곡에 어떤 안무가 결



오페라하우스 정문 티켓 판매자





빈 콘체르트 하우스

들여진 공연이 열릴까? ‘비너 오픈발’은 연일 관심사의 초점이 됩니다. 저희들 같이 가난한 유학생은 그림의 떡이니 하고 TV중계나 보고 즐깁니다. 인상 깊었던 해는 지난 2007년으로, 세계적인 프리마돈나인 아나 네투롭코(Anna Netrebko)의 화려한 의상과 풍부한 성량을 과시하며 오페라 하우스를 휘몰아 가는 압도적인 공연이 기억에 남습니다.

빈에는 ‘비너 오픈발’ 같은 부자들의 송년이 있는가 하면 각 지역 각 모임, 각 단체들의 송년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서원 축제, 재래시장 송년회, 상인연합회 송년회, 기타 등등 우리와 다를 바가 없지만 클래식 음악에서부터 민속음악, 다른 나라의 민속음악, 무용까지 밤새워 와인과 음식과 음악과 춤을 즐깁니다. 이들의 대단한 체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빈의 변화가 중심부에 있는 슈테판 성당 주변 상가는 이 추운 겨울에도 연말연시엔 천막을 설치하여 음식을 팔고 술을 파는 식당들이 성시를 이룹니다. 각 모임에서 송년회를 하는지 왁짜지껄 합니다. 밖에서 바라보면 안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보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매년 1월 1일은 빈 신년음악회가 전 세계에 중계됩니다. 빈 필하모니가 전 세계인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는 빈 신년음악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것 입니다. 2012년 1월 1일에는 지휘자 마리아 안손스(Mariss Jansons)이 빈 신년음악회의 지휘봉을 잡고 2012년 빈 신년음악회가 공연되었습니다. 인터넷사이트([www.wienerphilharmoniker.at](http://www.wienerphilharmoniker.at))에 접속하시면 프로그램이나 지휘자 소개는 물론 2013년 티켓 예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케른터너슈트라세

그 외에 쉐부른 궁전음악회, 콘체르트 하우스, Vienna Mozart Orchestra, Vienna Royal Orchestra, Vienna Walzer Orchestra, Mozart House Concert, Vienna Hofburg Orchestra, Vienna Residence Orchestra, Salonorchester Alt Wien 등 음악과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모퉁이 마다 들려오는 거리악사의 연주는 '비너 오픈발' 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풍경이지만 지나가는 사람의 발을 붙잡곤 하기도 하지요. 오스트리아 빈은 그야말로 음악, 무용, 연극을 고급스럽게 진열한 명품 백화점입니다.



변화가 식당가



변화가 거리



오페라 하우스 로비



# 푸시킨과 스비리도프의 눈보라

이동신\_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푸시킨

스비리도프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시킨(1799-1837)은 시, 소설, 희곡 등 모든 장르에서 근대 러시아문학의 기반을 다진 인물이다. 그는 서구문화가 러시아인들의 일상생활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시대에 어떻게 유럽의 문학을 수용하여 보편적 의미에서의 러시아문학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인가를 고민하였고 이는 이후 그의 창작세계의 중심이 되었다. 그 이유는 푸시킨이 태어날 당시 러시아가 타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국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였고, 귀족출신이자 귀족자제의 교육을 받은 자로서 조국의 민족문화를 이끄는 주체적 소명 의식이 그의 내면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 이반 페트로비치 벨킨의 이야기〉(아래 벨킨이야기)는 1830년에 씌어진 푸시킨의 첫 소설이다. 소설가로서의 푸시킨은 러시아인의 삶을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로 기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벨킨이야기〉에서도 푸시킨은 러시아의 다양한 현실적 인물을 등장시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들의 방향과 선택을 간결하면서도 풍부한 의미를 지닌 문체로 그려낸다.

〈벨킨이야기〉는 서문 ‘간행자로부터’와 다섯 개의 독립적인 이야기- ‘발사’ ‘눈보라’ ‘장 의사’ ‘역참지기’ ‘귀족 아가씨-농사꾼처녀’-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눈보라’에서 프랑스 소설과 같은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는 마리아는 그녀의 애인 블라디미르와 비밀결혼식을 치를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때마침 불어 닥친 눈보라로 인해 결혼식장으로 오던 블라디미르는 길을 잃고 만다. 대신 엉뚱한 인물 부르민이 나타나게 되는데 훗날 마리아는 눈보라 속에서 소설속의 인물처럼 행동했던 부르민과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된다.

푸시킨의 ‘눈보라’는 1966년 블라디미르 바소프 감독에 의해 영화로 제작되었고 스비리도프는 이를 위해 영화음악을 작곡한다. 그리고 1975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관현악 모음곡을 완성하는데 이 곡이 〈푸시킨의 이야기에 의한 9곡의 관현악적 소묘 ‘눈보라’〉이다.

1. 트로이카, 2. 왈츠, 3. 봄과 가을, 4. 로망스, 5. 전원곡, 6. 행진곡, 7. 결혼식, 8. 왈츠의 메아리, 9. 겨울길 등 아홉 곡으로 구성된 ‘눈보라’ 중에서 2곡 왈츠와 4곡 로망스는 스비리도프의 관현악 소품들 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랑받는 유명한 곡이다. 이야기의 내용처럼 비장하고 슬프면서도 낭만적이고 우수가 가득하며 때로는 강인한 러시아적 정서가 음악 전반에 걸쳐 흐른다.

작곡가이며 피아니스트인 게오르기 바실리에비치 스비리도프(1915-1998)는 러시아의 문학과 민족적인 전통을





찬미하는 음악으로 소련문화권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레닌그라드음악원에서 쇼스타코비치를 사사한 그는 러시아의 전통과 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을 음악적으로 소화하였고 그 결과 토속적인 멜로디를 20세기 음악적 기법에 맞도록 변용하여 자신의 작품에 즐겨 사용하였다. 또한 문학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 푸시킨, 파스테르나크, 예세닌, 마야코프스키, 레르몬토프, 네크라소프 같은 러시아 작가들의 소설과 시를 바탕으로 그 시어들을 지탱하고 있는 러시아의 정서를 한껏 드러내는 주옥같은 곡을 만들었다.

스비리도프는 실내악곡, 관현악곡을 포함한 훌륭한 기악곡도 여러 편 남기고 있으나, 주로 성악곡을 많이 작곡했다. 물론 그가 관심을 가진 텍스트가 러시아 작가들에 한정되지는 않았다. 스코틀랜드의 시인 로버트 번즈나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작품도 그의 음악을 구성한 중요한 텍스트였다. 하지만 민족적이고 애국적인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그의 음악은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들을 다룰 때 가장 환한 빛을 발했다. 스비리도프는 1946년에 수상한 스탈린상을 비롯해 1960년에 레닌상을 받았으며 1968년, 1980년에는 소비에트연방국가상을 수상했고 러시아 인민예술가로 추대되었다.

스비리도프는 소비에트연방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서 살았지만, 항상 서정적인 심성과 온화한 인품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래서일까. 그는 특별히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애뜻한 그리움으로 회상하며, 시골집, 자작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진 연못 등 러시아 전원의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하는 시를 특별히 좋아했다. 또한 스비리도프의 음악이 간결하면서도 가요풍의 멜로디가 넘치며 보편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듯이 편안한 것은 바로 그가 민요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결과이기도 했다. 50대에 시작된 본격화된 그의 민요연구는 이후 그의 음악적 스타일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민족적인 정서가 강하고 성악곡이 주를 이루며 뛰어난 멜로디 감각으로 호소하고 있는 등 그만의 독자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음악의 양식과 특징

김창욱\_음악평론가



난파 부부

## 홍난파의 기악음악

홍난파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작곡했다. 아마추어 청중을 위한 바이올린 독주곡과 관현악곡을 포함해서, 레코드 청취자들을 위한 신민요와 유행가, 음악교육 교재로 만들어진 동요와 가곡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씌어진 실용적인 성격의 것이었고, 그런 점에서 그를 한국 근대의 실용적 음악 작곡가로 평가할 수 있다.

홍난파의 바이올린 독주곡 ‘애수의 조선’ ‘하야의 성군’ ‘로-만스’ ‘동양풍의 무곡’은 모두 문학적인 표제를 갖고 있으며, 각각의 표제가 암시하는 바를 음악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단순한 선율과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악곡임에도 불구하고 악곡의 프레이즈가 길지 않을 뿐 아니라 음역의 폭도 넓지 않다. 그것은 이들이 가사를 뺀 성악음악에 가까우며, 본격적인 의미에서 기악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향은 자작 기성곡을 편작한 그의 유일한 관현악곡 ‘관현악 조곡’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럼에도 형식이 엄격하지 않아 비교적 자유스러운 느낌을 주고, 이따금씩 5음음계를 바탕으로 한 선율에 3박자의 리듬을 사용함으로써

서 동양적, 또는 한국적 정서를 드러낸다는 특징을 지닌다.

## 노래에 나타난 가사와 리듬

그러나 홍난파의 음악적 성취는 무엇보다 성악음악, 특히 동요와 가곡 등의 노래에 있다. 이들은 일제시기는 물론,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폭넓게 불려졌고, 그럼으로써 그가 한국의 대표적인 서양음악 작곡가로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홍난파 노래는 주로 정형시를 가사로 선택하고, 거기에 리듬을 정형적으로 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정형적인 가사란 일정한 형식에 따라 음절수가 맞추어진 가사를 말하는데, 가령 언어의 의미그룹이 3(4)+4(3), 또는 3(4)+4(3)+5와 같이 일관되게 지속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것은 정형적인 노래 만들기를 쉽게 한다.

아가야 / 나오너라 / 달마중가자 (3+4+5)

홍난파 노래에서 가사에 대한 리듬분배는 음절수와 리듬수를 균등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3음절이 3박자, 4음절이 4박자에 분배될 때는 각각 똑같은 길이의 음표를 사용한다. 예컨대 ‘여름날/하늘은’ (구름)과 같이 3음절의 가사를 3박자로 처리할 경우 4분음



표 세 개로 분배하며,

3박 : ♩ ♩ ♩ | ♩ ♩ ♩ | ♩ ♩ ♩ | ♩ ♩ ♩ (구름)  
여름날 하늘은 파랗게 고운데

‘은저고리/은바지를’ (입분달)처럼 4음절의 가사를 4박으로 처리할 경우 4분 음표 4개로 균등하게 리듬을 분배한다.

4/4 ♩ ♩ ♩ ♩ | ♩ ♩ ♩ ♩ | ♩ ♩ ♩ ♩ | ♩ (입분달)  
은조고리 은바지를 곱게 입고 요

그런데 리듬을 균등하게 분배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가령 3음절이 2박자, 3음절이 4박자에 분배될 경우가 그렇다. 이럴 때 그는 앞의 음표를 길게 하고 뒤의 음표를 짧게 하거나, 앞의 음표를 짧게 하고 뒤의 음표를 길게 해서 리듬을 분배한다.

2/4 ♩ ♩ | ♩ ♩ (무명초)      4/4 ♩ ♩ ♩ | ♩ ♩ ♩ (눈꽃새)  
천 년이 됐는지                      예 뽀성 맑으니

### 리듬의 반복과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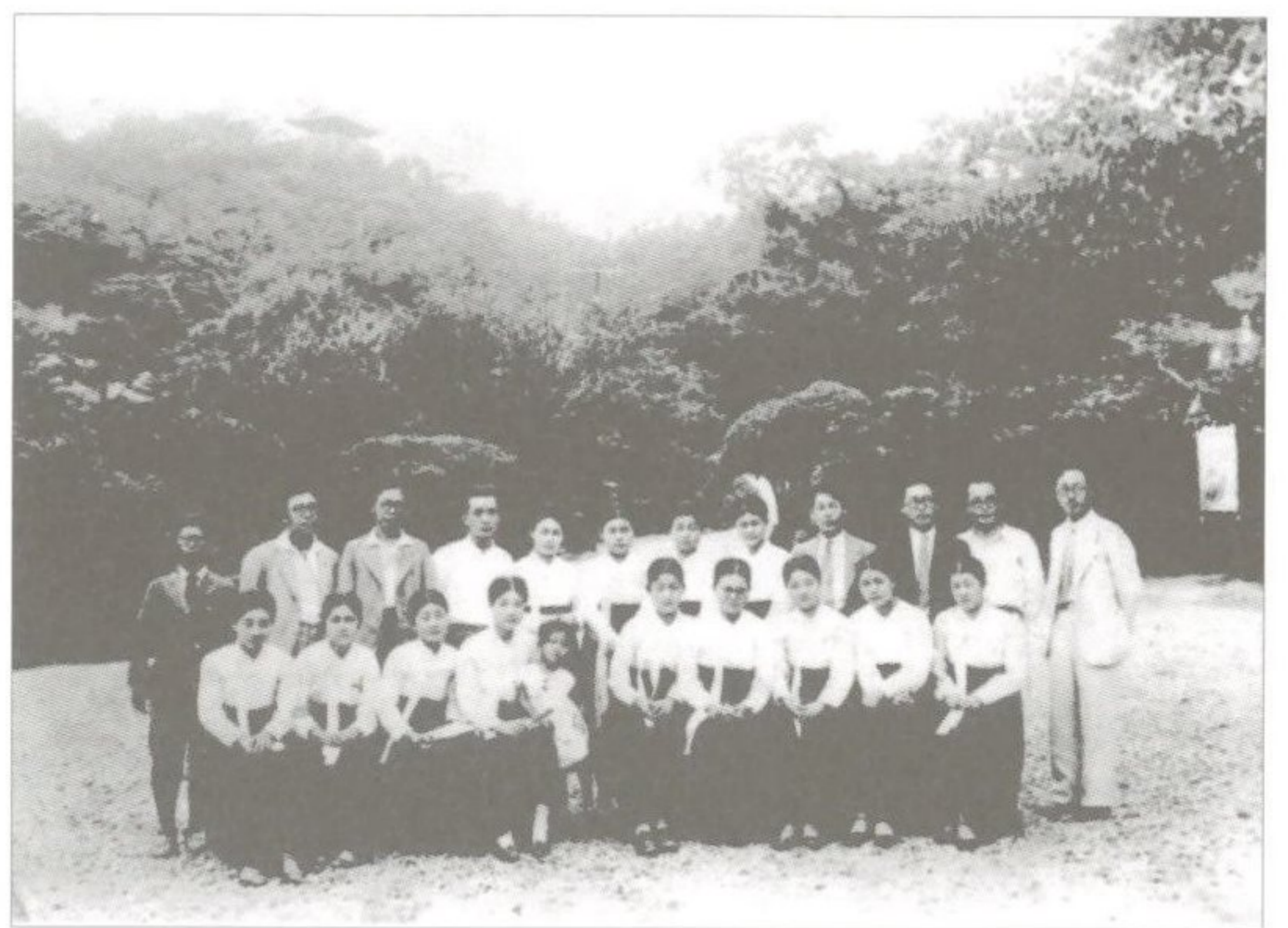
그렇지만 흥난파는 모든 노래에서 기본 리듬형을 지속시키지는 않는다. 기본 리듬형을 반복하거나 그것에 약간의 변형을 가해서 한층 다양한 리듬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리듬변형은 단순성을 피하기 위해서, 특정음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식적 효과를 위해서, 가사의 음절수를 맞추기 위해서 각각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전 창가시대의 리듬 활용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가령 이상준은 이른바 ‘강총리듬’ (♩ ♩)만으로 노래를 만들고 있다.

4/4 ♩ ♩ ♩ ♩ | ♩ ♩ ♩ ♩ (새해)  
복은 때와 무 겁을 - 가는 해주어

그러니까 리듬의 반복과 그 변형은 흥난파 음악에서 보여지는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는 여기에 한 옥타브, 혹은 한 옥타브를 조금 넘어서는 음역 내에 5음음계나 7음음계를 이용해서 선율을 만들고, 이를 지탱해 주는 장·단조의 조성과 주요 3화음 중심의 화성을 적절하게 채워 넣음으로써 노래를 완성한다. 따라서 흥난파 노래는 양식적으로 매우 단순하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 단순성은 누구나 쉽게 배워서 어렵지 않게 부를 수 있게 한다. 단순하기 때문에 ‘쉬운’ 그의 노래는 당대는 물론 후대의 수용자들과의 끊임없는 음악적 소통을 가능케 하였고, 그것은 실용적 음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흥난파의 음악과 삶은 이번호로 끝을 맺습니다.>



경성보육 졸업식



1933년 학생합창단 순회공연 당시 기념사진

望 郷 曲      羅 素 雲 作 曲  
乙 巳 景 作 詞

松 花 江 畔 望 遠 處 情 思 浩 浩 恨 何 窮  
故 鄉 的 山 水 多 麼 美 麗 的 故 鄉 的 山 水 多 麼 美 麗  
千 萬 里 的 故 鄉 路 多 麼 遠 千 萬 里 的 故 鄉 路 多 麼 遠  
我 們 的 故 鄉 在 哪 兒 我 們 的 故 鄉 在 哪 兒  
千 萬 里 的 故 鄉 路 多 麼 遠 千 萬 里 的 故 鄉 路 多 麼 遠  
我 們 的 故 鄉 在 哪 兒 我 們 的 故 鄉 在 哪 兒  
千 萬 里 的 故 鄉 路 多 麼 遠 千 萬 里 的 故 鄉 路 多 麼 遠  
我 們 的 故 鄉 在 哪 兒 我 們 的 故 鄉 在 哪 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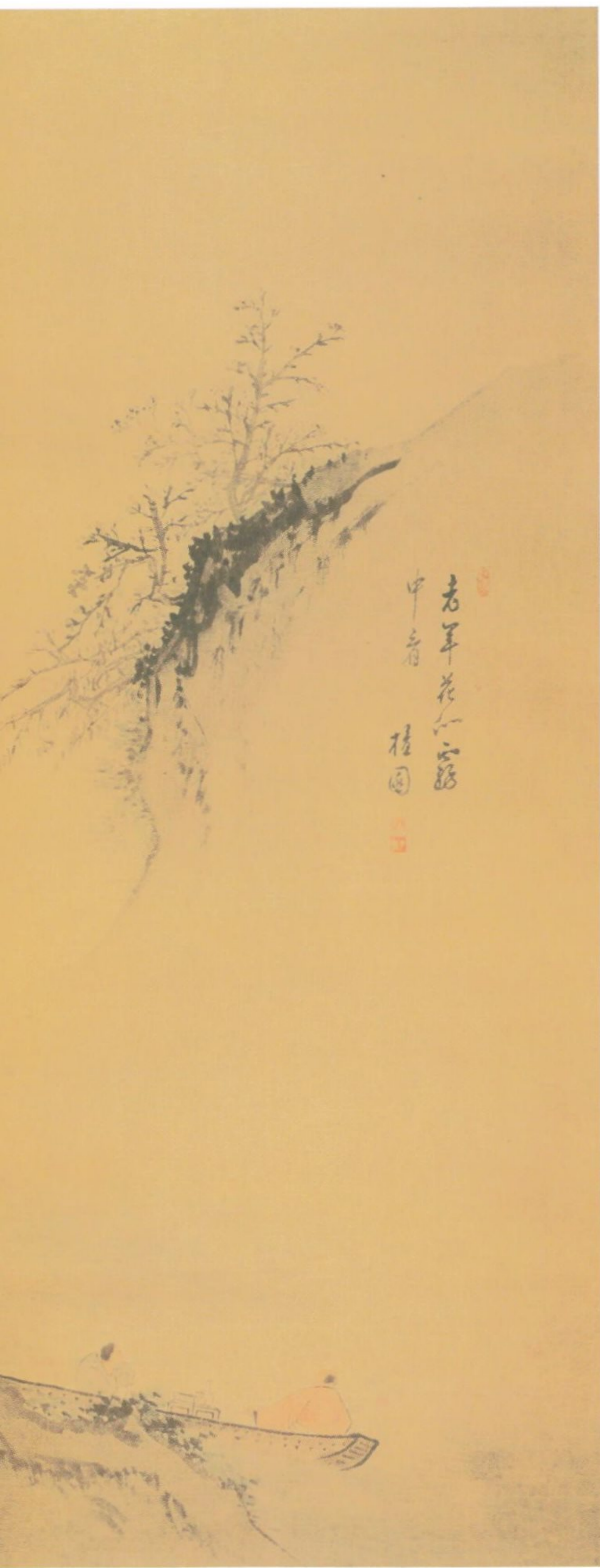
A B C D A

망향곡(사필악보)



# 노년에 보는 꽃은 안개 속에서 보는듯

변광석\_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김홍도 '선상관매'

옛사람들은 추운 겨울에 애타게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매화에다 옮겨 노래하였다. 그러면 설한(雪寒)의 추위에 굴하지 않고 힘써 견뎌낸 나무는 어느새 살짝 꽃을 피워낸다. 곧 새봄을 알리는 전령사가 된다. 선달도 채 안가서 봄기운을 예감하고 만월(滿月) 아래서 매화향을 그윽히 풍겨 내는 장면을 선인들은 많이 그렸다.

오늘 감상할 작품은 김홍도의 <선상관매(船上觀梅: 종이담채, 164×76cm, 개인소장)>. 보통 그의 작품 중 화폭이 큰 편에 속하는 8폭 병풍화첩보다도 더 큰 작품이다. 물론 이와 같은 소재의 선상관매 그림(간송미술관 소장)이 하나 더 있기는 하나 크기가 작고 화격은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그림을 읽어보자. 매화는 연륜에 따라 잔가지나 늙은 줄기들이 있어 묵선의 변화와 색의 농담을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다. 매화그림은 꽃을 정밀하게 묘사하거나 고목의 등치에 붙어서 핀 꽃을 그려서 보는 이로 하여금 춘의(春意)를 느끼게 하는 방법을 흔히 구사한다. 하지만 이 그림은 아주 새로운 기법으로 포착하였다. 강가에 거룻배를 멈춰놓고 사람이 앉아 있고, 건너편 벼랑끝에는 아스라이 매화나무가 보인다. 전체적으로 인물과 경물에 대한 붓터치가 간결한 편이며, 배경은 마치 어슴푸레한 안개에 덮인 공간을 묘사했는데 거리감과 은은함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유난히 여백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느낌은 단 한구절의 화제에서 바로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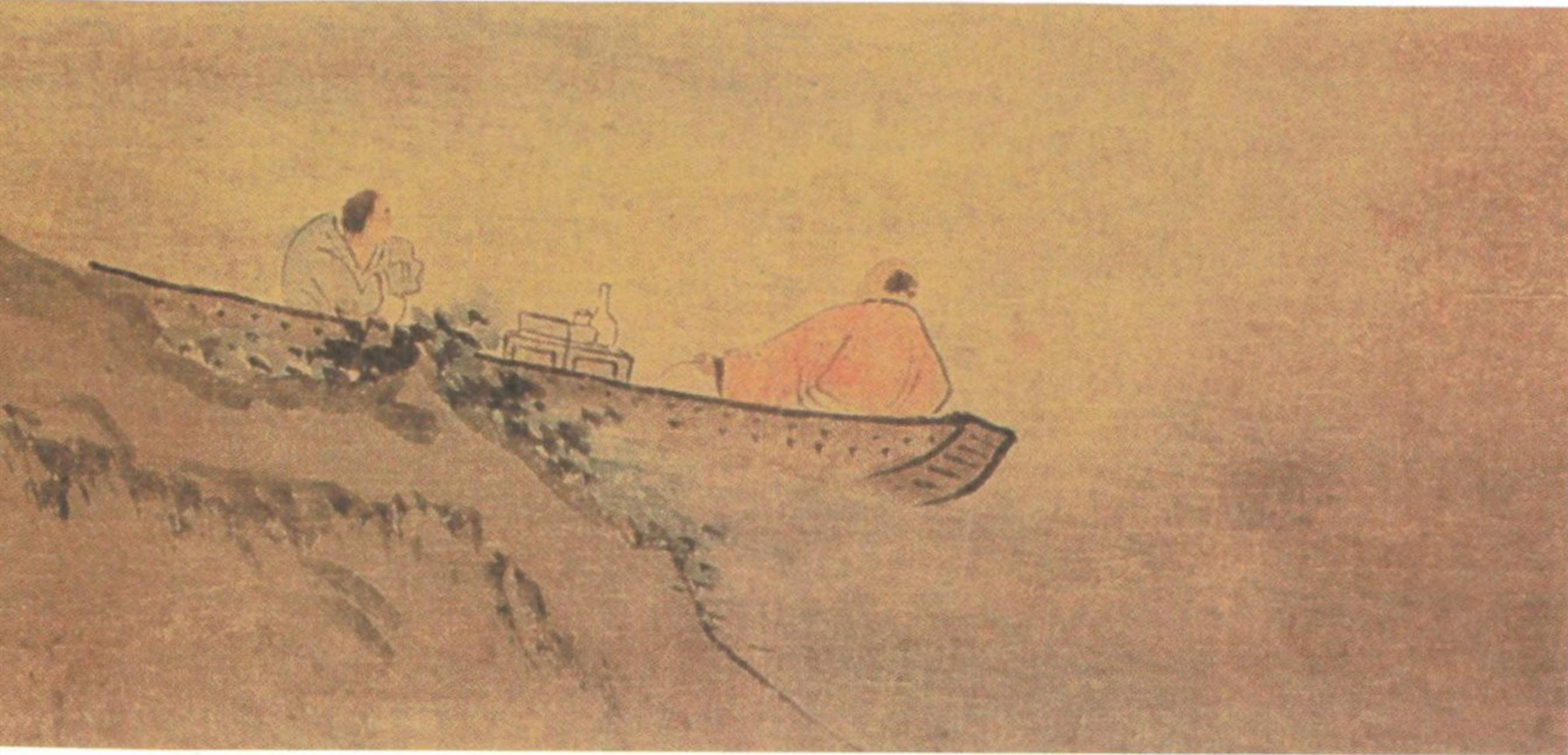
노년에 보는 꽃은 안개 속에서 보는 듯하구나 (老年花似霧中看) - 단원(檀園)

매화나무를 키워올린 벼랑 끝의 흙덩이를 진한 먹으로 붓질하고는 아스라이 핀 매화를 연하게 소묘해 놓았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 속의 대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김홍도가 나이가 지긋이 들어 자연의 경물을 편안하게 관조하는 자신의 모습을 연상하며 화폭에 담은 듯하다. 연 붉은 포의(布衣)를 입고 배 안에서 단출한 술상을 마주하고 기대앉은채 강건너 매화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다. 동자는 앞에서 시중들고 있다.

그런데 이 화제는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두보(杜甫:712~770)가 쓴 시구에서 인용한 것이다. <두소릉집(杜少陵集)> 권23, '소한식주중작(小寒食舟中作)'에 나오는 구절인데 제목 그대로 한식 전날 배 안에서 지었다는 말이다. 이를 패러디하여 김홍도 역시 배 위에서 매화를 감상하는 사람을 주체로 내세워 지은 것이다. 김홍도는 보는 사람의 '늙음'을 자연의 경물인 매화에 이입시켜 물아일체(物我一體)를 시도했다. 노년의 원숙한 미적 감각이 작용하고 있다. 두보의 영향으로 안개 속 같이 흐릿하게 보이는 몽롱의 안타까움을 일찍부터 문인들은 많이 노래하였다.

조선초 문신이자 사림의 종장이던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1431~1492)이 노년에 눈이 어두워지는 증세가 심해졌다. 그때 정원의 살구꽃이 한창 피었는데 마치 안개속에 보는 것처럼





김홍도 '선상관매' 세부도



김홍도 '노매함춘'

흐릿하기만 하다고 하면서, 두보의 시구(‘老年花似霧中看’) 7글자를 사용하여 7언절구에 한글자씩 넣어 7수를 멋지게 지었다. <점필재집>(시집, 권20, 시)에 수록되어 있는데, 지면관계상 첫수와 끝수만 소개하겠다. 절구의 노(老)와 간(看)이 운자(韻字)임을 알고 감상하면 된다.

동쪽 담장 두 살구꽃 사람들이 좋다고 하나 (東牆兩杏人言好)  
 분명히 안 보이고 흰 빛이 뿌영기만 할 뿐 (看未分明只繁皓)  
 꽃잎 조각들이 날아 벼루 못에 떨어지니 (片片飛來落硯池)  
 잠깐새 봄경치가 문득 저물었음을 깨닫겠네 (回頭忽覺春光老)  
 눈 안의 장애물은 오히려 편안할 수 있으나 (眼中安障尙儉安)  
 걱정되는 것은 심맹이 오관을 교란시킴일세 (所患心盲攪五官)  
 오늘 꽃 앞에서 다시 헤아려 보니 (今日花前更料理)  
 풍류가 도리어 소릉(두보)이 보는 것보다 낫구려 (風流却勝少陵看)

김홍도는 매화를 무척 좋아했던 모양이다. 세속으로부터의 초탈과 인생의 원숙함을 잘 은유한 매화작품이 또 하나 있다. 감상할 작품은 <노매함춘(老梅含春): 종이담채, 36×23.5cm, 개인소장>이다. 이는 황매를 그린 <노매도(老梅圖):1804년작>(1월호 소개)와 비슷한 구도의 그림인데, 매화나무의 동치를 아주 굵직한 묵선으로 나타낸 것이 고목의 강인한 생명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노매는 사람으로 치면 미수(眉壽)나 미수(米壽)처럼 눈썹이 하얀 노인과 같다. 깊은 뿌리에 굵은 등걸은 비록 늙었지만 드문드문 의연한 옥빛 청매화를 피워내었다. 그림 오른쪽의 제화사에서 의미를 한껏 담아 내고 있다.

늙은 줄기는 봄기운을 머금었고 (老幹含春意)  
 성긴 가지는 옥빛 꽃을 피웠네 (疎枝帶玉花)  
 술익고 밝은 달 떠오르자 (酒暖明月上)  
 매화 그림자 깃 창에 비치는구나 (移影臥紗窓)  
 단구(丹邱)

노매의 품성이 그윽하고 어질기가 무량하다. 김홍도가 1804년에 그린 <노매도>처럼 호를 단구(丹邱)라고 쓴 것으로 보아 역시 60세 전후 노년기의 작품임에 틀림 없다. 이 무렵의 작품은 대부분 관서를 단구로 쓰고 있다.

매화는 여느 꽃과 달리 피는 시기에 따라 느끼는 맛이 다르다. 정월의 강매화(江梅)는 유정(有情)하다거나, 눈속의 매화(雪中梅)는 새향기를 토한다든지 머리엔 흰눈이라 매화를 잊지 못한다고 선현들은 읊었다. 그런가하면 조선말 문신 굴산(橋山) 이 유원(李裕元:1814~1888)이 <가오고략(嘉梧藁略)>(4책, 시, 비춘매(悲春梅))에서 읊은 시도 던지는 의미가 있다.

사람들은 눈속에 핀 매화를 사랑하고 (人愛雪中梅)  
 제 봄날에 핀 것은 좋아하지 않네 (不愛春日開)  
 꽃은 바로 필 때를 알고 있는데 (花則知其時)  
 사람들은 꽃심기를 달리하는구나 (人則異其栽)

매화향 그윽한 옛 집이 그리운 계절이다. 함초롬히 핀 자태는 그렇게 고상할 수가 없다. 도심 인근 사찰이나 고가에 가면 봄기운 머금은 노매화를 만날 수 있다.





## 울산의 역사를 아우르는 도시역사박물관 울산박물관

박물관이 달라지고 있다. '유물전시관'이라는 기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울산시 최초의 종합박물관으로 문을 연 울산박물관 역시 '산업수도' 울산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도시역사박물관으로 호평받고 있다.

울산대공원 동문 인근에 자리한 울산박물관은 울산을 상징하는 독특한 건물 외관부터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마치 땅에서 솟아난 듯한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는 박물관 전면의 암벽에는 울산의 역사문화를 상징하는, 세계 최초의 포경유적으로 유명한 '반구대 암각화'가 부조로 형상화되어 있다. 암각화를 재현한 암벽 아래에는 태화강을 상징하는 투영못을 조성, 투영된 암각화를 통해 옛 선조들의 삶을 흔적을 되돌아볼 수 있다. 건물의 사각 금속구조물은 삼국시대 철 제련장소였던 울산의 또다른 유적지인 '달천철장'을 형상화한 것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울산의 현재와 미래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울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투영된 울산박물관은 지난해 '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또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울산박물관에는 역사관과 산업관, 어린이박물관인 해울이관, 서클영상관 등이 들어서 있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실물 크기의 반구대 암각화 탁본. 육지동물과 바다고기, 사냥하는 장면 등 총 75종 200여점의 그림이 새겨져 있는 국보 제 285호 반구대 암각화는 고래잡이에 대한 인류 최초의 기록으로 평가받는 문화재로, 지난 2010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2층 역사관에서는 선사시대부터 1962년 울산공업센터 발족 이전까지의 울산의 역사와 지역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2010년 울주 신화리 유적에서 출토된 구석기 유물을 비롯해 지난해 7월 황성동에서 발굴되어 신석기시대에도 고래를 사냥했음을 보여주는 뼈화살촉이 박힌 고래뼈와 울산이 풍부한 철 생산지였음을 짐작케하는 판갑옷과 투구, 철제농기구, 조선시대 울산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이종주 고신왕지(李從周 告身王旨, 보물 제 1006호)' '학성 이천기 일가묘 출토복식(중요민속자료 제 37호)' 등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울산의 다양한 유물을 만날 수 있다. 1597년(선조 30년) 12월 벌어졌던 도산성(울산왜성) 전투는 실감나는 영상으로 만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최대 철 생산지였던 달천광산과 말을 길렀던 방어진목장, 소금 및 도자기 생산과정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울산박물관은 산업수도 울산을 표방하는 도시답게 타 지역 박물관에서는 볼 수 없는 산업사관이 자리하고 있다. '산업수도' 탄생을 알렸던 울산공업지구 설정 선언문(1962년 2월)을 비롯 석유화학단지의 생산공정 모형, 울산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역사와 실제 자동차의 차체 조립모형, 세계 최고의 조선해양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역사와 선박제조과정 등 울산 근대산업의 발달사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어린이박물관인 '해울이관'은 울산박물관이 내세우는 또다른 자랑거리. 울산의 캐릭터인 '해울이'가 주인공이 되어 어린이들을 반갑게 맞는 이 곳은 재미있는 놀이와 체험학습을 통해 울산의 역사와 문화, 산업을 가르치고 있다. 국내 박물관에서는 처음 설치된 2D영상관 '서클영상관'에서는 360도 화면과 다양한 특수효과로 울산의 역사와 산업을 소개하고 있다. 해울이관과 서클영상관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어린이 박물관 놀이교실과 어린이 1일 박물관학교, 여름방학기간에 열리는 청소년을 위한 FunFun Museum, 고3 수험생을 위한 Happy Museum 등이 예정되어 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또한 인기가 대단하다. 상, 하반기 두 차례 열리는 울산박물관 아카데미는 올해 '불교'와 '고고학'이라는 주제로 4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10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 개최된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교실에서는 누비체험(2월 8일~29일)과 자개체험(8월 8일~9월 5일)을 경험할 수 있다.

또 지난해 개관 후 다양한 기획전을 선보였던 울산박물관은 1930년대 울산의 사회, 경제상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75년만의 귀향, 1936년 울산 달리' 전(2월 5일까지)에 이어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4월 29일까지 개최한다. 이어 6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는 울산박물관 기증유물 특별전이, 9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명·청회화 특별전이 열릴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Museum Saturday Concert'도 펼쳐진다. 2월 18일 음악으로 듣는 사랑의 테마 '사랑의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3월 스프링 콘서트 '설레임', 고래축제가 열리는 5월에는 '고래야 놀자', 개관 1주년을 맞는 6월에는 '울산박물관 개관 1주년 열린예술무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인 8월에는 뮤지컬 갈라콘서트인 '섬머페스티벌-한여름밤의 세레나데', 11월에는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위한 '아! 오늘은 좀 쉬자' 등 그 달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 문의 | 울산박물관(052-222-8501~2, [museum.ulsan.go.kr](http://museum.ulsan.go.kr))



울산시 최초의 종합박물관으로 문을 연 울산박물관은 역사관과 산업관, 어린이박물관인 '해울이관', 서클영상관 등이 들어서있다.



울산박물관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사랑받고 있다.



어린이 박물관인 '해울이관'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놀이와 체험학습을 통해 울산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 월요일~ 걱정하지 마세요

# 노래로 한 주를 여는 부산광역시 공무원합창단

‘관공서는 딱딱하고 문턱이 높다’는 고정 관념은 옛말이 된지 오래. 매주 월요일 저녁 부산광역시청 1층 대강당에서는 즐거운 노래 소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 노래를 따라 찾아간 곳은 부산광역시 공무원합창단 단원들의 연습현장. 노래로 한 주일을 시작하는 이들은 가장 아름다운 악기 ‘목소리’로 어울림의 미학을 실천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들이다.

평소 노래는 좋아하지만 자신이 없어 머뭇거렸던 사람들, 합창에 대한 동경을 가져왔던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 지난해 공무원합창단을 결성했다. 부산광역시 공무원합창단의 이름은 비스타(B/STA). Base, Soprano, Tenor, Alto의 머리글자를 따 부산(Busan) 문화계를 이끌어갈 별(Star)이 되고 싶은 그들의 바람을 담아 B/STA라는 이름을 붙였다.

B/STA는 지난해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의 신청자를 모집해 1, 2차의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54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5월 31일 부산광역시청 직장 동아리인가를 받은 공무원합창단은 창단 이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연습을 가져왔다.

“직장 생활 중 어려움이 많지만 합창단 활동으로 지난 한해를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음감을 익혀가며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 가는 즐거움 때문에 모든 단원들이 월요일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공무원합창단 회장으로 54명 단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권복순(아동청소년담당관) 씨는 청주시청 재직시 여직원합창단



지휘를 맡았던 합창 유경험자이다. 올해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간 그는 합창단 활동을 통해 동료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어 연습을 게을리 할 수 없다.

합창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일찍 귀가해 가족들에게 노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부회장 김해중(시설계획과) 씨는 “음악을 통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합창단 활동을 적극 권하고 있다.

공무원합창단 창단은 기획부장을 맡고 있는 김동호 씨와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이영일 씨 등이 2010년 부산문화회관 재직시 문화적인 소양을 쌓아보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당시 김동호 씨는 부산문화회관에 근무하던 동료 직원들과 직장합창 활동에 대해 뜻을 모았지만 인사이동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지난해 시청에서 다시 모여 본격적인 합창단 창단을 의논하게 되었고 5월, 그 결실을 맺었다.

회장 강복순 씨와 소프라노 파트장을 맡고 있는 성미진(건설본부) 씨,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이영일 씨 등이 합창단 활동을 해온 경험이 있고 그 외 단원들은 합창 경험이 없다. 합창단 지도는 테너 오동주 씨가, 반주는 이승윤 씨가 맡아 최상의 진용을 꾸렸다. 퇴근 후 이어지는 합창연습이지만 오동주 씨는 매번 변함없는 단원들의 열정에 놀란다.

합창단 첫 출발당시에는 본청 근무자들로 자격을 제한했지만 ‘기초부터 친절한 강습’이 입소문이나면서 참가 범위를 구, 군 사업소, 보건소까지 확대하게 된 것. 아직 정단원이 되지는 못했지만 장림1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정수지 씨를 비롯해 11명의 준회원들이 합창단 단원 승격을 기다리고 있을 만큼 동료들의 반응이 좋다.

“노래, 합창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라 수업 열기가 뜨겁습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오동주 씨는 초보 단원들을 위해 기초적인 발성지도부터 간단한 음악상식 등 다양한 정보를 동원해 단원들을 즐거운 합창 세상으로 인도한다. 단원들의 열정, 지휘자의 노련함이 만나 최상의 호흡을 이루고 있는 공무원합창단은 짧은 시간에 조직 강화 만찬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나쁜 월요일을 합창으로 시작하면서 업무의 효율은 물론 생활의 즐거움이 커졌습니다.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연습에 100%에 가까운 놀라운 출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신년을 맞으면서 합창단원들은 ‘창단연주회’라는 새로운 도전 목표를 세우고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일상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부산광역시 공무원합창단 B/STA. 3월 8일 그들의 신바람 넘치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기다려진다.



한 주의 시작을 노래로 열고 있는 부산광역시 공무원합창단 B/STA는 3월 8일 창단연주회를 목표로 연습이 한창이다.





# 부산시립교향악단 2012 신년음악회 Ballet Music

박진홍\_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2012년 1월 1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신년음악회가 열렸다. 쌀쌀한 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들이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창단 50주년을 알리는 첫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 부산문화회관을 찾았다. 이날 연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3편의 러시아 발레곡과 1편의 프랑스 발레곡이 준비되었다.

첫 곡인 차이코프스키(P. I. Tchaikovsky)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The Sleeping Beauty’에서는 양욱진의 첼로가 돋보였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리도 간절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첼로와 ‘길고 긴 시간의 흐름 속에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그려 내는 오케스트라의 앙상블이 특히 큰 감동을 주었다.

이어서 연주된 프로코피예프(S. S. Prokofiev)의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에서는 현악기의 치밀함, 관악기의 볼륨감과 긴장감으로 연주 시작부터 원수인 두 가문의 대립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내었다. 모음곡이 가진 특징 중 하나는 작품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음악적 색채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곡은 특히 경쾌함과 우울함, 사랑과 증오, 삶과 죽음, 대립과 화해 등의 서로 상반된 감정이 밀도 있게 배치되어 있는 작품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급박하게 변화하는 다양한 감정들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표현해 내었다.

후반부 첫 곡은 아담(A. Adam)의 <지젤> 중 ‘그랑 파드되(Grand pas de deux)’였다. 파드되는 발레의 아리아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두 남녀 무용수의 기교와 하모니를 느낄 수 있는 형식이다. 극중 지젤을 떠올리는 김가영의 비올라 선율은 프랑스 발레가 가진 우아함과 유려함을 표현하기에 충분했다. 죽은 지젤의 영혼과 남자 주인공 알브레쉬트가 춤을 추는 장면의 음악들에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애절한 사랑을 밝고 경쾌한 무도회로 만들어 내는 프랑스 특유의 긍정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연주였다.

마지막 곡으로는 스트라빈스키(I. F. Stravinsky)의 <불새 모음곡>이 연주되었다. 한층 더 안정되고 풍부해진 관악기들의 연주는 러시아 민요 위에, 이글거리는 불새의 깃털처럼 화려한 채색을 입혀 놓은 이 작품의 맛을 잘 살렸다. <봄의 제전>에서도 느낄 수 있는 스트라빈스키의 원시적이고 강렬한 음악적 영감은 불새가 마왕을 무찌르고 힘껏 날아오르는 듯 2012년 한 해를 희망차게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앵콜에서는 지휘자 리 신차오가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 ‘갈대피리의 춤’을 플루트로 연주하는 깜짝 이벤트를 펼쳤다. 늘 감성적이면서도 진지한 카리스마를 보여 주던 리 신차오의 유머러스한 모습에 관객들은 매우 즐거워했다.

이번 신년음악회에서는 첼로, 비올라, 바순 등의 솔로 악기들의 색채감 있는 연주, 포용적인 현악기의 사운드와 부드러움과 명확성을 느낄 수 있는 관악기의 변화를 통해서 리 신차오 취임 이후, 한층 성숙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면모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올해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매년 연주가 있을 때 마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을 보며 부산시립교향악단에 대한 애호가들의 사랑이 매우 큼을 느끼게 된다. 올해 특히 더 좋은 레퍼토리로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설렘을 가져보며, 부산시민들의 많은 관심 또한 기대한다.



# 전두인展 허구속의 상상력

-아트갤러리 유(2012년 1월 12일~19일)

박미경\_서양화가



요즘은 확실히 디지털 시대이다. 온 국민의 반 이상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그 중 절반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화질이 좋은 스마트 폰은 우리의 감각을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한다. 고화질의 TV에 고화질의 폰, 컴퓨터 등은 우리에게 깨끗하고 선명한 실물을 보는 듯 화면을 제공하고 있다. 더욱 현실감을 느끼게끔 3D나 4D가 대세인 시대가 올 것이다. 실물보다 더 실물에 가까운 것을 추구하는 21세기에 생화(生花)보다 더 생화(生花)같은 조화(造花)에 더 익숙할지 모른다. 고흐의 '해바라기' 꽃 그림 속의 꽃은 단지 화가의 내면세계의 표출로 표현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의 작품 속의 꽃은 나름 내면의 깊이가 느껴지는 꽃이며 조화(造花)와는 다른, 그렇다고 생화(生花)는 아닌 '표현'된 작품으로의 꽃인 것이다. 이와는 사뭇 다르게 실제의 꽃보다 더 생생함을 보여주는 마치 디지털 시대에 알맞은 전두인의 꽃 그림은 고화질의 TV화면보다 더 명료하고 접사렌즈로 찍은 사진보다 더 근접한 재현에 가깝다. 오직 묘사에만 의존한 재현인가, 아님 '작품'으로 의미를 갖는 표현된 그림인가. 검은 바탕의 꽃들과 잎, 줄기들은 '아바타' 영화에 나오는 형광색 꽃과 나무들의 색채와 닮은 듯하다.

전두인의 작품들은 하이퍼 리얼리즘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이퍼 리얼리즘은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닌 거짓도 아닌 그림이다. 사진처럼 모든 걸 드러낼 수도 있지만 반면 감출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현대 사회와 닮았다. 눈에 보이는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는 사진과 달리 사실주의적인 표현이지만 개인의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끔 하는 정교하게 그려진 하이퍼 리얼리즘은 슈퍼리얼리즘, 혹은 포토리얼리즘이라고도 하며 재현이상의 재현으로써 극 사실주의라 한다. 1960년대 후반 회화와 조각에서 미국적인 리얼리즘의 새로운 경향으로 팝 아트의 강력한 영향으로 일어난 운동이다. 극 사실주의는 팝 아트처럼 항상 눈앞에 있는 이미지의 세계를 반영하지만 팝 아트와 달리 어떤 주제의식이나 이미지와 연관된 어떠한 설명도 없는 현상 그대로의 것만 추구한다.

화가들은 사진이 발명된 이후 사실적인 묘사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작가 나름의 독창적인 개성이 엿보이는 인상주의로 흐름이 바뀌었다. 인상주의는 그림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추구해 나간다. 사진이 할 일은 '묘사'였으나 사진이 실재하는 사물들을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해도 그것은 결국 허구의 이미지에 불과한 것이다. 실물과 다른 것이므로 사진도 허구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실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 이미지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이퍼 리얼리즘이다. '사실주의를 표방한 허구'인 것이다.

전두인의 꽃 그림은 허구의 세계를 표방하고 있으나 허구 속에 감추어진 화가의 상상력이 엿보이는 듯하다. 재현한 듯 그려진 꽃들 사이로 잎들과 줄기들은 여러 색의 붓 터치로 인해 극 사실보다는 인상주의의 표현에 가까운 듯 작가의 독자성이 느껴진다. 전두인의 꽃들의 이미지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꽃의 존재이며 창조된 이미지이다. 불멸의 꽃인 조화(造花) 역시 '창조'된 의미이며 캔버스 속 꽃 또한 재현 아닌 '창조'된 것이라 여겨진다. 우주의 블랙홀이 모든 빛을 흡수하듯 캔버스 바탕의 암흑색은 모든 색들을 포용하며 자유롭게 유평하는 것 같다. 그의 꽃들은 색채들로 인해 꿈틀대며 화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착각을 일으킨다. 극 사실에 가까우나 표현에 자유로운 전두인의 꽃 작품에서 그의 내면의 세계를 느껴봄직 하다.



### 2012 제 7회 부산국제음악제 (Busan Music Festival-BMF)

2월 2일(목)-9일(목)

>>> 부산문화회관, 신세계문화홀, 파라다이스 호텔



음악 비수기인 겨울,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실내악 연주로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는 부산국제음악제(Busan Music Festival-BMF) 2012년 무대.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패기와 열정, 관록과 여유가 묻어나는 부산국제음악제(음악감독/백혜선)는 2005년 부산아트매니지먼트가 창설한 명품음악축제로 그동안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각광받아왔다.

올해는 '클래식 음악의 빛, 그리고 감동'이라는 컨셉으로 '비범한 테크닉과 완벽한 컨트롤 속에 투명한 소리로 채색된 피아니즘의 소유자'로 평가받고 있는 세르게이 바바얀, 도쿄 스트링 콰르텟의 창시자인 일본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인 고이치로 하라다, 맨하탄 음대 교수 필립 케윈, 보자르 트리오의 첼리스트, 파르네리 4중주단 첼리스트를 역임한 첼리스트 피터 와일리, 뮌헨콩쿠르 우승자인 대만출신의 비올리스트 신연 황 등과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 신수정, 이경숙, 현악 주자인 정명화, 김남윤, 백주영, 보로메오 스트링 콰르텟,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100여명의 음악가가 참가, 2월 9일까지 7개의 음악회와 마스터 클래스, 전공학생들을 위한 뮤직아카데미가 진행된다.

#### ■ 축제음악회 일정



2월 2일(목) 보로메오 스트링 콰르텟 >>> 대극장  
1989년 폭발적인 데뷔 이래 매 시즌 전 세계에서 100

회 이상의 공연을 갖는 가장 인기 있는 현악 4중주 보로메오 스트링 콰르텟의 부산연주회.

오늘날 가장 저돌적이고 대담한 4중주단의 하나로서 음악성, 지성, 테크닉을 겸비한 세계적으로 드문 현악 4중주단으로 칭송받고 있는 보로메오 스트링 콰르텟은 클리블랜드 콩쿠르 콰르텟상, YCA콩쿠르 우승, 에비앙 콰르텟콩쿠르에서 우승하고 2007년 뉴욕의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란테상을 수상한 바 있다.

#### :: 프로그램

바흐/현악 4중주 오르간을 위한 푸가 'St. Anne'  
베토벤/현악 4중주 '라즈모프스키' 다장조  
슈베르트/현악 4중주 14 '죽음과 소녀' 등 수곡 연주

1st Violin-니콜라스 키첸, 2nd Violin-크리스토퍼 탕,  
Viola-피터 전, Cello-김이선

2월 3일(금) 명품 협주곡 with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 대극장



지휘 오충근



피아노 김정권

부산국제음악제 초청연주자와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오충근)가 들려주는 명품협주곡의 무대.

한국 피아노계의 대모인 신수정, 이경숙, 바이올린계의 대모 김남윤과 일본 바이올린계의 대부 고이치로 하라다, 감각적이고 신들린 연주를 하는 대만 출신의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신연 황, 실내악의 달인 첼리스트 피터 와일리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한다. 특히 마지막 곡은 미국에서 활동하다 최근 부산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피아니스트 김정권의 협연으로 피아노, 합창, 오케스트라를 위한 베토벤의 걸작 '코랄환상곡'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 :: 프로그램

모차르트/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바이올린/김남윤, 고이치로 하라다)

모차르트/2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피아노/신수정, 이경숙)

바르톡/비올라협주곡(비올라/신연 황)

드보르작/첼로협주곡 나단조(첼로/피터 와일리)

베토벤/피아노와 합창,오케스트라를 위한 '코랄환타지'

(피아노/김정권, 소프라노/김경희, 한현미, 알토

/정수임, 테너/양승엽, 엄현섭, 베이스/하병욱)

· 오케스트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오충근)

· 합창/뮤즈콘서트콰이어(감독/조현수)

2월 4일(토)-5일(일) 갈라 콘서트 >>> 신세계문화홀



백혜선

고이치로 하라다

피터 와일리

4일, 보로메오 스트링 콰르텟과 김남윤 바이올린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갈라 콘서트, 5일 피아니스트 백혜선, 바이올리니스트 고이치로 하라다, 김동욱, 신현수, 비올리스트 신연 황, 전정훈, 첼리스트 피터 와일리, 김이선 등 국내외 명연주자들이 함께하는 갈라 콘서트를 들려준다.

#### :: 프로그램

사라사테/지고이네르바이젠

슈베르트/현악 4중주 '죽음과 소녀'

글리에르/2대의 첼로를 위한 듀오 3번 등 수곡

2월 7일(화) 가족음악회-거장들의 실내악 >>> 대극장



바이올린 김남윤

비올라 신연 황

첼로 정명화

실내악의 감동과 묘미를 주는 가족음악회로 세계적인 실내악의 달인으로 칭송받는 부산국제음악제 초청연주자들이 연주하는 드보르작 피아노 5중주, 멘델스존 현악 8중주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글리에르/2대의 첼로를 위한 듀오 3번 가장조  
(첼로/김이선, 피터 와일리)

드보르작/피아노 5중주 가장조 작품 81

(피아노/주희성, 바이올린/니콜라스 키첸, 김동욱, 비올라/신연 황, 첼로/정명화)

멘델스존/현악 8중주 작품 20 내림 마장조(바이올린/김남윤, 백주영, 김동욱, 니콜라스 키첸, 비올라/신연 황, 전정훈, 첼로/피터 와일리, 김이선)

2월 8일(수) 세르게이 바바얀 피아노독주회 >>> **대극장**



제 6회 부산국제음악제에 이어 다시 부산을 찾는 거장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바바얀의 독주회. '비범한 테크닉과 완벽한 컨트롤 속에 투명한 소리로 채색된 피아니즘의 소유자'로 평가받고 있는 거

장 세르게이 바바얀은 구 소련 체제가 붕괴된 후 국가의 후원을 받지 않고 서양의 콩쿠르에 참가했던 최초의 소련 출신 피아니스트로도 유명하다. 로베르 카자드쉬 국제피아노콩쿠르(과거의 클리블랜드 국제피아노콩쿠르)(1990), 팜비치 국제피아노콩쿠르(1990), 하마마츠 피아노콩쿠르(1991), 스코티시 국제피아노콩쿠르(1992), 퀸엘리자베스 국제피아노콩쿠르,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 캐나다 켈거리의 Esther Honens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세르게이 바바얀은 유럽, 일본, 뉴질랜드, 호주,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미국 등 각지를 순회하며 다양한 연주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마르타 아르게리히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은 '골드베르크변주곡'을 들려준다.

2월 9일(목) 폐막연주회-브람스를 좋아하세요?

>>> **대극장**

실내악 연주의 정점을 보여줄 2012년 부산국제음악제 폐막연주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1부는 떠오르는 영아티스트 신현수와 김남윤과 바이올린오케스트라의 무대, 2부는 브람스를 재조명하는 음악회, 3부는 백혜선, 박주영, 신현수, 전정훈, 피터 와



일리의 연주로 피아노 5중주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사라사테/지고이네르바이젠

(바이올린/신현수, 피아노/강은정)

영화음악/스텝 OST, 미션 임파서블 OST, 여인의 향기 OST

브람스/광시곡

슈베르트-리스트/백조의 노래 중 '러브 메시지'

(피아노/필립 케윈)

브람스/피아노 3중주(피아노/이경숙, 바이올린/니콜라스 키첸, 첼로/김이선)

브람스/피아노 5중주 등 수곡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0-5833, www.busanarts.com)

**한국소년소녀정가단 제 7회 정기연주회**

2월 2일 목요일 오후 7:00 >>> **중극장**



2003년 국내 최초로 창단된 청소년 정가단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한국소년소녀정가단 제 7회 정기연주회.

정가의 모든 분야와 창작곡을 아우르는 국악 합창단으

로 매년 정기연주회와 음악캠프를 개최해온 한국소년소녀정가단은 현재 7기 단원을 모집중이다.

**::프로그램**

취풍형

가곡 우주 이수대엽, 평롱

가사 백구사, 황계사, 시조 평시조, 사설지름시조

창작곡 처용가, 헌화가, 제망매가

단소제주 상령산, 떠나가는 배, 신사동 그 사람

· 단장/문금자 · 단소지도/이경임

· 단원/정다운, 하예린, 손다정, 최지연, 이수정, 홍주현, 임유정, 이유림, 정희지, 정예정, 임수정

**::관람료** 무료

**::문의** 한국소년소녀정가단

(010-5559-6119, 010-4186-9107)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 26 아마도이자람밴드**

2월 3일 금요일 오후 8:00 >>> **소극장**



부산문화회관 하늘아래 그 콘서트 26번째 주인공 '아마도이자람밴드' 부산 공연.

실력 있는 소리꾼 이자람(보컬, 기타)을 비롯해 장기하와 얼굴들의 기타리스트 이민기(기타), 연극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베이스스트 병성(베이스), 젊은 전통타 악주자 이향아(퍼커션), 곰(드럼) 등 5인으로 결성된 '아마도이자람밴드'는 2003년 창단 이후 본업을 병행하며 흥대 앞 인근 클럽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결성 6년 만에 발표한 첫 싱글 앨범 '슬픈 노래'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풋풋한 느낌의 연주와 이자람의 담백하면서도 긴 울림이 있는 노래로 사랑받고 있다.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 부산시립무용단 정월대보름 특별공연 '지신밧기와 기원무'

2월 6일 월요일 오후 4:00

>>> 대극장 로비



2012년 부산 문화예술의 중심 부산문화회관의 안녕을 기원하는 부산시립무용단 정월 대보름 '지신밧기와 기원무'.

시민들에게 생활의 기쁨과 활력, 희망을 전하기 위한 이번 무대는 한해의 안녕을 기원하며 문화회관 일대를 도는 지신밧기와 전통적인 굿춤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멋스러운 '기원무'를 펼친다.

· 무용감독/홍기태(수석안무자)

::관람료 무료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공연 2012 악기가족이야기

2월 6일-7일 월-화요일, 2월 9일-10일 목-금요일  
2월 13일-14일 월-화요일, 2월 16일-17일 목-금요일  
오전 10:30, 오후 3:30 >>> 소극장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음악회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공연 '악기가족이야기' 2012년 무대.

'악기가족이야기'는 연주를 곁들인 동화 구연, 악기설

명, 연주자와의 대화, 연주감상, 악기 체험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어린이들에게 오케스트라에 대한 친근감과 클래식 음악에 대한 흥미를 키워준다.

올해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앙상블팀의 공연과 김영주, 김경애, 장지영, 전유진의 동화 구연으로 쿵쿵 탕탕 타악기가족 이야기, 뿌우 뿌우 나팔가족 이야기, 휘릭 휘릭 피리가족 이야기, 찌가찌가 바이올린가족 이야기가 2월 6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총 16회 펼쳐진다.

::일정

▶ 2월 6일(월)-7일(화) 오전 10:30, 오후 3:30  
쿵쿵 탕탕, 타악기가족 이야기(타악기, 하프, 피아노)  
-동화/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요

▶ 2월 9일(목)-10일(금) 오전 10:30, 오후 3:30  
뿌우 뿌우, 나팔가족 이야기(금관악기)  
-동화/서로 달라도 함께해야 아름다워요

▶ 2월 13일(월)-14일(화) 오전 10:30, 오후 3:30  
휘릭 휘릭, 피리가족 이야기(목관악기)  
-동화/어른들께 높임말을 쓰는 예의바른 어린이가 됩시다

▶ 2월 16일(목)-17일(금) 오전 10:30, 오후 3:30  
찌가 찌가, 바이올린가족 이야기(현악기)  
-동화/혼자 잘 수 있어요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앙상블팀  
· 동화구연/김영주, 김경애, 장지영, 전유진

::관람료 균일 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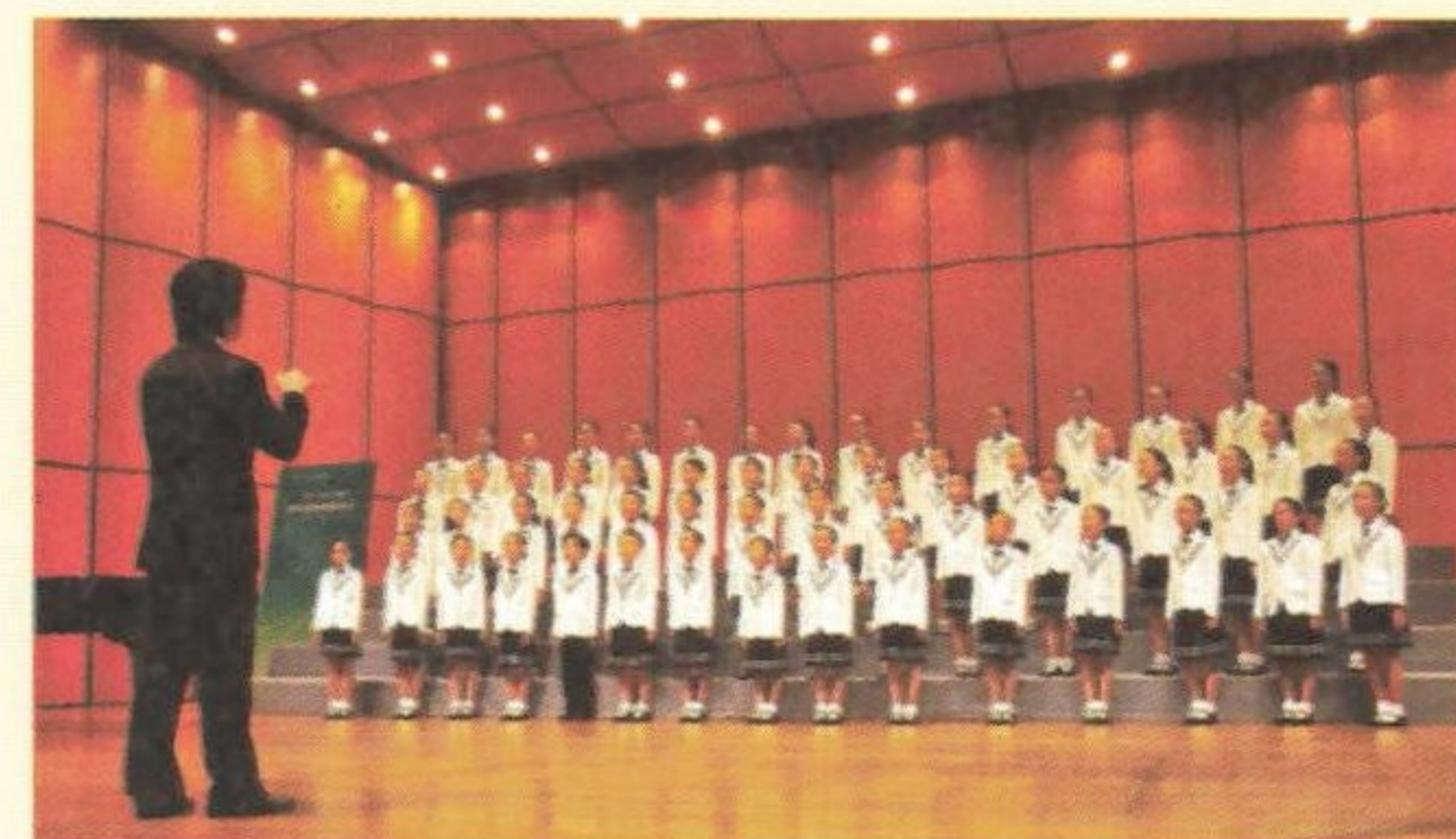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부산광역시 남구소년소녀합창단 제 3회 정기연주회

2월 10일 금요일 오후 7:00 >>> 중극장

남구에 거주하거나 남구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구성된 부산 남구소년소녀합창단의 제 3회 정기연주회.

2009년 6월, 문화예술의 도시 남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의 음악적 재능발굴과 창의적인 어린이로 육성하기 위해 창단된 남구소년소녀합창단은 부산 남구를 대표하는 어린이 문화사절단으로 그동안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UN평화대축전 축하공연, 음악콩쿠르 참가 등 다양



한 공연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박지훈/진달래 꽃

안효영(편곡)/섬집 아기

구노/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나는 꿈 속에서 살고 싶어요'

베르디/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언제나 자유롭게'  
우리들의 지난 여름이야기/Summer Night!(황수진 편곡), 소중한 사람, 선녀와 나무꾼(손민정 곡), 팔방수(윤종신 곡), 보리울의 여름(이영훈 곡) 등 수곡

· 지휘/김주곤 · 반주/이소진 · 사회/박근아

· 특별출연/삼손중창단, 소프라노 박희정(창원시립예술단 단원), 정화음(첼로, 부산예술고등학교 재학)

::관람료 초대

::문 의 부산광역시남구청(607-4069)

### T.O.F(Time of Fast) 국제평화를 위한 사랑의 친구되기 콘서트

2월 11일 토요일 오후 3:00 >>> 대극장



국제와이즈멘 클럽이 국제난민돕기 기금마련을 위해 마련하는 T.O.F(Time of Fast) 사랑의 친구되기 콘서트. T.O.F는 전 세계 와이즈멘들이 매년 2월 중 한끼를 정하여 금식하고, 이를 통하여 모은 식사비용으로 국제난민을 돕는 활동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2년 T.O.F는 특별히 '이웃의 고난과 고통'을 부산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기금마련 콘서트를 개최, 마련된 기금과 공연 수익은 전액 '국제난민돕기'에 기부할 예정이다.

출연

한병창(사회), YMCA 네오피하모닉 오케스트라, KBS 어린이합창단, 유심초, 해피앙상블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국제와이즈멘 부산지방사무국  
(440-3350, 010-3871-3636)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내데뷔 10주년 기념 임동혁 피아노 독주회**  
2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 대극장



임동혁의 국내 무대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임동혁 전국 투어리사이틀.

나이에 맞지 않는 실력과 노련함으로 빠르고 화려한 커리어를 쌓아온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2000년 부조니 콩쿠르와 하마마츠 콩쿠르 입상을 시작으로 2001년 롱-티보 콩쿠르 우승과 더불어 솔로 리사이틀상, 오케스트라상, 프랑스 작곡가 해석상, 파리음악원 학생상, 마담 가비 파스키에 상 등 5개상, 2003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2005년 제 15회 국제쇼팽콩쿠르에서 3위를 수상했다. 임동혁은 2007년 6월, 제 13회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1위없는 공동 4위를 수상하며 '퀸엘리자베스 콩쿠르(2003년)' '쇼팽 콩쿠르(2005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2007년)'를 석권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사계

라흐마니노프/프렐류드 작품 23

라흐마니노프/소나타 제 2번 나단조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레이디스 필 앙상블 정기연주회**  
2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 중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여성 연주자들로 구성된 레이디스 필 앙상블의 2012년 정기연주회.

2006년 창단 이후 섬세하고 부드러운 실내악 특유의 아름다움을 선보여온 레이디스 필 앙상블은 그동안 정기연주회 및 특별연주회, 부산문화회관 및 을숙도문화회관 초청연주회, 쌈지 콘서트, 태교 음악회, 학교 방문 음악회, 장애우를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정통 클래식은 물론, 팝, 동요, 영화음악 등 다채로운 장르의 프로그램을 연주해왔다.

레이디스 필 앙상블은 특히 2010년 일본 아크로스-후쿠오카 홀 초청 공연으로 현지 관객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기도 했다.

::프로그램

월록/카프리올 모음곡

거슈윈/누군가 나를 보고 있네

라흐마니노프/보칼리제

림스키-코르사코프/왕벌의 비행

니노 로타/현악 협주곡 제 1, 4악장

피아졸라/탱고 발레, '3x9' 중 '푸가 9'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최영화(010-3564-1194)

**김혜린 피아노 독주회**  
2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 중극장



부산예고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로 유학, 잘츠부르크 국립음대 모차르테움에서 피아노연주과와 음악교육학과 복수전공, 동 대학 최고연주자 과정(Konzert Diplom)을 졸업하며 Magister 학위를 수

여받은 피아니스트 김혜린 독주회.

모차르테움 Prof. Lang으로부터 '음악에 대한 열성, 흥미, 곡을 더욱 깊이 이해하려는 자세'에 대해 극찬을 받은 바 있는 김혜린은 2006년 귀국과 함께 귀국독주회와 피아노연주가클럽 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협연 무대 등 다양한 무대에 서 왔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 18번 18 내림마장조 작품 31 드뷔시/판화

슈만/카니발 작품 9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40주년 기념 특별연주회 A Jubilant Song (기쁨의 노래) & 발레가 있는 합창**  
2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 대극장



박광하



김옥린

1972년에 창단, 2012년 창단 40주년을 맞이하는 부산시립합창단이 2012년 시민에게 드리는 창단 40주년 기념 특별연주회 'A Jubilant Song(기쁨의 노래) & 발레가 있는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트레이너 박광하의 지휘로 마련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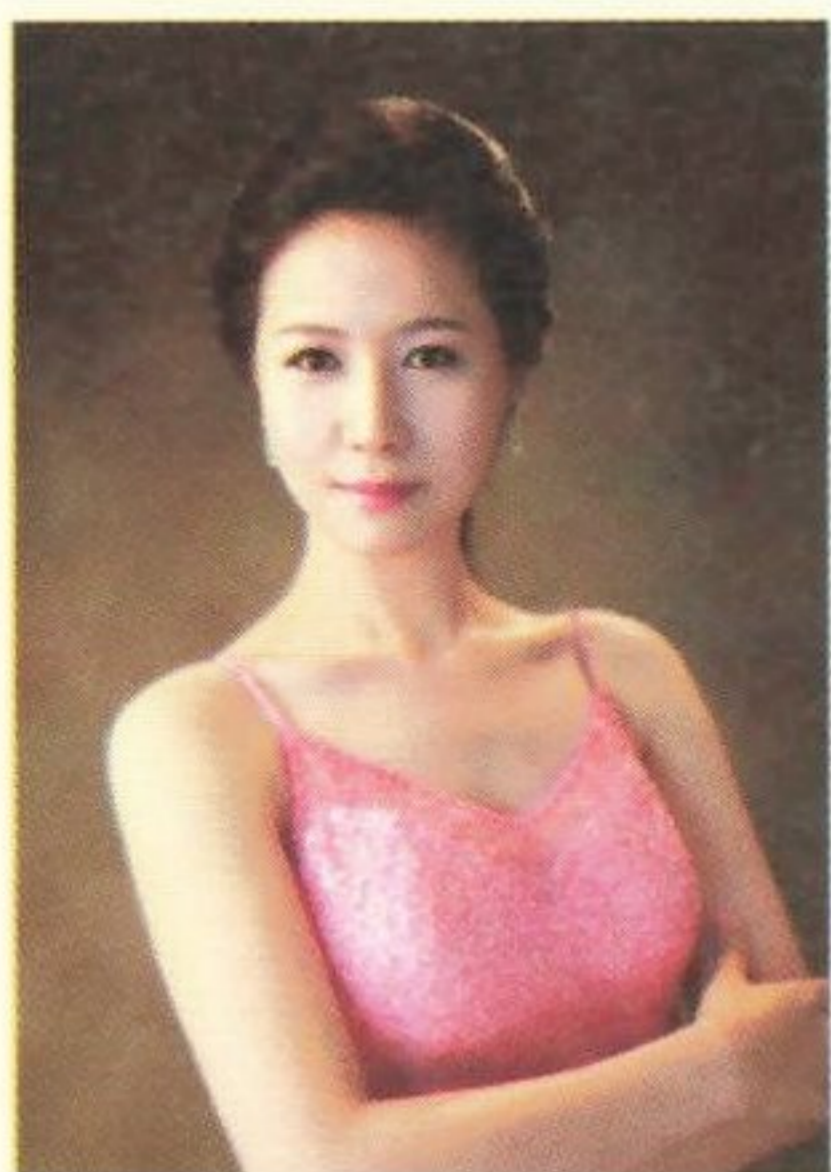
이번 무대는 강인한 정신과 감사의 마음이 돋보이는 J.그루버의 잔 다르크 미사(Mass in Honor of St. Joan of Arc)를 시작으로 웅장한 영상과 함께 만나는 최인식의 창작 합창가곡 '백두산', 합창과 발레로 감상하는 J.슈트라우스의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 '봄의 왈츠' 등으로 청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프로그램**

- 그루버/잔 다르크 미사(Mass in Honor of St. Joan of Arc)  
 최인식/백두산  
 A.Favero/너를 사랑해(Te Quiero)  
 오스트레일리아 민요/마틸다 왈츠  
 L.Farrow/자마이카 시장터  
 N.D.Joio/감사의 노래  
 발레와 함께 하는 J.슈트라우스의 왈츠/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 봄의 왈츠  
 오페라 합창/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투우사의 노래 등  
 · 지휘/박광해(부산시립합창단 트레이너)  
 · 발레/김옥련 발레단  
 · 편곡/최석태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권혜진 귀국 피아노 독주회**

2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 중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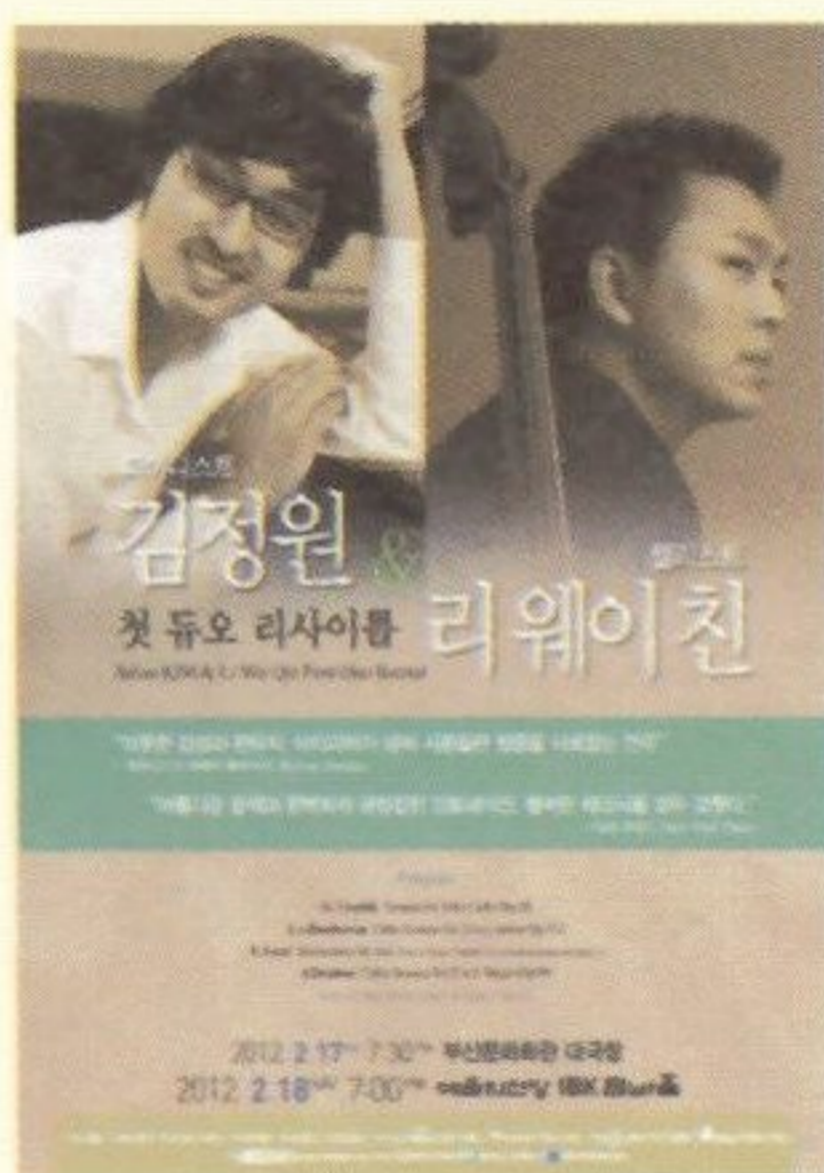
신라대학교 음악학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 파리 에꼴노르말 최고 교육자과정 디플롬, 파리 쟌느빌리에 국립음악원 피아노 디플롬(수석졸업)을 획득하고 귀국한 피

아니스트 권혜진 독주회.  
**::프로그램**  
 바하/토카타  
 베토벤/소나타

드뷔시/프렐류드  
 프로코피에프/소나타 등  
**::관람료** 무료  
**::문의** 권혜진(010-2809-5263)

**김정원 & 리웨이 첫 듀오 리사이틀**

2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 중극장



섬세한 감성과 강렬한 카리스마, 드라마틱한 감성과 유려한 테크닉, 한국 클래식을 대표하는 스타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동양적 감성으로 세계를 무대로 거침없이 활약하며 동양적 매력을 발산하는

중국의 첼리스트 리 웨이의 첫 듀오연주회.  
 1997년 비젠도르퍼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우수한 피아니스트 김정원은 '따뜻한 감성과 판타지, 아이디어가 넘쳐 시종일관 청중을 사로잡는 연주'로 사랑받고 있다. 첼리스트 리 웨이는 2001년 뉴욕 나움버그 콩쿠르 1위, 제 11회 차이코프스키 국제경연대회 준우승으로 BBC가 선정한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로 찬사를 받고 있다.  
 두 악기의 다양한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번 무대는 평소 김정원의 리사이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모습, 몇 차례 꾸준한 한국 연주를 통해 음악팬을 확보한 리 웨이의 진가를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조지 크럼/첼로 독주를 위한 소나타  
 베토벤/첼로 소나타 제 2번 사단조 작품 5-2번  
 리스트/초절기교 연습곡집 중 제 11번 '밤의 선율'  
 브람스/첼로 소나타 제 2번 바장조 작품 99번  
**::관람료** R석 6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문의** 더 스톱프(02-2658-3546)

**글로리콰이어 창단 30주년 기념연주회**

2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 중극장



1982년 6월에 CBS 관현악협회 내 CBS 성인합창단으로 출발, 1984년 3월 할렐루야 선교합창단으로 재창단되어 그동안 17회의 정기연주회, 100여회의 교회 순례찬양, 70여회의 연주회 출연 등으로 부산음악발전에 기여해온 글로리콰이어 창단 30주년 기념연주회. 글로리콰이어는 미자립교회 후원, 불우이웃돕기, 행려환자를 위한 봉사, 소년소녀가장돕기 연주회 등을 통하여 사회의 취약지역 및 소외지역과 소외 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사회정화 사업에도 일익을 담당해왔다.

글로리콰이어 창단 30주년을 기념하여 John Leavitt 명작 'Festival Mass'를 아심차게 준비, 아마추어 합창이 아닌 프로급으로 손색없는 연주 실력을 보여준다.  
 · 지휘/이정철(글로리콰이어 상임지휘자)  
 · 반주/최여진, 박성미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김명일(010-6428-7019)

**코랄하우스 남성축제합창단 2012 연주회  
행복한 남자들의 즐거운 합창**

2월 18일 토요일 오후 7:00 >>> 대극장



김강규



양희준

부산합창의 부흥을 꿈꾸는 (사)송인문화재단(이사장 변원탄)에서 기획한 아마추어 남성합창단원들의 합창축제 '코랄하우스 남성축제합창단' 연주회.



부산지역에서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는 아마추어 남성 단원들이 합창음악의 부흥을 위해 '코랄하우스 남성축제합창단'으로 함께 노래한다. 합창단의 이름 '코랄하우스(합창의 집)'란 대연동 산성교회 교육관 옆에 위치한 (사)송인문화재단의 사무실 겸 합창연습실의 이름으로 부산합창의 산실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꿈이 담긴 이름이다.

전 부산시립합창단 수석 지휘자 김강규가 지휘봉을 잡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모차르테움과 미국 신시네티움대(박사)에서 음악 수업을 한 피아니스트 권준이 피아노 반주를,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로 있는 베이스 양희준 교수가 특별출연한다.

**:: 프로그램**

- 합창 1. 한국합창곡/보리밭(윤용하), 여기 사람들 있네 (이건용), 꽃 파는 아가씨(황철익)
- 합창 2. 가요합창/한계령(하덕규), 그대 그리고 나(정현우), 아빠의 청춘(편곡 백현주)
- 합창 3. 즐거운 합창곡/Try to Remember, Yellow Bird, Good Night, Ladies
- 합창 4. 성가합창/거기 너 있었는가(흑인영가),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I Love You, Lord, L. Klein) 등
- 지휘/김강규(전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피아노/권준
- 특별출연/베이스 양희준(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 관람료** 초대

**:: 문의** 김성만(010-4183-2293)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2 웰빙콘서트 시리즈 I '11시에 만나요!'**  
무대예술의 결정체 '오페라' - 라 트라비아타  
2월 23일 목요일 오전 11:00 >>> **중극장**

저녁 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청중들을 위한 한낮의 음악선물 웰빙콘서트 2012년 무대는 무대예술의 결정체 오페라로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동신 지휘와 해설로 진행되는 2012년 웰빙콘서트 첫 무대는 1853년 발표된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



프랑스 작가 알렉상드르 뒤마 2세의 소설 '춘희(La dame aux Camelias)'를 원작으로 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파리 사교계의 프리마돈나 마리 듀프레시라는 실제 여성을 모델로 쓴 작품이다.

파리 사교계의 고급 창녀 비올레타가 귀족 청년 알프레도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처지 때문에 그의 곁을 떠나 괴로워하다 결국 폐렴으로 죽는다는 비극적인 내용을 담은 오페라로 '축배의 노래'를 비롯하여 '아 그이인가' '프로벤자 내 고향으로' '파리를 떠나서' 등의 아리아가 유명하다.

이번 웰빙콘서트에서는 소프라노 구민영이 비올레타 발레리를, 테너 김지호가 젊은 귀족 알프레도 제르몽을, 바리톤 강경원이 알프레도의 아버지 조르조 제르몽을 맡아 오페라의 감동을 전해준다.

**:: 프로그램**

- 베르디/라 트라비아타
- 지휘, 해설/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연출/유철우(명신대학교 교수)
- 소프라노/구민영(이탈리아 I Virtuosi della Musica Sacra 소속가수)
- 테너/김지호(경성대, 기독교대 외래교수)
- 바리톤/강경원(BS마린캄머오퍼 대표, BS행복음악회 음악감독)

**:: 관람료**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할인)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 성악가페스티벌**  
2월 24일-25일 금-토요일 오후 7:30 >>> **대극장**

2012년 새해를 맞이해 부산의 정상급 성악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한 해를 여는 희망의 선물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 부산성악가 페스티벌.

**:: 프로그램**

24일-강 건너 봄이 오듯, 봄이 오면, 그리운 금강산, 내 마음의 강물, 4월의 노래, 남촌, 수선화, 목련화, 희망의 나라로 등 수곡

25일-고향의 노래, 눈, 달밤, 구름 가네, 보리밭, 꽃구름 속에,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등 수곡

**출연**

- 소프라노/김유섬, 박은주, 김유진, 윤지영, 김경희, 이윤정, 고예정, 우선애, 박현정 외
- 메조소프라노/박소연, 성미진, 강희영, 김수현, 한현미
- 테너/김지호, 조윤환, 김성진, 김화정, 오동주, 이철성, 강학운, 장원상, 문대진, 홍지형, 이은민, 허동권
- 바리톤/이창룡, 박대용, 조현수, 고영호, 김상호, 김도형, 강경원, 구제범, 김종화
- 베이스/유형광, 이철훈, 권영기, 김태경, 김일석

**:: 관람료** VIP 100,000원 · R석 8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

**:: 문의** 솔오페라단(1544-9373)

**아미치 세펠레와 함께 하는 신춘음악회**

2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 **중극장**



지난해 부산, 경남 지역 성악가들이 관객과 보다 친근하게 만나고 호흡하기 위해 창단된 아미치 세펠레가 들려주는 신춘음악회.

봄과 관련한 한국가곡, 외국가곡, 오페라 아리아, 이중창 남성합창 등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봄처럼, 강 건너 봄이 오듯, 뱃노래, 산촌, 신 아리랑, 고향의 노래, 내 맘의 강물, Lascia ch'io pianga, Ombrs mai fu, Non t'amo piu, Mattinata, Il Bacio, Quando m'em vo, O mio babbino caro 등 수곡



### 출연

이철성, 김정아, 이정민, 임대균, 김기환, 류동호, 김현지, 한우인, 김지영, 권수현, 김태성, 김진우, 강윤광, 김성결, 박진철

· 반주/박재나, 황다운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문의** 아미치세텔레(010-9334-6105)

### 인코리안 유스오케스트라 제 10회 정기연주회

2월 25일 토요일 오후 6:00 >>> 중극장

1998년 '부산 리틀스트링스오케스트라'로 창단된 후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인코리안 유스오케스트라의 제 10회 정기연주회.

인코리안 유스오케스트라는 청소년들의 학문과 인성, 음악을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균형감 있게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쳐왔다.

### 프로그램

로시니/윌리엄텔 서곡

멘델스존/바이올린협주곡 제 1악장

J.스트라우스/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라데츠키 행진곡

비제/카르멘모음곡 중 제 5곡 등 수곡

· 지휘/김용문(동아대학교 교수)

· 협연/이정운(바이올린, 부산예술고등학교 입학 예정)

:: **관람료** 초대

:: **문의** 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010-4842-6688)

### 우리들의 노래

2월 26일 일요일 오후 6:00 >>> 중극장

사랑의 울림합창단을 비롯해 안락 성당, 이기대 성당, 하단 성당, 온천 성당, 서면 성당 성가대가 들려주는 화합과 교류의 무대.

### 프로그램

넬라환타지아, 할렐루야, 사랑의 송가 등 수곡

:: **관람료** 초대

:: **문의** 양승엽(010-7767-4390)

##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사)한국무용협회 부산시지회 공연

2월 4일 토요일 오후 4:00



### 프로그램

:: 작법무-육  
법공양무(부산  
지방문화재 제  
9호)(출연/선  
정무용단-정

해림, 임나영)

:: Mom-burim Dance Project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출연/박은진, 정진아, 이상미, 박재혁)

:: 태평무(출연/박순희무용단-박순희, 김민정, 백혜인)

:: 회무(回舞)(출연/선정무용단-정해림, 임나영, 박수진)

:: Mom-burim Dance Project '내가 찾는 아이 II'  
(출연/박은진, 정진아, 이상미, 박재혁)

:: 흥춤(출연/박순희무용단-김민정, 백혜인, 류지수)

###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2월 11일 토요일 오후 4:00

### 프로그램

:: 처용무(출연/이정식, 김병주, 류권홍, 최의욱, 김윤호)

:: 성주허튼춤(출연/김주연)

:: 흥타령(출연/오수연, 허태성)

:: 한오백년(출연/서현미)

:: 강강수월래(출연/윤은하, 이현주, 전해련, 안주희, 이  
상민, 박은혜, 김도은, 박미나, 김주현, 최효선)

:: 태평무(출연/이현정)

:: 분홍할미꽃(출연/영감 장래훈, 할미 이현주, 제대각  
시 김경미, 말뚝이 장영진)

※ 안무/홍기태(수석안무자)

### 국악실내악단 산·바다·해 연주회

2월 18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수석지휘자 이동신의 지  
휘·해설로 2012년 첫 연주일정을 시작한다.

### 프로그램

:: 수제천(壽齊天)(소금/손한별 · 대금/한영길, 김범석 ·  
피리/김경수, 최요셉, 신정현 · 해금/방병원, 김원  
지 · 아쟁/홍영혜 · 장구/송강수 · 좌고/김인균)

:: 가야금산조(김병호 류)(가야금/윤경선 · 장구/송강수)

:: 대풍류(대금/한영길 · 피리/김경수 · 해금/방병원 · 장  
구/송강수 · 좌고/김인균)

:: 판소리(판소리/김지혜 · 고수/송강수)

:: 경기민요(민요/최윤영 · 대금/한영길 · 피리/김경수 ·  
해금/방병원 · 아쟁/홍영혜 · 가야금/윤경선 · 거문고  
/오상훈 · 장구/송강수)

###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 4중주

### Grace Quartet 연주회

2월 25일 토요일 오후 4:00



### 프로그램

:: 모차르트/  
'아이네 클라  
이네 나흐트무  
지크' 중 제1  
악장

:: 브람스/헝가리 무곡 제5번

:: 엘가/사랑의 인사 작품12

:: 거슈인/소중한 당신, 리듬을 타며

:: 가르델/영화 '여인의 향기' 중 '탱고'

:: 모리코네/영화 '미션' 중 '가브리엘의 오보에'

:: 엄기엽/드라마 '황진이' 중 '영귀바람'

:: 히사이시 조/영화 '이웃집 토토로' 주제곡

:: 마이클 맥린/차르다시 등

· 연주/Violin I 김나영, Violin II 이혜진, Viola 정희  
경, Cello 최지예)

■ 무료(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부산문화회관(607-6056)



### MUSIC

####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1일 조여진 첼로 독주회

추계예술대학교와 독일 Kassel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Bohemian Soloist, 코리아솔로이스츠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조여진 독주회.

####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3번 작품 69  
마티뉴/슬로박 주제에 의한 변주곡  
피아졸라/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그랜드탱고 등  
· 피아노/민강은

#### ▶8일 플루트 콰르텟 '클랑' 창단연주회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루티스트 길명훈, 유주영, 장예지, 한유주로 결성된 플루트 콰르텟 '클랑' 창단연주회.

#### ▶15일 바리톤 한정현 귀국 독창회



동아대학교와 이태리 노바라 'GUIDO CANTELLI' 국립음악원, 밀라노 시립음악원, 마자떼 도니제티 아카데미를 졸업한 바리톤 한정현 귀국 독창회.

#### ::프로그램

토스티/매혹, 안녕

라벨/월시네를 만난 돈키호테

베르디/오페라 '리골레토' 중 '이 저주받을 간신들'  
커티스/나를 잊지 말아요 등 수곡

· 피아노/최승희

#### ▶22일 양광기 피아노 독주회 '쇼팽의 향기'

동의대학교와 폴란드 국립 쇼팽음악원을 졸업하고 부산피아노듀오협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양광기 독주회.

#### ::프로그램

쇼팽/발라드 내림가단조 작품 47 제 3번, 스케르초 내림가단조 작품 31 제 2번, 녹턴 마단조 작품 72, 소나타 내림가단조 작품 35 제 2번 '장송행진곡' 등  
· 찬조출연/조미혜(바이올린)

#### ▶29일 리스트 & 말러 '회상:Remembrance'

바리톤 강경원과 메조소프라노 정은서가 리스트와 말러의 대표곡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리스트/오! 사랑하라, 지상에서 천사의 자태를 보았네,  
로렐라이, 세 사람의 집시 등  
말러/조용한 도시, 아버지의 정원에서, 우울한 여름밤,  
사랑스런 당신 곁에, 나는 꽃길을 거닐었네 등  
· 피아노/김성숙, 정금련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 아트카페 음 목요일음악회

매주 목요일 오후 8:00 >>> 아트카페 음

#### ▶2일 낭만으로의 여행



송언경



박진주

미국 인디애나 음대 동문인 첼리스트 송언경과 피아니스트 박진주가 함께하는 무대.

경희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송언경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객원수석, 창원시립교향악단 객원부수석을 역임했으며, 일본 동경음대를 수석졸업한

박진주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연주활동을 가져왔다.

#### ::프로그램

슈만/아다지오와 알레그로 작품 70

포퍼/ '숲의 정경' 중 '가을 꽃'

쇼팽/첼로소나타 사단조 작품 65

#### ▶9일 박광식 바이올린 독주회 'Impressive'



바이올리니스트 박광식이 들려주는 제 45회 아트카페 음 목요일음악회.

#### ::프로그램

프로코피에프/5개의 선율  
작품 35

쇼송/시곡 작품 25

프랑크/바이올린과 피아

노를 위한 소나타 가장조

· 피아노/박필은

▶16일 라온제나 하모니카앙상블 '하모니카 향연속으로'  
'언제나 행복한 나' 라는 뜻의 '라온제나' 하모니카 앙상블은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추억의 하모니카 선율을 연주해왔다.

· 연주/박용호, 박진욱, 홍화숙, 김기선, 박미경, 강희경, 김정섭, 문지숙, 이정자, 황미현 외

#### ▶23일 테너 허동권과 겨울의 끝자락에서

동아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태리 캄보바쏘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시립오페라단 단원, 사하구 어머니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허동권 독창회.

· 피아노/하영화

::관람료 무료

::문의 아트카페 음(557-3369)

www.wendl-lung.co.kr

The early years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1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4:0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 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 ▶4일 프로그램

향발무, 침향무(작곡/황병기), 동부민요, 태평무, 기악독주, 동래학춤, 남도민요연곡, 설장구를 위한 모리(작곡/이경섭)

#### ▶11일 프로그램

대취타, 진주교방굿거리춤, 경기민요, 살풀이, 아리랑(작곡/최성환), 시조, 부채춤, 사물과 비나리

#### ▶18일 프로그램

삼고무, 판소리, 산조춤, 아침을 두드리는 소리(작곡/강상구), 아랑의 꿈, 동래한량춤, 가야금병창, 타악합주와 소리울림

#### ▶25일 부산가야금연주단 연주회

가야금중주곡 '궁타령의 멋', 황토길, 가야금병창 '내 고향의 봄', Victory, 리베르탱고, 청산에 살리라, 국악가요 '가시버시, 배 띄워라', 남도아리랑

::관람료 균일 8,000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 2012 겨울음악페스티벌

2월 7일(화), 9일(목), 10일(금)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피아노지도자협회가 매년 여름과 겨울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마련하는 클래식음악 감상 무대 2012 겨울음악페스티벌.

60여명의 피아니스트들이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 ::프로그램

스트라우스/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봄의 소리 왈츠  
베버/무도회의 권유

레하르/금과 은의 왈츠

타레가/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등 수곡

·해설/아나운서 박현정

·특별출연/옥준(오카리나), 고충진(클래식기타)

#### ::관람료 무료

::문의 박선연(010-4509-6846)

### 옥샘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월 9일 목요일 오후 7: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동래초등학교 재학생들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옥샘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베토벤/교향곡 '운명' 발췌곡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양방언/프린스 오브 제주 등 수곡

·지휘/박진홍

·협연/주민균(바이올린)

#### ::관람료 초대

::문의 박진홍(010-4563-7966)

### Lieto Trio 두번째 이야기 'The Four Seasons'

2월 11일 토요일 오후 7:00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관객과 소통하며 느끼는 기쁨과 행복을 공유하기 위해 피아니스트 김문주, 바이올리니스트 박은미, 첼리스트 정고른으로 결성된 Lieto Trio 두 번째 무대. 우리 귀에 익숙한 클래식곡과 뉴에이지곡 등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피아졸라/피아노 트리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슈베르트/피아노 트리오 제 2번 내림마장조 작품 100  
B. Rossette/Kiss The Rain, Je Te Veux 등 수곡

#### ::관람료 균일 5,000원

::문의 Lieto Trio(701-0465, 010-4847-0465)

### 피아노 듀오 ECHAD 부산공연 'The Essay'

2월 16일-17일 목-금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오성택



김아사

세련된 감각의 신선한 기획과 견고한 연주력으로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있는 피아노 듀오 ECHAD 부산무대. 대구예술대학교 교수 오성택과 인제대학교 외래교수 김아사로 구성된 ECHAD는 문학, 영화, 발레 등 시각적인 예술과 연계한 'The Essay' 시리즈 무대를 통해 관객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오성택(010-8593-2486)



### 풍물동호회 일파 제 1회 발표회

2월 18일 토요일 오후 4: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풍물을 사랑하는 일반일들로 구성된 풍물동호회 일파가 마련하는 첫 번째 정기공연.

:: 프로그램

길놀이, 정읍 우도설장고, 모듬북, 영남농악, 풍물판굿

:: 관람료 무료

:: 문의 고경숙(010-2860-8565)

### 직장인 음악회

2월 18일 토요일 오후 2:00 >>> 글로빌아트홀



음악을 사랑하는 직장인들이 마련하는 직장인 음악회.

:: 관람료 무료

:: 문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 제 2회 M프렌즈 정기공연

2월 21일 화요일 오후 8: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합창공연을 통해 소외된 청소년들을 선도해온 M프렌즈의 두 번째 정기공연.

월트 디즈니의 만화영화음악, 뮤지컬 '맘미아' 모음곡, 7080 가요 등 관객과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 찬조출연/쉐마남성합창단

:: 관람료 초대(후원금 10,000원)

:: 문의 양삼순(010-5761-4722)

### 제 65회 한낮의 유U; 콘서트 Dance with U;

2월 21일 화요일 오전 11:00 >>> 부산롯데호텔 아트홀



달콤한 울림의 소프라노 이종은, 웅장한 바리톤의 힘고영호와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이 함께하는 한낮의 유U; 콘서트 2월 무대.

:: 프로그램

스트라우스/대장간 폴카, 사냥 폴카

쇼스타코비치/왈츠

하차투리안/3개의 춤곡 등

· 연주/바다오케스트라(지휘/박성완)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국제신문사(500-5222)

### 디가디가 타악기앙상블 제 6회 정기연주회

2월 21일 화요일 오후 7: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지역 초·중·고등학생들로 결성된 아마추어 타악 연주단체인 디가디가 타악기앙상블의 6번째 정기연주회.

:: 관람료 초대

:: 문의 정재은(017-855-3360)

### 김선희 오보에 리사이틀

2월 25일 토요일 오후 3: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서울대학교와 독일 베를린 Hanns-Eisler음대, 베를린 UDK음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세계 기아어린이 돕기 독일 순회연주회, 윤이상음악제 초청연주회, 한낮의 유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오보이스

트 김선희 독주회.

김선희는 서울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 코리안심포니 부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 프로그램

텔레만/오보에를 위한 열 두개의 환상곡 TWV. 40  
슈만/아다지오와 알레그로 내림가장조 작품 70

1층 업라이트 피아노 전시장

www.piano123.co.kr

대표 강규찬 (조율사)  
H.P. 017-556-9410

피아노 판매, 조율, 수리, 대여, 수리 전문점

2층 그랜드피아노 전시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25번지 T.758-5450/5445



# Program

## 기타공연장 공 / 연 / 안 / 내

도라티/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듀오 콘체르탄테 등  
· 피아노/김미현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부산시민과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제 50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2월 26일 일요일 오후 3:00 >>> 글로벌아트홀



글로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관람료 자율(이웃돕기 성금)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 비트실용음악 연주회

2월 26일 일요일 오후 5:00 >>> 글로벌아트홀

재즈와 클래식을 현대감각에 맞게 접목한 무대.  
::관람료 무료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 2011 테너 박천수 독창회 '봄을 기다리며'

2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경성대학교와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수료하고 현재 창원시립합창단 단원, 다비드콰이어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인 테너 박천수 독창회. 2007 엄정행전국성악콩

쿠르 특별상을 수상한 박천수는 이번 무대에서 바로크 시대의 이태리 성악과 러시아 예술가곡, 한국가곡, 오페라 아리아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스칼라티/마음속에 느끼네  
칼다라/친구인 숲이여  
차이코프스키/오직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임금수/강 건너 봄이 오듯  
베르디/오페라 '운명의 힘' 중 '오, 천사의 품안에 있는 그대여' 등 수곡  
· 피아노/김아영  
· 우정출연/다비드콰이어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박천수(010-4845-9941)

## PLAY

### 2011 뮤지컬 코미디 '년센스2'

8월 19일(금)-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 AN아트홀 서면

자선쇼를 준비하는 못말리는 다섯 수녀들의 화끈한 춤과 노래, 코믹한 연기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뮤지컬 코미디 '년센스2'.  
::관람료 R석 45,000원 · S석 30,000원  
::문의 (주)WSM(1566-5490)

### 연극 '그남자 그여자'

10월 13일(목)-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3:00  
(화요일 공연없음) >>> 초콜릿 팩토리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남녀의 만남에서부터 사랑, 이별, 재회를 그린 감성연극 '그남자 그여자'.  
· 출연/허동원, 이도경, 박민우, 김아영, 김태범, 권태진, 김유란 외  
::관람료 균일 25,000원  
::문의 초콜릿팩토리(621-4005)

### 윤형빈쇼 with friend

11월 5일(토)-OPEN RUN 매주 토-일요일 오후 3:00, 5:00, 7:00 >>> 윤형빈 소극장



부산 최초의 개그전용관인 '윤형빈 소극장'에서 매주 주말 마련하는 개그쇼. 개그맨 '왕비호' 윤형빈과 '감수성 내시' 김영민이 밴드공연과 개그를 접목한 뮤지컬 개그 퍼포먼스를 펼친다.

::관람료 균일 30,000원  
::문의 윤형빈소극장(610-1003)

### 뮤지컬 '러브메이커'

1월 6일(금)-2월 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천사들이 남녀간의 진실한 사랑을 이어준다는 독특한 발상에서부터 개성넘치는 인물 캐릭터와 유쾌한 춤과 노래가 진한 감동을 전해주는 로맨틱 판타스틱 뮤지컬 '러브메이커'.  
::관람료 균일 3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 폭소 코메디연극 '바라 바라'

1월 13일(금)-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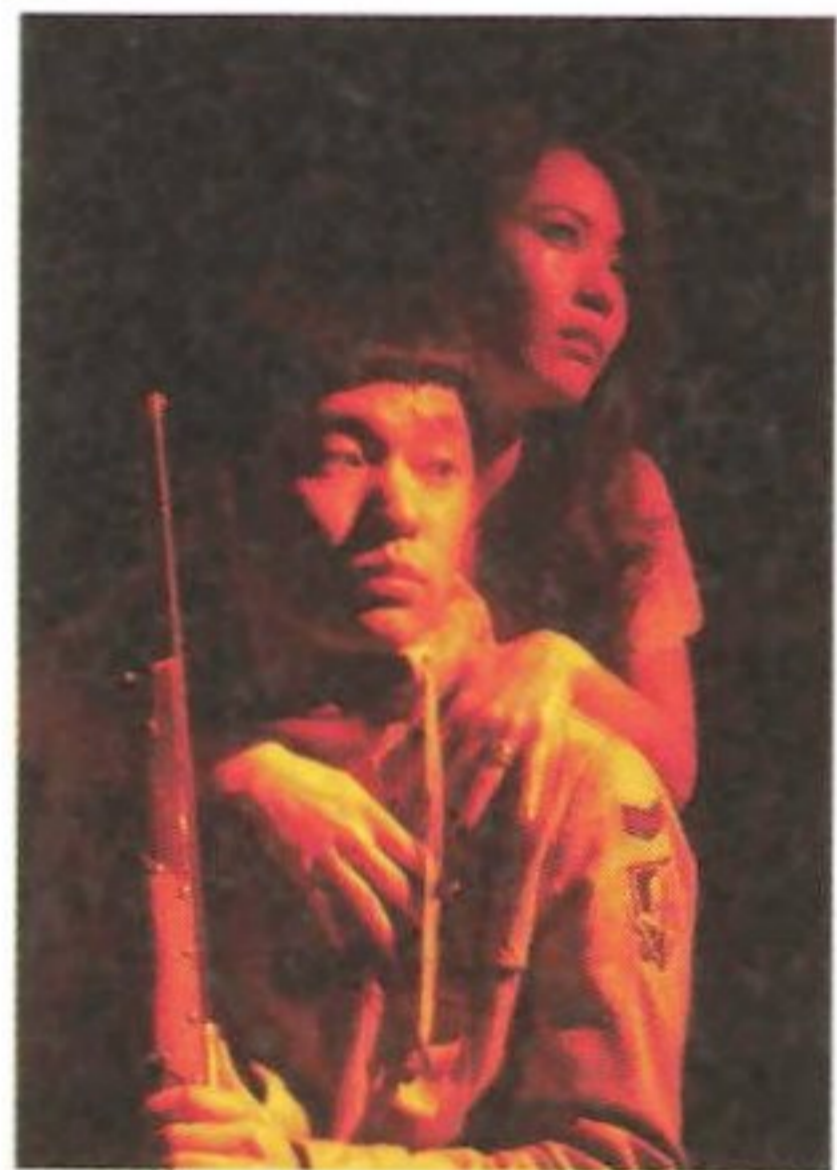


허동 9단으로 인기를 모은 개그맨 허동환의 폭소 코메디연극 '바라 바라'. 단순한 웃음을 넘어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는 소극장 코메디의 진수를 보여준다.



· 연출/허동환  
· 출연/허동환, 김현수, 김지환, 이지옥, 이남미, 이정진, 허진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관객과 풀어가는 연극 이야기!**  
**명작으로의 여행! '보이책'**  
1월 13일(금)-2월 5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2월 4일-5일 오후 7:30) >>> **공간소극장**



가족에 대한 의무감으로 자신을 스스로의 삶에서 소외시켰던 말단군인 보이책을 통해 현대사회라는 거대한 조직사회에서 갖게되는 자기상실감과 존재론적 고독, 불안의 정체를 들여다보는 문제주

의적 연극 '보이책'.

· 작/게오르크 뷔히너 · 연출/김만중  
· 출연/이재우, 김미승, 박유진, 박상규, 안성혜, 장현수, 박현민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철수와 영희를 위한 콘서트**  
1월 26일(목)-2월 4일(토), 2월 22일(수)-3월 31(토)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일-화요일 공연없음) >>> **소극장 실천무대**



청년실업 100만 시대 1020 철수와 영희에게 보내는 4050 철수와 영희의 응원가인 노래가 있는 연극 '철수와 영희를 위한 콘서트'.  
· 작, 연출/이성민 · 작곡/이종화  
· 연주지도/밴드 '키아라마'  
· 출연/유미희, 변현주, 이현식, 차동희, 황정두, 김아람, 김고은, Maria Carla  
:: **관람료** 일반 22,000원(예매시 20,000원)  
청소년 15,000원  
:: **문의** 소극장 실천무대(245-5919)

**극단 미지 씨어터 2012 본격 레퍼토리**  
**'살고싶다, 그림처럼, 시처럼'**  
**Whisky & Bitch**  
2월 2일(목)-1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 **가마골소극장**



이야기 중심이 아닌 배우들의 즉흥 연기술과 음악, 영상의 조화로운 구성을 통해 연극적 상상력을 돋보이게 하는 풍경극 '살고싶다, 그림처럼, 시처럼'. 죽음에 직면한 순간 떠오른 잊고 살았던 가슴 아프고 애트했던 첫사랑을 통해 1980년대 암울했던 시대 속에 그림처럼 살았던 사람들의 아름다운 시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 작, 연출/양지웅



YAMAHA · KAWAI · STEINWAY  
PIANO DRECT IMPORT  
TUNNING & REPAIRING  
PIANO TECHNICIAN  
**CHO, HYUN SEOK** R.P.T.  
INTERNATIONAL REGISTERED PIANO TECHNICIAN  
(국제자격 피아노조율사)  
NATIONAL FIRST LEVEL PIANO TECHNICIAN  
(국가자격 1급 조율사)  
THE DEPARTMENT OF MUSIC COLLEGE OF ARTS,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전속 조율사)  
STEINWAY PIANO 기술연수 수료  
Tel. 051-553-4277  
051-753-8963  
H.P. 010-9003-8963

· 출연/김윤호, 최태익, 이유경, 정원혁, 하치성, 윤소희, 강동석, 김응모, 윤현덕, 김인하 외  
:: **관람료** 일반 25,000원 · 대학생 20,000원  
초중고 15,000원  
:: **문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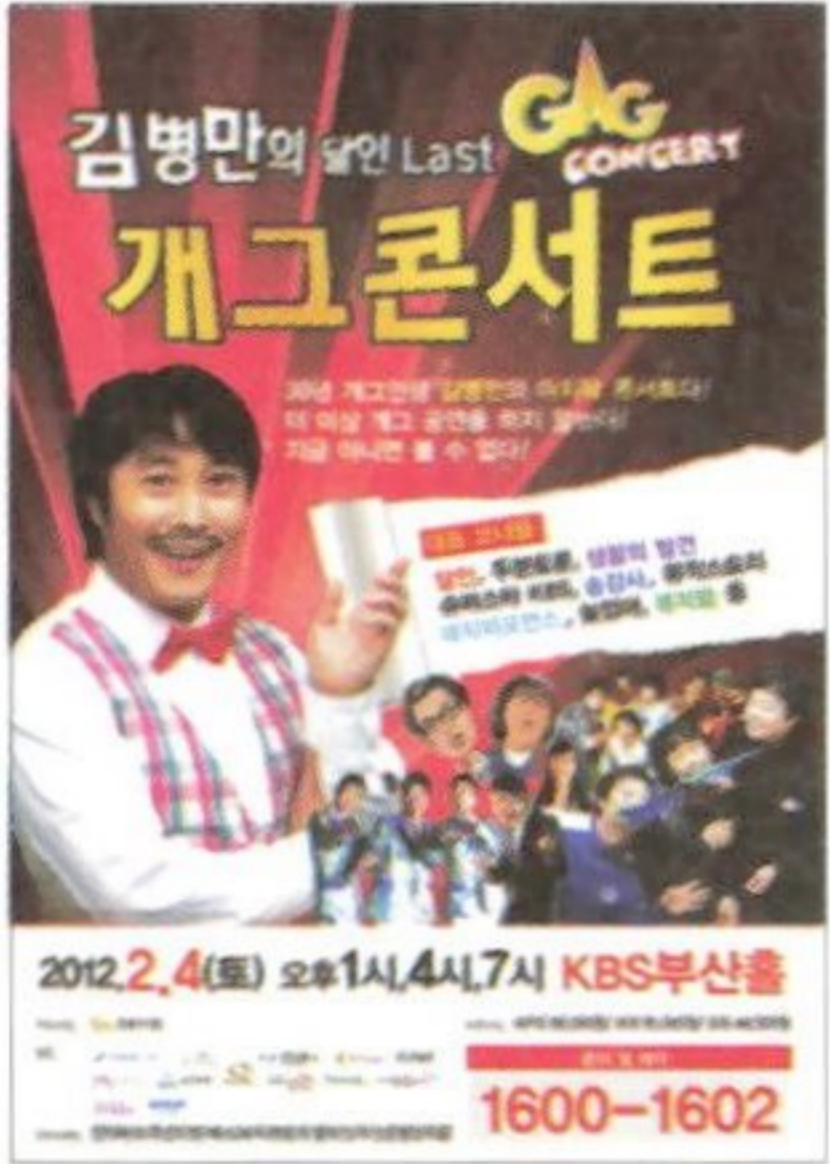
**2012 어린이 베스트셀러 뮤지컬**  
**'책먹는 여우'**  
2월 4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5일 일요일 오후 1:00, 3:00 >>> **시민회관 대극장**



독일의 아동문학가 프란치스카 비어만의 동명의 원작을 각색한 작품으로, 책을 너무 좋아해 읽고 난 책을 먹어 치우는 여우의 이야기를 담은 가족뮤지컬. 아이들이 좋아하는 생동감 있는 시각 디자인과 연출로 환상적인 상상의 세계로 초대한다.  
:: **관람료** R석 25,000원 · S석 20,000원  
:: **문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김병만의 달인 Last 개그콘서트**  
2월 4일 토요일 오후 1:00, 4:00, 7:00 >>> **KBS부산홀**





4년만에 증명한 개그콘서트의 최장수 간판코너인 '달인'의 주인공 김병만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개그맨들이 선사하는 웃음의 향연 '김병만의 달인 Last 개그콘서트'.

· 출연/김병만, 류담, 노우진, 김재욱, 이상호, 이상민, 송준근, 이동윤, 신보라, 박영진, 김영희, 송영길, 신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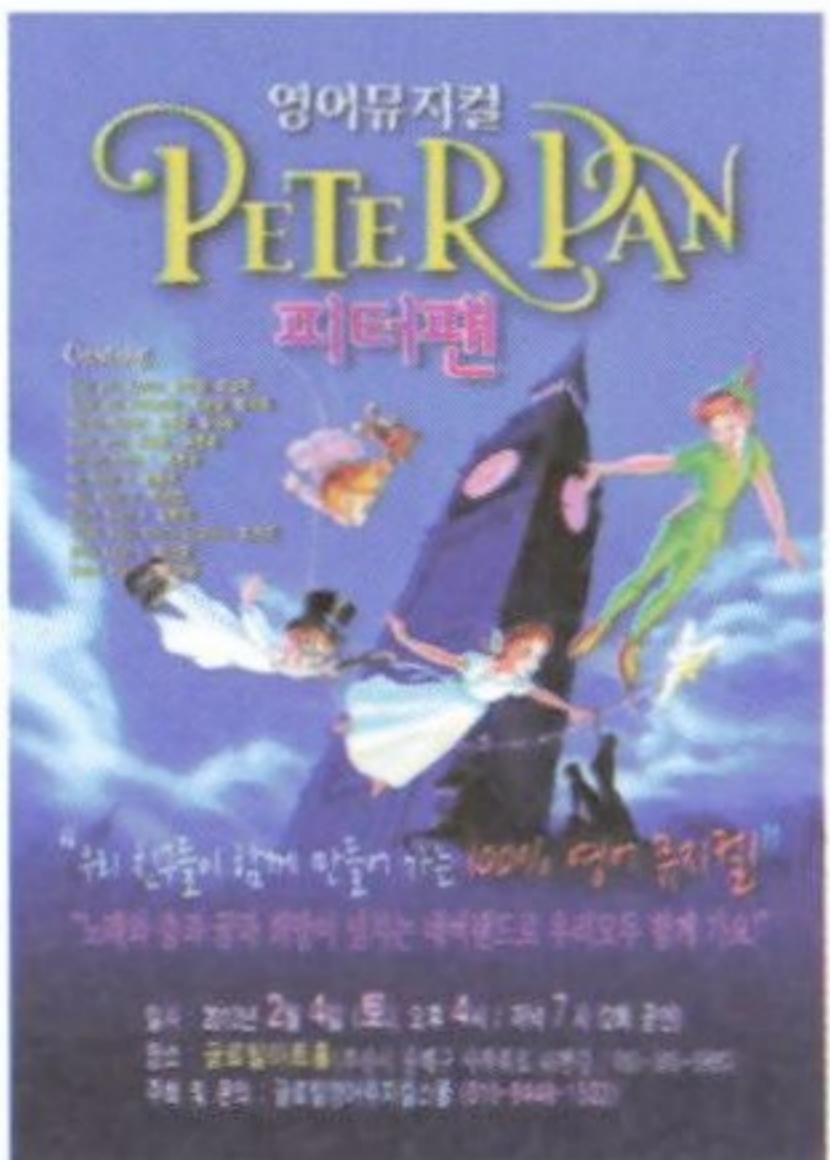
::관람료 VIP석 66,000원 · R석 55,000원

S석 44,000원

::문의 SM기획(1600-1602)

### 영어뮤지컬 '피터팬'

2월 4일 토요일 오후 4:00, 7:00 >>> 글로벌아트홀



지난해 5월 창단한 글로벌뮤지컬의 창단무대 영어뮤지컬 '피터팬'. 노래와 춤, 연기, 원어민 영어를 익혀온 단원들이 꿈과 희망이 넘치는 네버랜드로 신나는 모험여행을 떠난다.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글로벌영어뮤지컬스쿨(010-8448-1522)

### 환영의 봄-Episode 2 봄은 아직...

2월 9일(목)-29일(일) 오후 8:00  
(월요일 공연없음) >>> 공간소극장



각각의 섬에 갇힌 채 정체를 알 수 없는 '봄'이라는 존재를 기다리는 두 주인공 '김'과 '이'의 선문답과도 같은 대화를 그린 창작극.

· 작, 연출, 안무/조재호  
· 출연/김수철, 이호혁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예매시 5,000원 할인)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 연극 '옥탑방 고양이'

2월 10일(금)-3월 1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3/1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청춘남녀가 옥탑방을 두고 동거를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과 로맨스를 그린 작품으로, 청춘의 아픔과 상처, 꿈에 대한 도전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연극 '옥탑방 고양이'.

· 원작/김유리

· 작/박은혜 · 연출/문아영

· 출연/장지우, 윤정빈, 황선화, 김지현, 박상현, 류지훈, 유지혜, 김민정

::관람료 균일 3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 연극 '놈, 놈, 놈...그리고 女'

2월 10일(금)-3월 1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4:00  
(수요일 공연없음) >>> 미리내소극장



당첨된 로또복권 쟁탈을 위한 탐욕과 욕망, 그 속에 펼쳐지는 현대인의 웃지 못할 슬픈 자화상을 그린 연극 '놈, 놈, 놈...그리고 女'.

탄탄한 스토리와 재치있는 대사, 스피디한 전개로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 연출/호민

· 출연/구민주, 강철웅, 박규남, 한성륜

::관람료 균일 25,000원

::문의 극단 아센(504-2544)

### 어린이 드로잉쇼

2월 11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12일  
일요일 오후 1:00, 3: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미술과 무대의 환상적인 만남 어린이 드로잉쇼. 눈 앞에서 펼쳐지는 환상의 라이브 드로잉을 통해 마술같은 미술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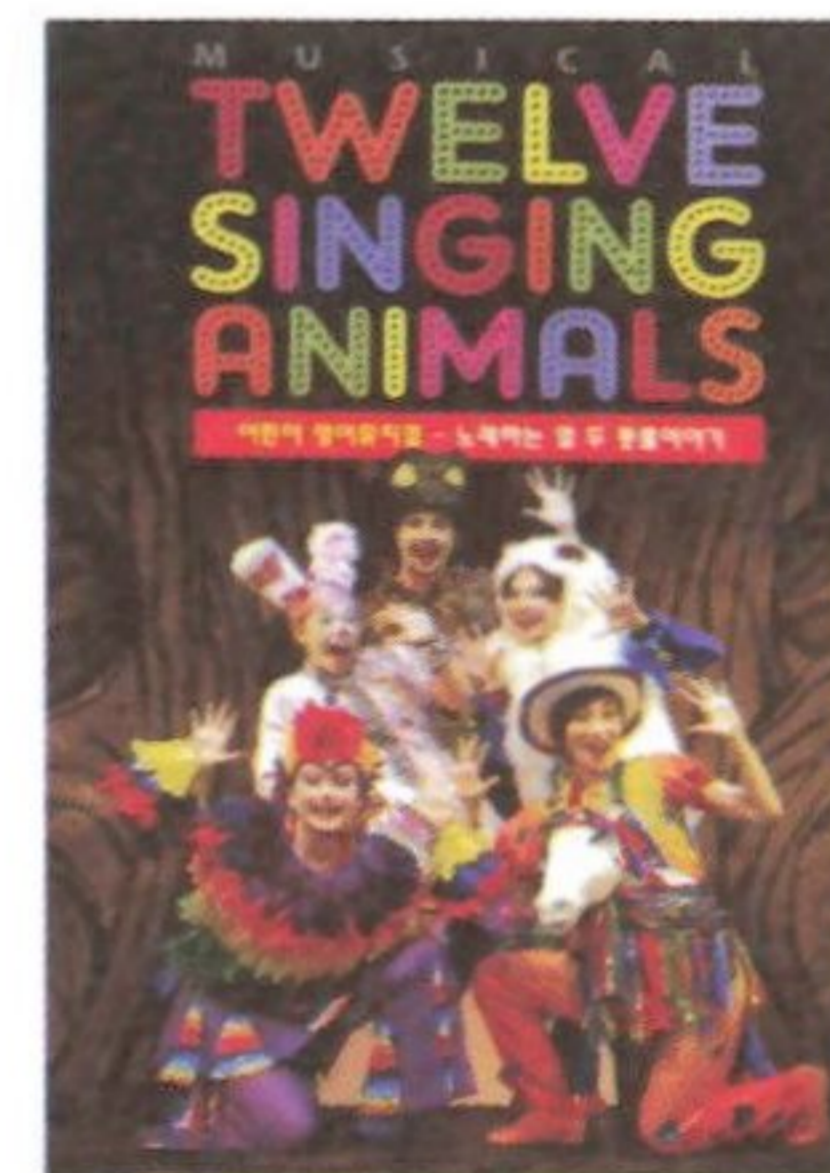
::관람료 1층 25,000원 · 2층 20,000원

::문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 어린이 영어뮤지컬 노래하는 열 두 동물 이야기

2월 11일-12일 토-일요일 오전 11:00

>>> MBC롯데아트홀



배우들과 함께 춤추고 즐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어린이 영어뮤지컬 '노래하는 열 두 동물 이야기'.

세상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쟁이 용과 모든 걸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동물들

의 이야기가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펼쳐진다.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문의 MBC롯데아트홀(1688-8998)

### 낭만뮤지컬

#### '로미오를 사랑한 줄리엣의 하녀'

2월 15일(수)-3월 1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 가마골소극장





21세기 뉴욕을 배경으로, 로미오를 사랑한 캐플릿가의 입양아 '주리'와 주리를 '줄리엣'으로 알고 사랑한 '로미오', 줄리엣을 사랑하는 모슬렘의 아들 '하킴', 신분과 지위 모든 것을 버리고 하킴을

사랑한 '줄리엣' 등 네 남녀의 엇갈린 사랑이 작가 특유의 감각적 언어로 새롭게 살아난 소극장 뮤지컬 '로미오를 사랑한 줄리엣의 하녀'.

· 작/박현철 · 연출/이윤주  
· 음악/강중환  
· 출연/박정무, 배보람, 김해선, 조영근, 이창섭, 경제미, 김도훈, 박병성, 조석준, 이민안 외  
::관람료 일반 25,000원 · 대학생 20,000원  
초중고 15,000원  
::문 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 감성 타악 뮤지컬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5:00  
» 시민회관 대극장

정의의 용사 번개맨과 그의 친구들이 펼치는 흥겨운 타악 퍼포먼스극.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스토리와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어린이들의 감성을 키워준다.

· 연출/황바울  
::관람료 R석 44,000원 · S석 33,000원  
::문 의 (주)아이컴엔터테인먼트(1599-0129)

### 마스크플레이 뮤지컬 '피터팬'

2월 23일-24일 목-금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25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5:00, 26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 MBC롯데아트홀

즐거움과 신비함이 가득한 네버랜드에서 펼쳐지는 꿈과 모험의 세계 가족뮤지컬 '피터팬'.

배우의 움직임에 따라 표정이 달라지는 섬세한 마스크 연기와 영화보다 실감나는 환상적인 무대가 극의 재미

를 더해준다.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문 의 MBC롯데아트홀(1688-8998)

### 창작연극 '이뻐고'

2월 24일 금요일 오후 3:00, 25일-26일 토-일요일  
오후 3:00, 7: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불공평한 운명과 삶의 허무 속에서 현실을 부정하다 결국 수행승이 된 주인공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의미는 무엇이며 삶과 죽음에 대한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를 묻는 창작극 '이뻐고'.

· 작, 연출/정광진  
· 출연/강태기, 박경득, 박경근, 차순배, 임홍식, 조주경, 배성은, 나재균, 이정주, 김재권  
::관람료 1층 30,000원 · 2층 20,000원  
::문 의 J&C 코리아뮤지컬컴퍼니(016-9558-7001)

### 양희은, 양희경의 뮤지컬 '어디만큼 왔니'

2월 25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6일  
일요일 오후 2:00 » 시민회관 대극장

가수 양희은과 연기자 양희경 자매가 노래하는 스토리가 있는 무대 '어디만큼 왔니'.



어린시절부터 성장기를 거쳐 힘든 투병기를 이겨내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녀들의 삶을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관람료 VIP 99,000원 · R석 88,000원  
S석 66,000원 · A석 55,000원  
::문 의 (주)WSM(1566-5490)

### 리틀 캣

2월 25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26일  
일요일 오후 1:00, 3:00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실제 고양이와 같은 배우들의 연기와 춤, 신나는 음악과 난타, 마술, 버블쇼, 비보이 등 다양한 볼거리로 재미를 더해주는 가족뮤지컬 '리틀 캣'.

::관람료 R석 25,000원 · S석 20,000원  
::문 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 CONCERT

### Jazz 와인에 빠지다 34번째 콘서트 컨템포러리 재즈밴드 소울로지

2월 10일 금요일 오후 8:00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http://www.glovil.org / mail:glovil@paran.com

부산대학교 문화콘텐츠개발원과  
글로벌아트홀이 공동 주최하는

### 제13회 글로벌전국 음악콩쿨

2012. 3. 31 (토)

- 부 문 : 피아노 작곡 성악 중형 현악 관악 국악 실내악
- 대 상 : 유·초·중·고·대 (일반전공 일반비전공)
- 접 수 : 2012년 3월 24일 24시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
- 접수처 : www.contest.co.kr (콘테스트) 또는 www.glovil.org
- 과제곡 : 자유곡 1곡  
※자세한 사항 및 작곡은 홈페이지 참조
- 시 상 : 부산광역시장상, 부산광역시교육감상, 부산대총장상,  
부산대문화콘텐츠개발원장상, 글로벌아트홀관장상  
각 부문별 각학년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부문별 최우수상 전체대상  
학원상 : 단체상 교육공로상 최우수학원상

국제수준 어쿠스틱 연주홀 녹음홀 **글로벌아트홀**

글로벌아트홀(3호선 미남역 1번출구 국민은행과 파리바게뜨 사이길로 4분 도보)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글로벌아트홀(온천3동 1243-21)  
☎ 051-505-5995 Fax. 051-505-5935 약도 : 홈페이지 참조



트럼펫 김성민을 주축으로 키보드 정진욱, 색소폰 김수환, 드럼 정원식, 베이스 김도용, 기타 손성목으로 결성된 컨템포러리 재즈밴드 '소울로지'의 무대.

::관람료 R석 35,000원 · S석 25,000원  
::문 의 문화기획단 무대공감(623-0678)

### 2012 아메바후드(Amoebahood) 콘서트 2월 11일 토요일 오후 7:00 >>> KBS 부산홀

재미있고 친근한 힙합을 노래하는 뮤지션 다이나믹 듀오와 Somon D, 프라이머리, 리듬파워 등 힙합그룹들이 펼치는 흥겨운 무대.

::관람료 R석 88,000원 · S석 77,000원  
A석 66,000원  
::문 의 (주)WSM(1566-5490)

## EVENT

### 제 110회 시울림 시낭송회 2월 1일 수요일 오후 7:00 >>>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초대시인/김순자, 천종숙, 이두예, 송진, 손순미, 안효희  
· 초대음악인/곽은진(판소리)  
::관람료 무료  
::문 의 김예강(010-5516-1867)

## GALLERY

### 쉬잇, 귀 기울여봐! 2011년 9월 24일(토)-2012년 2월 26일(일) >>>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소리를 구성요소로 하는 현대미술 작품을 통해 소리를 매개로 미술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전시.  
· 출품작가/정만영, 심준섭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展 2011년 12월 10일(토)-2012년 2월 12일(일) >>> 부산시립미술관 2층 전시실



김해진 작 '풍경'

부산, 경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을 선정, 집중조명하는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展. 작가 자신이 바라본 현장, 즉 체감한 현실을 담보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평주, 김해진, 박윤희의 작품을 선보인다.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 하정웅 기증작품 '신장식과 손아유의 회화'展 2011년 12월 10일(토)-2012년 2월 12일(일) >>> 부산시립미술관 2층 기증작품실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 2011 부산박물관 국제교류전 흙을 빚어 옥을 만드다, 용천청자(龍泉靑瓷) 2011년 12월 10일(토)-2012년 2월 5일(일) >>>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문 의 부산박물관(610-7111)

### 안녕 없는 생활들, 모험들 2011년 12월 17일(토)-2012년 2월 12일(일) >>> 부산시립미술관 2층 전시실

개개인의 일상에 침투한 자본의 논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를 영상, 출판, 퍼포먼스, 방송, 투어, 다큐멘터리, 리서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

하는 기획전.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 트릭아트 시즌2 부산특별전 2011년 12월 17일(토)-2012년 2월 26일(일) >>>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제3전시관

평면의 그림이 마술 같이 살아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는 트릭아트 시즌 2.  
::관람료 균일 12,000원  
::문 의 지오엔터테인먼트(741-7115)

### 자료와 그림으로 보는 부산의 근·현대 풍경 2011년 12월 24일(화)-2012년 2월 19일(일) >>> 부산시립미술관 3층 전시실



최민식 작 '울속도'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0-2602)

### 부산의 작고작가전-우신출, 김윤민 2011년 12월 24일(화)-2012년 2월 19일(일) >>> 부산시립미술관 3층 소전시실



김윤민 작 '천정집가는 길'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0-2602)



**정인성 탄생 100주년 기념전  
정인성, 지각과 감수성**

2011년 12월 29일(목)-2012년 3월 18일(일)

>>> 고은사진미술관 신관

부산사진 1세대로 임응식과 함께 '생활주의 리얼리즘' 사진운동을 주도한 사진작가 정인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획전.

::문 의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해운대문화회관 기획전  
인상파와 놀자**

1월 5일(목)-2월 26일(일)

>>> 해운대문화회관 1, 2전시실



모네에서부터 르누아르, 드가, 피사로, 세잔, 고갱, 고흐까지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아트포스터나 벽화가 아닌 라이선스와 회복제방법 특허기술 등으로 제작한 작품들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

'인상파와 놀자'

::관람료 균일 8,000원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Shift'展**

1월 13일(금)-2월 26일(일) >>> 조현화랑 부산

역량있고 참신한 8명의 한국 현대작가들의 작품들로 마련되는 2012년 조현화랑 첫 기획전.

· 참여작가/강석호, 김수영, 노충현, 안두진, 유정현, 이광호, 이소연, 조종성

· 관람시간/오전 11:00~오후 7:00(월요일은 예약방문)

::문 의 조현화랑 부산(747-8853)

**2012년 임진년(壬辰年) 맞이 띠 전시 '용(龍)'**

1월 17일(화)-2월 26일(일) >>> 부산박물관 기증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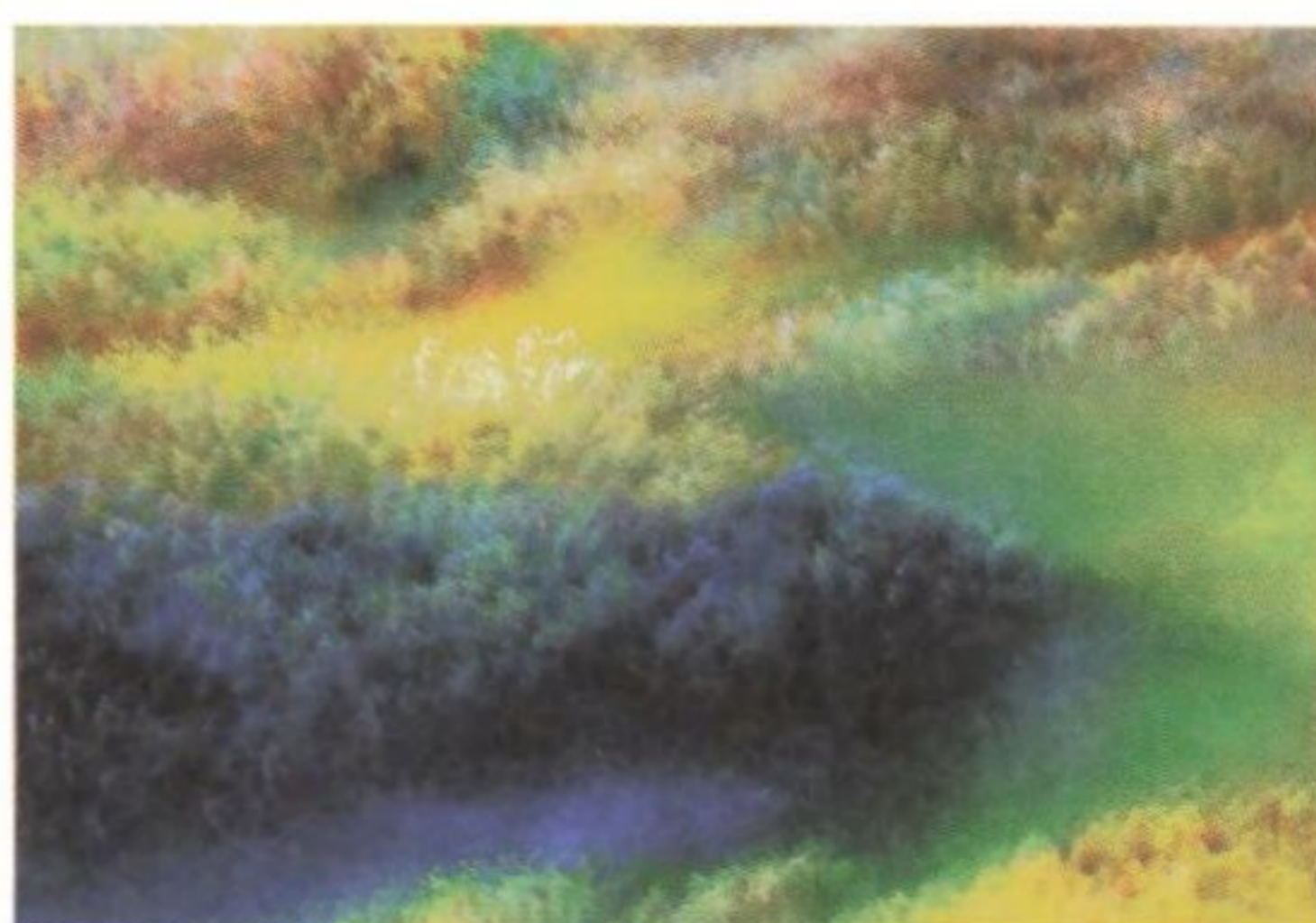
2012년 임진년(壬辰年) 용띠 해를 맞아 운룡도(雲龍圖)를 비롯해 부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15점을 통해 용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는 특별기획전.

· 관람시간/오전 9:00~오후 8:00

::문 의 부산박물관(610-711)

**'비밀의 숲'展**

1월 27일(금)~2월 9일(목)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염진옥 작

'숲'을 주제로 배수봉, 염진옥, 조영재 등 3명의 작가들이 저마다의 감성과 개성으로 풀어낸 기획전 '비밀의 숲'.

::문 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아트카페 움 '회색 정글'展**

2월 1일(수)-2월 29일(수) >>> 아트카페 움



박숙민 작 '부딪히다'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도시의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는 8명의 젊은 작가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도시 이야기.

· 참여작가/김기범, 김병권, 김해진, 박숙민, 박진성, 박향원, 신대준, 정문식

::문 의 아트카페 움(557-3369)

**롯데갤러리 광복점 특별전  
'최영욱\_달을 품다'展**

2월 3일(금)-2월 29일(수) >>> 롯데갤러리 광복점



빌 게이츠가 반한 '달항아리' 작가 최영욱 초대전.

작가 최영욱은 도자기 유약에 생기는 가느다란 균열인 빙열을 독창적인 장식처럼 사용

한 고대 도공과 같이 달항아리의 빙열 속에서 삶과 인연, 기억의 실타래를 풀어낸다.

::문 의 롯데갤러리 광복점(678-2611~2)

**'인도네시아 발리작가'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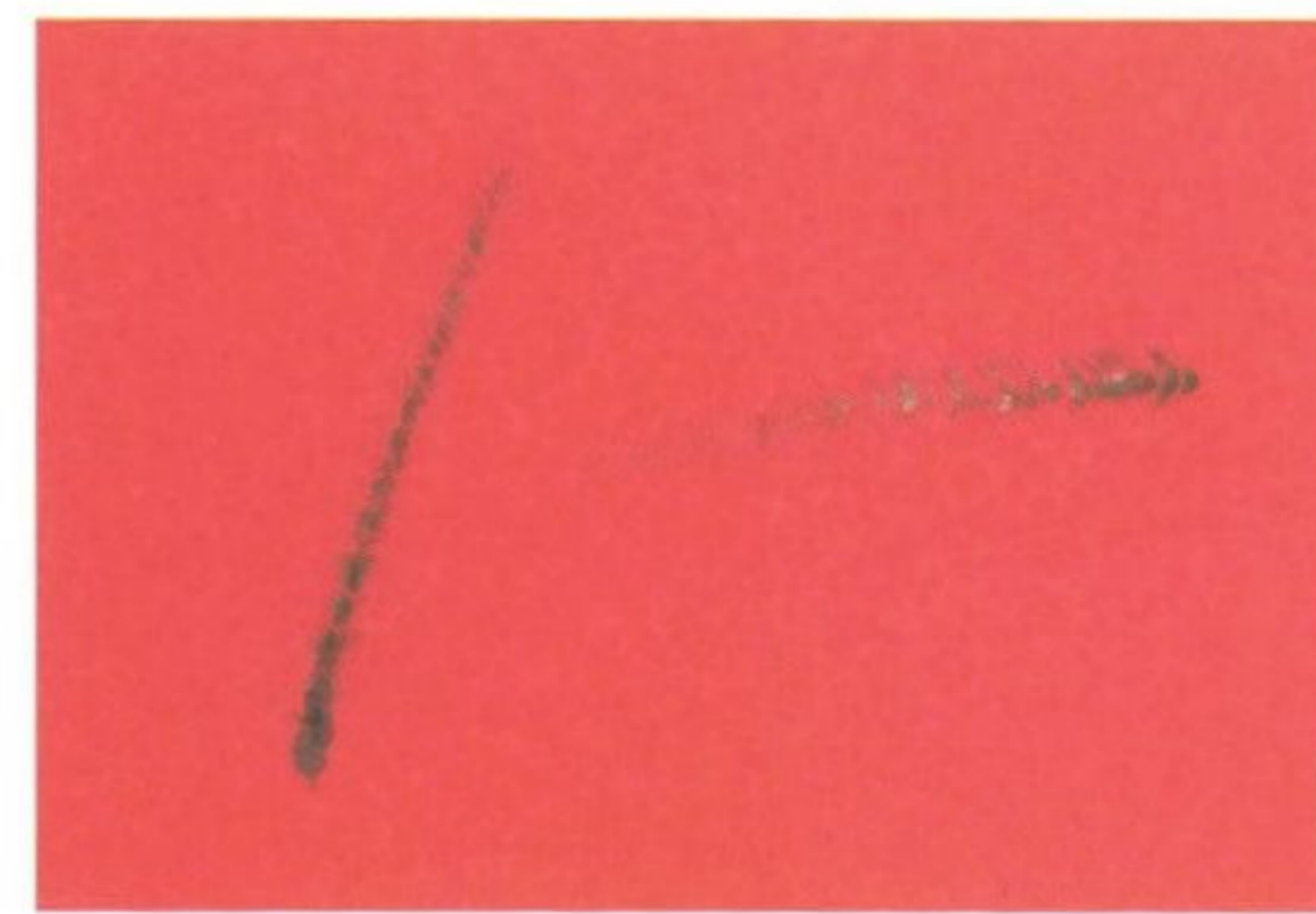
2월 10일(금)~2월 29일(수)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6인 작가의 작품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인도네시아 발리작가'展.

::문 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제 6회 윤영준 개인전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다.**

2월 22일(수)-3월 2일(금) >>> BS부산은행 갤러리



자아의식을 주제로 갈배(캔버스천)를 찢어내는 행위를 통해 관람자에게 작가 자신의 의식세계를 전달하는 중견작가 윤영준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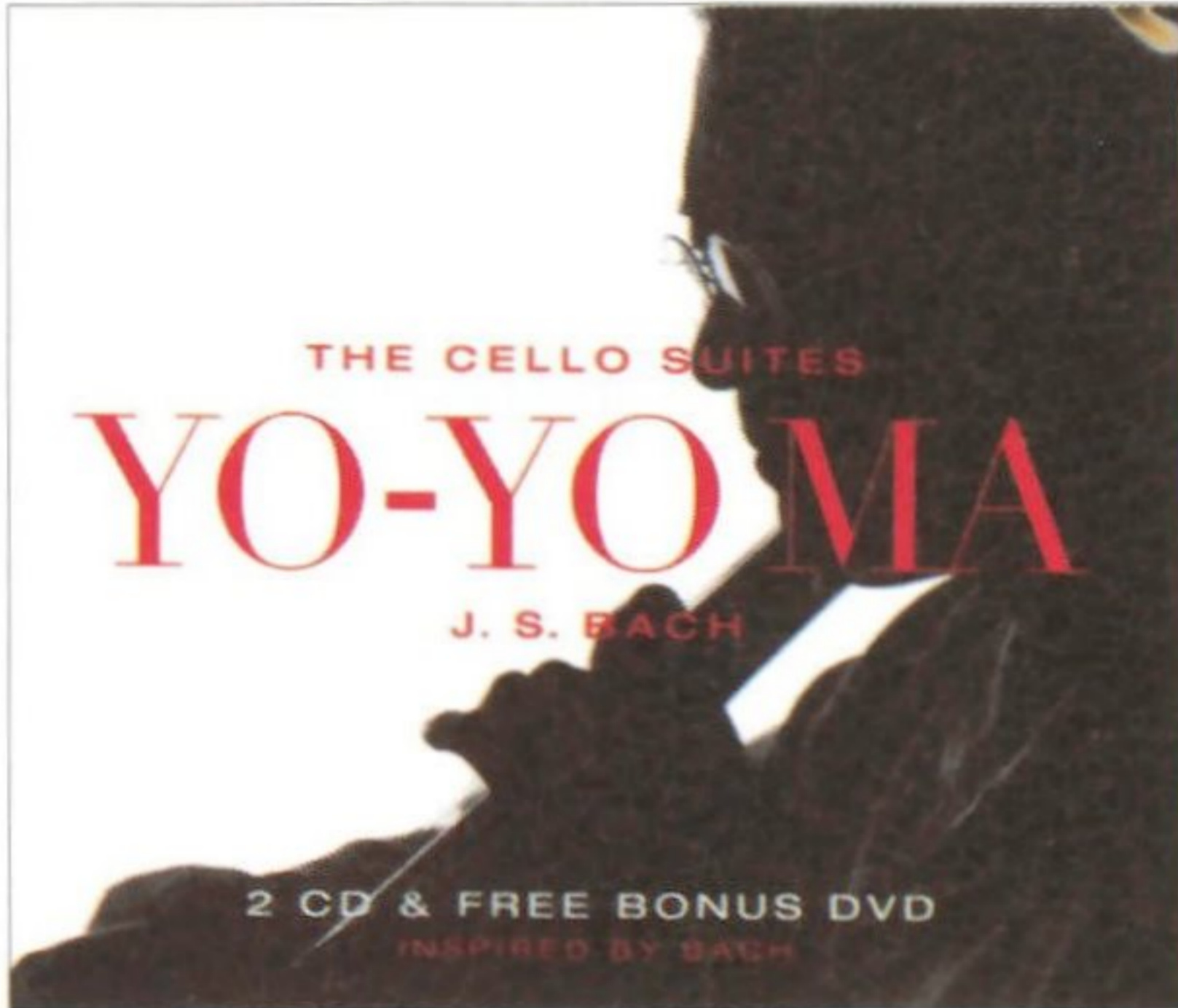
::문 의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위로해준 음반

# The cello suites Yo-Yo Ma

박성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은 대부분은 미술작품이나 화가를 동경하고 반대로, 화가는 대부분 음악가나 무용수를 동경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잘 하지 못하거나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야 말로 인간의 수많은 감정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동경을 넘어서서 전공자 이상의 수준까지 여러 장르를 다 섭렵하는 예술가도 더러 있긴 하지만... 저는 그 순수한 상태를 영원히 가슴 한켠에 지니고 사는 것도 멋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통음악 관소리를 전공하는 저의 동경은 다름 아닌 '첼로'라는 악기입니다. 첼로가 나의 동경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을 다 품은 듯 악기를 품안에 품고 연주하는 자세 때문입

니다. 인간의 희노애락, 자연의 소리, 때로는 우주의 모든 영혼까지도 소리로 표현해내는 악기를 품안에 품은 채 마주보기도 하고, 어루만져 가며 소리를 만들어 내니 그 얼마나 매력적인 모습입니까?

나의 동경 첼로의 또 다른 매력은, 온몸의 전율이 오듯 전해오는 저음, 그 낮은 소리입니다. 저는 첼로 독주곡을 듣고 있다면 심금을 울리는 그 많은 아름다운 선율이 진행되다가도 저음부분에서는 온 몸에 전율이 느껴지죠.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음의 종결자, 선율의 종결자는 바로 '저음'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저의 목소리는 여느 관소리꾼에 비해 맑은 음색을 지녔고, 저음보다는 고음이 더 돋보이는 목을 지녀서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동경이 저음이 매력적인 첼로가 된 이유겠지요.

부끄럽게도 폭넓은 음악 공부를 하지 못하여 저의 음반 보관함에는 서양음악과 관련된 음악은 몇 장 되진 않지만, 이런 저의 첼로사랑(?)으로 인해 첼리스트 '요요마'가 연주한 바흐의 '무반주 첼로모음곡'은 나의 애청음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더 멀겠지만, 걸어온 소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은 2년 전에 있었던 대통령상 수상이었습니다. 수상의 영광을 안은 것 자체도 평생 잊지 못할 일이지만, 저에게는 대회를 앞두고 경험한 치열한 제 자신과의 싸움의 나날들이 뺏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회에 도전해 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과정부터, 어떤 대목으로 출전할 것인지, 경쟁상대는 누가 될지, 철저한 목 관리, 컨디션 관리를 위한 계획, 심지어 출전 할 때 입을 의상 색깔까지 서너 개 월 동안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 과정은 스트레스 그 자체 였습니다. 결국 대회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는 사실을 되돌려 놓고 보면, 제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잘 이겨냈다는 얘기겠지요?

이 서너 개 월 동안의 치열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해준 일등 공신은 바로 이 음반이었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저의 심신은 요요마의 첼로곡으로 어김없이 위로 받았습니다. 반주 없이 첼로 소리만 원초적인 모습으로 남아 세상을 향해 울어대는 모습은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내 모습과 똑같았고, 그 별거벗은 줄을 숨결로 어루만지다가도 거칠게 활로 긁어대기도 하는 요요마의 연주하는 모습이 떠오를 때면, 관객의 취향, 공연의 성격에 맞추어서 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식을 벗어버린 별거벗은 나의 본연의 소리를 어루만지기도 하고 거칠게 질러대기도 하기를 수백 번 씩 반복하는 나 자신의 모습과 너무도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의 좋은 친구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부산시립교향악단 2012 신년음악회**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2012년 신년음악회. 지난 연말 일찌감치 매진되면서 관람할 수 없었던 송년음악회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서둘러 좌석을 예매했다. 올해 신년음악회 프로그램은 발레음악 모음곡. 차이코프스키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아당 '지젤', 스트라빈스키 '불새' 등 음악으로 발레를 만날 수 있는 색다른 무대였다. 또 한가지, 앙코르 무대에서 들려준 지휘자 리 신차오의 플루트 연주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번 음악회의 깜짝선물이었다. -이규진(부산진구 초량2동)

**부산시립무용단 2012년 우리춤 산책**

공연이 많이 없는 시기인 이즈음, 우리춤 산책을 생각하곤 공연장을 찾았다. 다채로운 전통춤과 화려한 의상, 소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무용수들의 미세한 손놀림과 표정이 한 작품이 끝날 때마다 다음 작품을 기대하게 한다. 마지막을 장식한 소고놀이 흥이 나서 절로 어깨가 들썩거린다. 개개인의 노력이 엮보인 멋진 무대였다. -양윤주(북구 만덕동)

**연극 '보이책'**

보이책이란 작품이 아주 오래된 고전인 것도 알고, 실제로 대본을 읽어본 적도 있었지만 연극으로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절제된 무대장식... 그와 대조되는, 젊은 배우들의 열정적인 연기가 인상깊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오로지 아내 마리만을 바라보고 살던 남자, 보이책이 그 아내마저 빼앗기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처절한 모습이 생생하게 와닿아 좋았습니다. -정은진(연제구 거제동)

**코미디극 '바라 바라'**

얼마나 웃겨줄까 기대하고 찾았던 연극, 허둥9단으로 유명한 허동환 씨는 물론이고 출연진 한 명 한 명까지 애드립인지 연기인지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개그에 웃느라 정신없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보내고 싶다면 강추. -장서준(사하구 괴정동)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

'자살'이라는 소재를 다루는 연극이라 심각할 줄 알았는데 연극 보는 내내 재미있었습니다. 진짜 블랙코미디극이랄까, 이름 그대로 웃음으로 관객을 죽여주는 연극이었습니다. -권유진(금정구 서2동)

**나랏소랑?**  
그 옛날 나랏님께서 드시던 우리 나랏소 한우를 뜻합니다.

**나랏소**  
최고급 한우만을 고집합니다  
한우 숯불구이 곱탕 전문점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시신 분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모집(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 2011년 유로파콘체르트

스페인의 열정을 가득 담은 2011년 유로파콘체르트 실황

▶연주/사이먼 래틀(지휘), 카니 자레스(기타), 베를린 필하모닉

매년 5월 1일마다 유럽 각 도시의 명소들을 순회하면서 펼쳐지는 유로파 콘체르트(Europa konzert)는 한 여름밤의 야외음악회인 발트뷔네 콘체르트와 더불어 베를린 필을 대표하는 양대 음악이벤트로 많은 음악애호가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다. 본 영상물에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가 자랑하는 웅장한 오페라하우스인 테아트로 레알에서 펼쳐졌었던 2011년의 유로파 콘체르트 실황이 수록되었다. 이번 연주회의 테마 역시 스페인이다. 남국 특유의 열정과 활력을 그려낸 샤브리예의 '에스파냐'가 연주회의 시작을 알리며, 로드리고의 대표 걸작인 기타와 관현악을 위한 '아랑페즈협주곡'에서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플라멩고 기타리스트인 카니 자레스가 독주를 맡았다. 호쾌한 박력과 아름다운 선율이 공존하는 작품인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이 대미를 장식한다. 이 교향곡은 3악장의 매력적인 선율이 주제가 에릭 칼멘의 히트곡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에 차용됨으로써 우리에게 더 한층 친숙해진 작품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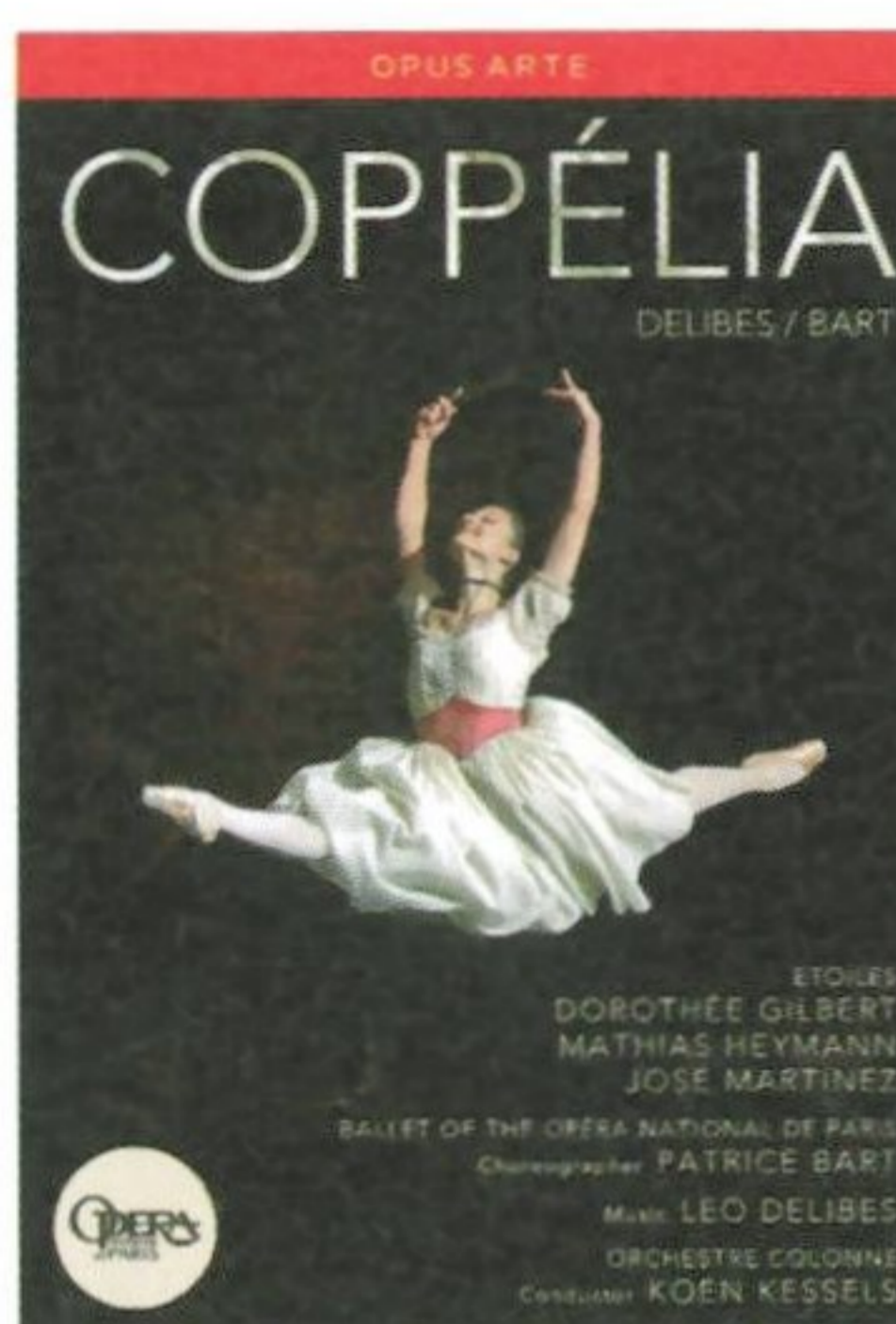


## 피아노 매니아

2010년 제천국제음악제 화제의 상영작으로 사랑과 완벽함, 음악에 대한 일말의 광기를 담은 영화

〈피아노 매니아〉는 소리의 신비한 세계를 향한 재기 넘치는 여행을 선사한다. 세계적 피아노제작사 스타인웨이 앤 선즈의 수석 테크니션인 슈테판 크누퍼가 랑랑, 알프레드 브렌델, 루돌프 부흐빈더 등 세계적 피아니스트들과 함께 하는 독특한 작업과정을 엿볼 수 있다. 거장의 기호에 부합하는 적절한 품질을 지닌 좋은 악기를 찾기 위해, 또한 완벽한 조율을 위해,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대에 악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강철 같은 체력, 무한한 열정, 그리고 말을 소리로 번역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

음악과 영화를 결합시킨 아시아 지역 최대 국제음악영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제천영화제는 자연 속에서 영화와 음악, 관객이 하나 되는 휴양영화제로 자리를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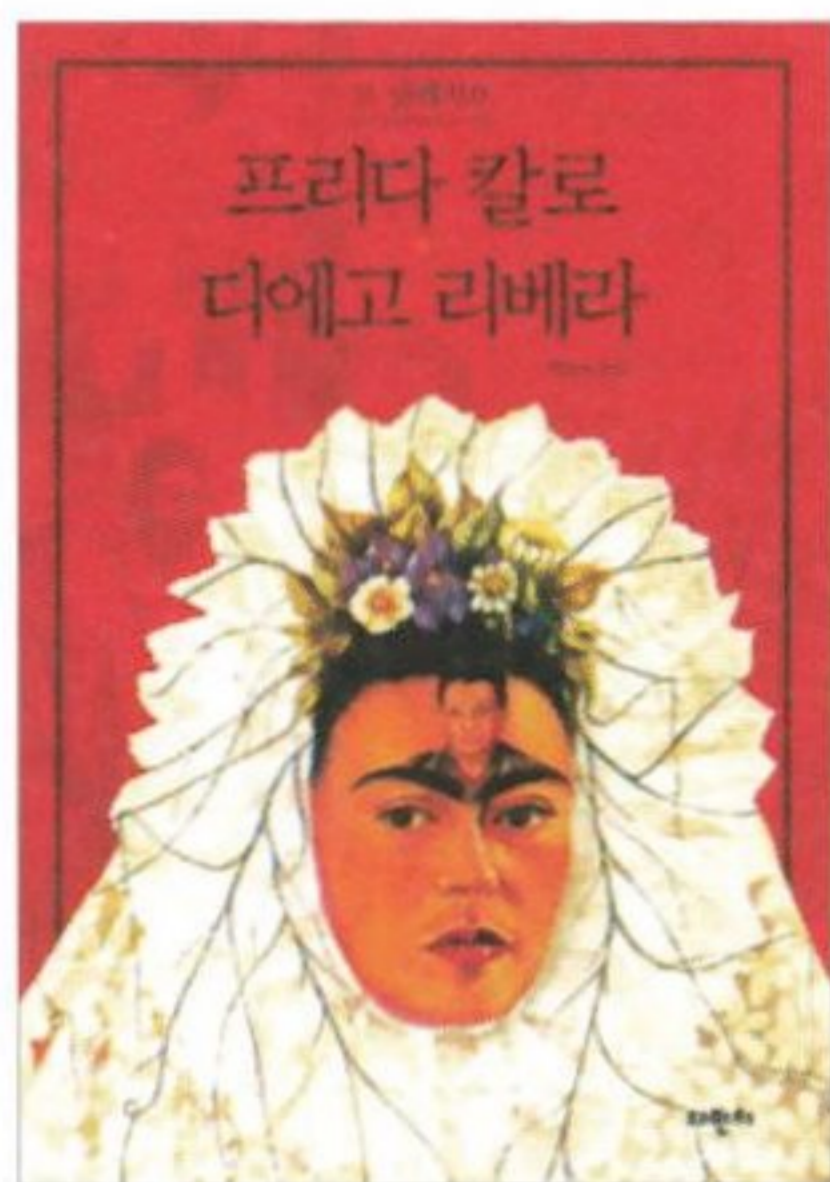
## 코펠리아

새로운 내용으로 재해석된 19세기 로맨틱 발레의 대명사

▶출연/파트리스 바르(안무), 파리 국립오페라 발레단(도로테 질베르-스와닐다, 마티아스 헤이만-프란츠, 호세 마르티네스-코펠리우스 외)

E.T.A 호프만의 이야기에 들리브가 음악을 붙인 '코펠리아'는 로맨틱 발레의 대명사와도 같은 작품이다. 파리 국립오페라 발레단이 2011년 3월 팔레 가르니에에서 올렸던 최신 공연실황을 담은 것으로, 파트리스 바르의 1996년 프로덕션을 리바이벌한 것이다. 바르는 다른 각도에서 이 작품을 재해석하였다. 코펠리우스 박사의 자동인형 코펠리아와 시골청년 프란츠, 그리고 프란츠의 약혼녀의 스왈니다 사이의 삼각관계가 그동안 이 발레의 주된 내용이었지만, 이 무대에서는 코펠리우스가 괴팍한 노인의 모습 대신 일찍 떠나보낸 아내를 그리워하는 미중년으로 캐릭터를 바꾸면서 코펠리우스가 삼각관계의 한 축을 담당한다. 기존의 미치광이 발명가의 이미지를 대신하는 스팔란차니(박사의 조수 또는 박사의 다중인격)라는 캐릭터가 추가로 등장하는 것도 이 프로덕션의 큰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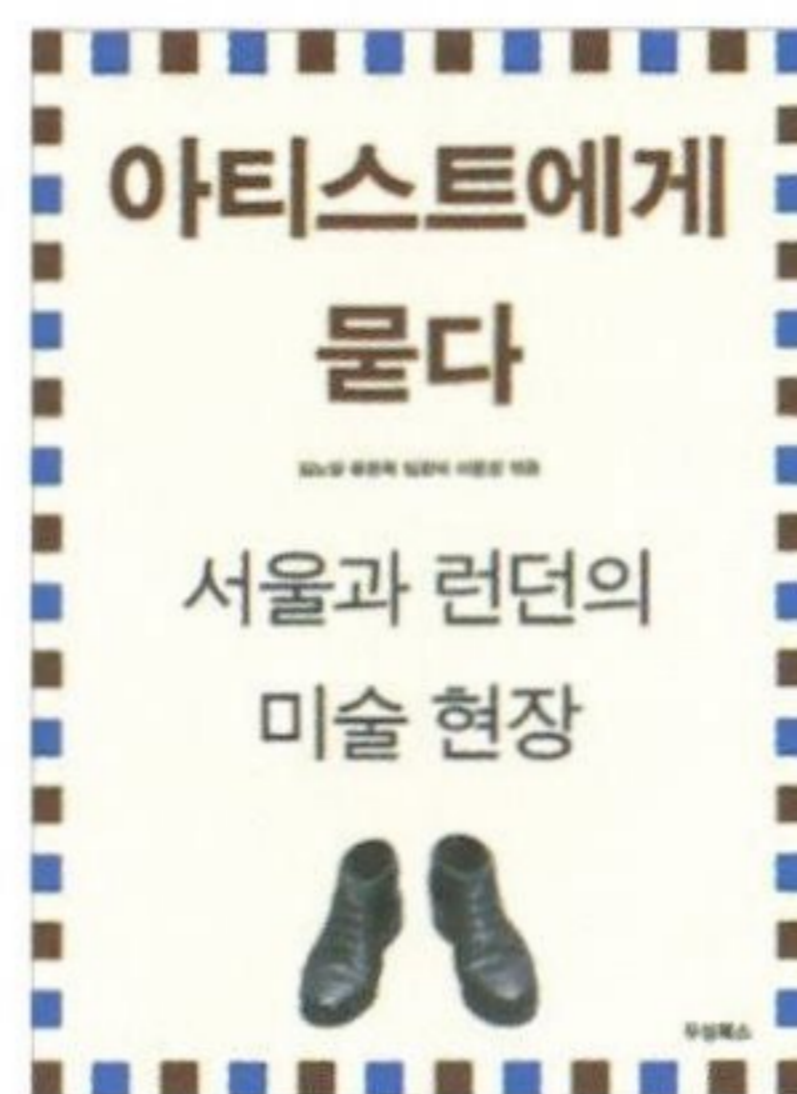




**프리다 칼로 & 디에고 리베라**  
멕시코 두 천재화가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

르 클레지오 지음, 백선희 옮김 / 다빈치  
/ 352p / 23,000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의 작가 르 클레지오가 기록한 두 천재 화가의 삶. 짙은 눈썹, 짙은 입술의 여인의 초상화를 본 사람은 그 강한 인상을 잊지 못할 것이다. 프리다 칼로는 숱한 고난과 극적인 인생역전, 그리고 독특한 작품으로 멕시코의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화가로 꼽힌다. 불의의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18세의 프리다는 멕시코의 세계적인 벽화 작가로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던 디에고를 찾아가 자신의 그림을 평가해 줄 것을 원했다. 2번의 결혼 경험이 있는데다 항상 애인이 있었던 디에고였지만, 독특한 인상의 프리다를 보고 “내가 겪었던 어떤 여자보다도 닮지 않았다”며 그녀에게 매료된다. 둘은 21세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했다. 사람들은 ‘비둘기와 코끼리의 결합’이라고 놀렸다. 그럴 때면 프리다는 21세 연상의 남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나의 똥똥보(Me El Gordo)’라고 부르곤 했다. 르 클레지오는 결혼 생활 이후 두 사람의 ‘그림’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멕시코의 시대상과 결부시켜 풀이한다. 세기의 로맨스, 번뜩이는 예술성, 지난한 삶 등 두 사람의 삶은 그야말로 드라마 그 자체다.



**아티스트에게 묻다**  
서울, 런던의 예술 현장 전문가들의  
당대 사회 현실에서 예술의 역할

김노암 지음 / 두성북스  
352p / 17,500원

서울에서 활동하는 작가·큐레이터·비평가 등 예술 현장 전문가 16명과 런던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16명에게 당대의 사회 현실에서 예술의 역할과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했다. 미술 현장에서 형성, 전승되는 담론은 그 자체로 창작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한마디 말과 글이, 한 작품 한 전시가 문화의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어떠한 행위는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예술 분야에서 한마디 말과 글, 그리고 행위는 그만큼 신중하고 성찰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공공기관과의 의사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을 공통된 의견으로 내세웠다. 그만큼 창작 인프라가 좋아졌다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의 영향이 증대하면서 과거 현대예술이 이룬 문화로서의 성과와 정신적 성숙과 비교해볼 때 정량적인 창작 인프라의 개선은 매우 불만스럽다는 데도 입을 모았다. 예술의 문제는 고정된 답이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그 문제를 다루고 어떤 결론에 다가가는 과정이 지닌 논리의 완성도가 중요해진다. 서울과 런던의 예술 제도와 그 한가운데서 숨 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술의 현재를 조명해 볼 수 있다.



**아키텍트**  
건축가의 직능 형성, 발달 및  
변천의 전 과정을 파헤친 책

스피로 코스토프 편저, 우동선 옮김  
/ 호형출판 / 535p / 25,000원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 건축가 5천 년의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건축가’라는 직능의 형성 및 변천사를 통해 건축의 역사에 접근하는 책. 건축가의 존재가 처음 기록된 것은 기원전 3,000년 전으로 고대 이집트의 임호텝(Imhotep)이 그 주인공이다. 임호텝에 관한 기록에서 처음 시작된 건축가라는 직능의 역사는, 이후 그리스와 로마 시대를 거쳐 중세, 르네상스, 근대에 이어 현대에까지 이어져왔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애매모호한 묘사를 통해 활동상을 유추해야 하는 먼 옛날을 지나, 점차 기록이 구체화하고 잘 보존되는 시기로 넘어오면서, 건축가의 직능은 전문직으로서 분명한 위치를 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변함이 없는 사실은, 바로 건축가란 ‘건축의 구상자’라는 점이다. 설계, 곧 새로운 구조물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제시하고, 그것을 실제로 세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 이와 같은 건축가의 정의를 토대로, 이 책은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건축가의 직능 형성, 발달 및 변천의 전 과정을 속속들이 파헤쳐나간다.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의 미국 건축 실무 현장도 꼼꼼히 다루었다.



## 부산시립예술단 해외 자매도시 초청공연 활발

부산의 문화사절단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무대에서도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부산시립예술단이 2012년에도 활발한 해외초청 무대를 가질 예정이다. 1월과 2월 부산의 자매도시인 대만 가오슝과 베트남 호치민, 일본 후쿠오카 초청공연을 비롯해 오는 8월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창단 50주년을 기념해 ‘자매도시 초청 중국 순회연주회’를 갖는다.

가장 먼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1월 28일과 29일 대만의 자매도시인 가오슝에서 개최되는 ‘2012 가오슝 등축제’에 참석한다. 대만의 제 2도시인 가오슝 최대의 운하인 아이허에서 열리는 ‘가오슝 등축제’에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시립예술단이 참가해 부산과 한국의 아름다운 우리문화의 멋을 알려오고 있다. 올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참가해 1월 28일과 29일 두차례 아이허 야외특설무대에서 우리의 전통음악과 사물놀이, 중국음악과 팝송 등 다채로운 연주곡을 들려준다.

2월에는 한국, 베트남 수교 20주년을 맞아 문화예술을 통한 상호이해,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베트남 순회연주길에 오른다. 오는 2월 10일 베트남의 자매도시인 호치민 오페라하우스 무대에 서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이날 연주회에서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 등 다채로운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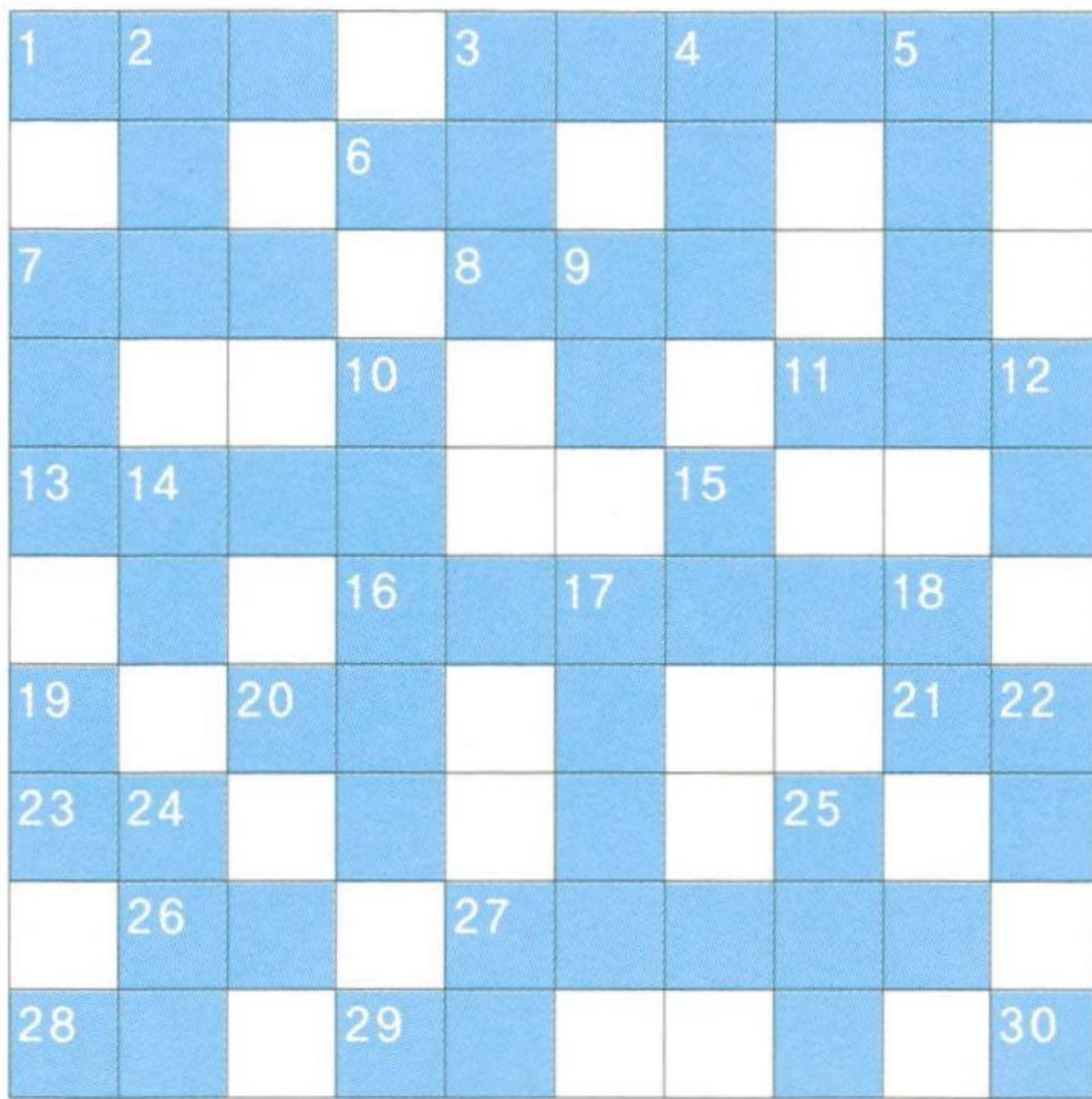
부산시립합창단도 일본의 자매도시인 후쿠오카로 2012년 첫 해외연주길에 오른다. 2월 29일 후쿠오카 아크로스 심포니홀 무대에 서는 부산시립합창단은 이날 무대에서 정통 성악곡 외에도 K-POP 인기곡을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한류 열풍 확산에 일조할 계획이다.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은 8월중 ‘자매도시 초청 중국순회연주회’를 통해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자매도시인 상하이로 비롯해 베이징, 광저우 순회연주회를 통해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2월 한국과 베트남 수교 20주년을 맞아 베트남 순회 연주길에 오르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가로열쇠

- 1\_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쇼팽 콩쿠르,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등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한 클래식계의 대표 스타 피아니스트, 2월 1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데뷔 10주년 기념무대를 갖는다.
- 3\_ 부산문화회관이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마련하는 상설무대, 국악과 전통춤, 클래식 연주,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상세한 해설과 함께 펼쳐진다.
- 6\_ 김소월과 김영랑을 잇는 시인으로, 향토적 서정을 민요가락에 담담하고 소박하게 담아냈다. 본명은 박영종으로 조지훈, 박두진과 시집 '청록집(靑鹿集)'을 발행하기도 했다.
- 7\_ 백제의 가요인 정음사를 관악협주곡으로 만든 곡으로, 궁중의 연례악이나 임금, 왕세자의 행차에 주로 연주되었다.
- 8\_ 부모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고 깊음을 가르쳐 주는 불교 경전인 부모은중경을 바탕으로 부모님 은혜를 노래한 이 곡은 경기소리꾼 김영임의 녹음으로 음반이 100만장 넘게 팔리면서 널리 알려졌다.

- 11\_ 돈을 모을 줄만 알아 한번 손에 들어간 것은 도무지 쓰지 않는 사람을 낚잡아 이르는 말.
- 13\_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를 이루는, 화개천과 섬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열리던 전통적인 재래식 시장이었으나 최근에는 상설시장이 개장되어 특별히 5일장이 서지 않는다.
- 16\_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미국에서 제작된 브로드웨이 뮤지컬. 뮤지컬 장르에선 보기 드문 스릴러물로 한 사람 내에 존재하는 두가지 상반된 인격을 가진 캐릭터와 그를 사랑하는 여주인공을 등장시켜 아름다운 로맨스를 그려 낸다.
- 20\_ 쿠바의 민속 춤곡. 19세기 초 아프리카계 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활기차고 빠른 4분의 2 박자 리듬에 마라카스 따위의 타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 21\_ 시에 곡을 붙인 성악곡. 보통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부르며, 독창곡, 중창곡, 합창곡이 있다.
- 23\_ 남녀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당시 사회적 특권 계급의 횡포를 고발하고 여주인공의 정절을 찬양하면서, 천민의 신분 상승 욕구도 나타내었던 조선시대 판소리게 소설 'OO전'의 여주인공 이름.
- 26\_ 지구의 중심을 지나는 자전축에 수직인 평면과 지표와 교차되는 선으로, 춘분과 추분 때 태양이 바로 위를 지나간다.
- 27\_ 1990년에 제작된 크리스 컬럼버스 감독, 맥컬리 컬킨, 조 페시 주연의 가족영화로, 성탄절 휴가 때 혼자 남겨진 8살 꼬마가 도둑을 물리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8\_ 영화 감독, 드라마 감독, PD, 카메라맨 등이 처음으로 영상물을 만들.
- 29\_ 장일남 작곡, 한명희 작사의 가곡. 6·25전쟁 당시 전투가 치열했던 화천 부근에서 군 생활을 했던 작사가가 무명용사의 녹슨 철모와 돌무덤을 보고 작사한 것이라 한다. '초연이 쓸고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지녘에~'.
- 30\_ 새해의 첫날을 명절로 이르는 말.

세로열쇠

- 2\_ 조선 영조 때 명창 송흥록의 법제를 이어받은 판소리의 한 유파. 웅건하고 그윽한 우조(羽調)를 바탕으로 한다.

- 3\_ 일제강점기 때 박승희가 중심이 되어 도쿄 유학생들이 결성한 신극운동 단체. '이상은 하늘에 있고, 밭은 땅을 딛는다'는 뜻으로 부쳐진 이름이다.
- 4\_ 조선 성종 때 문인 정극인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로, 자연에 파묻힌 생활 속에서 봄날의 경치를 찬탄한 내용이다.
- 5\_ 불교에서 서방 극락정토의 주재자인 아미타불을 모시는 사찰 당우. 부석사 OOOO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우수한 목조 건축물이다.
- 7\_ 먹으로 짙고 얇음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
- 9\_ 자극에 따라 미묘하게 움직이는 마음을 '거문고'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OO을 울린다.
- 10\_ 러시아 작가 파스테르나크의 유일한 장편소설. 러시아가 붕괴되는 숨막혔던 러시아 혁명사를 배경으로 남녀주인공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 12\_ 스웨덴의 화학자, 다이너마이트, 무연화약 등을 발명했으며 OOO상을 창설하였다.
- 14\_ 연극,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에서 관객을 웃게 하기 위해 하는 대사나 몸짓.
- 15\_ 중국 북부를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중국 제 2의 강으로, 중국 문명의 요람지로 이름 높다.
- 17\_ 대중미술과 순수미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미술 뿐만 아니라 영화, 광고, 디자인 등 시각예술 전반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주도한 미국 팝아트의 선구자.
- 18\_ 프랑스의 화가. 움직이는 인체를 그린 소묘의 대가로, 발레리나들을 묘사한 회화, 드로잉, 청동상으로 유명하다.
- 19\_ 대한(大寒)과 우수(雨水) 사이의 절기로, 이때부터 봄이 시작된다고 한다. 2월 4일.
- 22\_ 사찰에서 술을 이르는 말.
- 24\_ 덕유산의 최고봉으로, 높이는 1,614m.
- 25\_ 고대문명 발상지로, 오늘날 아랍과 중동지역에서 정치적, 문화적인 중심국가를 이룬다. 수도는 카이로.
- 27\_ 1970년 '여성동아' 여류 장편소설 공모에 응모해 당선된 박완서의 처녀작. 6·25전쟁과 분단문제, 물질중심주의 풍조와 여성 억압에 대한 현실비판을 사회현상과 연관해 그려낸 작품이다.

지난호정답

임	진	년	고	송	구	영	신
달	승	전	무	운	시		
고	래	사	냥	서	몽		
꽃	이	탈	리	아	세	배	
이	예	무	이	립	비		
제	임	스	본	드	스	현	장
마	터		열	하	일	기	
신	데	렐	라	키	증	조	
평	이	인	상	엔	수		
창	극	졸	업	아	카	데	미

퍼즐당첨자 명단

공간소극장

- 윤인숙(기장군 기장읍)
- 이유리(부산진구 개금3동)
- 이지선(남구 대연1동)
- 최지은(서구 토성동)
- 한은정(양산시 물금읍)

나랏소

- 김옥자(부산진구 연지동)
- 박수은(해운대구 재송1동)
- 이광호(남구 용호1동)
- 이명옥(남구 대연1동)
- 이송란(연제구 연산동)

BS부산은행 조은극장

- 권은진(금정구 장전동)
- 김미영(북구 만덕3동)
- 이일호(연제구 거제3동)
- 최지현(양산시 북정동)
- 한지원(서구 아미동)

큰집

- 김성덕(사상구 주례2동)
- 김정숙(사하구 다대2동)
- 김재은(동래구 온천3동)
- 박재옥(서구 서대신동3가)
- 허작량(북구 화명3동)

그리움이 있는 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TEL. 1588-2757

사계절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공간소극장**

SPACE THEATER

Tel 051.611.8518

cafe.daum.net/say012

부산광역시 문화재단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고향 전문점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2년 2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 한국의 美와 전통이 살아있는 안동 겨울여행

60년만에 찾아온 '흑룡의 해', 상서로운 기운을 안고 시작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12년 첫 테마여행은 임진년 새해를 맞는 정기회원 가족들의 설렘과 희망이 가득한 하루였다. 2012년 첫 테마여행지는 우리나라의 미와 전통이 살아있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안동은 가장 한국적인 곳으로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지난 1999년 영국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가 안동을 방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연일 기세를 떨치던 강추위가 누그러진 지난 1월 13일, 2012년 첫 번째 테마여행의 행운을 안은 정기회원 가족들이 이른 아침부터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였다. 특히 테마여행을 통해서 처음 가보는 여행지인데다 겨울방학을 맞은 자녀와 동행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신청이 그 어느때보다 많아 1월 테마여행은 여행 규모를 확대해 평소보다 두배가 많은 74명의 정기회원 가족들이 동참했다. 여기에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이정란, 김창돈 씨가 테마여행에 동참하면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세 시간을 넘게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안동시에 위치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전통문화와 첨단 디지털기술이 탄생시킨 국내 최초의 디지털 박물관인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은 4천여종의 유·무형 전시물이 담긴 17개 장르의 콘텐츠 전시코너를 통해 안동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 가상 유물체험전에서부터 우리의 전통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클릭! 옛소리', 안동의 문화관광지를 코스별, 테마별로 검색할 수 있는 '안동여행 네비게이션',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설화 애니메이션을 감상할 수 있는 '주니어 옛 이야기 톡톡', 옛날 서당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끼면서 사이버 훈장님과 얘기도 나누고 퀴즈 문제도 푸는 '장원급제놀이'



등 다양한 콘텐츠에 시간가는 줄 모른다.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3D 입체상영관에서는 후삼국 통일의 초석이자 안동의 지명을 탄생시킨 배경이 되는 ‘고창전투(일명 병산대첩)’를 철저한 고증으로 되살려낸 실감나는 3D 애니메이션을 감상할 수 있었다.

오후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렴하면서도 맛있기로 소문난 안동한우 불고기로 출출해진 배를 채운 정기회원 가족들은 다음 일정을 위해 안동전통한지공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회마을 입구에 자리한 안동전통한지공장은 안동의 깨끗하고 풍부한 물과 질 좋은 닥나무, 그리고 노련한 기술자의 장인정신이 어우러져 우리의 멋과 열이 담긴 한지를 전통방식 그대로 재현하여 생산하고 있다. 한지하면 보통 전주와 원주를 떠올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한지의 70%가 이 곳 안동에서 생산된다.

한지공장에 도착하자 공장 관계자가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공장으로 들어서자 닥나무 삶는 연기로 공장안이 자욱하다. 닥나무 삶는 과정에서부터 표백 과정과 불순물을 골라내는 티고르기 작업, 닥섬유가 뭉개져 죽이 될 때까지 두드리는 짓이기기 과정, 그리고 한지뜨기 과정과 탈수, 건조 과정 후 말린 한지를 수백번 두들겨서 종이의 밀도와 섬유질 형성을 높이는 도침 과정까지 전 제조과정을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다. 닥나무가 한지로 탄생하기 까지 거쳐야 되는 10여가지 공정에 깃든 장인의 세심한 손길을 직접 확인하자 ‘천년한지’라는 명성에 새삼 고개가 끄덕여진다.

공장견학 후 한지뜨기 체험에 나선 회원가족들은 자신이 직접 뜬 한지를 손에 쥐자 마냥 신기해한다. 공장 한켠에 마련된 상설전시관에서는 색색깔 고운 한지제품이 회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질 좋은 한지에서부터 다양한 종류의 서책, 한지등 등 전통 한지 공예품과 닥종이 인형, 한지 패션 등 다채로운 한지 제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다.

다음 방문지는 안동을 대표하는 하회마을. 낙동강이 S자 모양으로 마을을 감싸안고 흐르는데서 유래한 하회마을은 풍산 류씨가 600여년간 대대로 살아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성마을로, 조선시대 대유학자인 겸암 류운룡 선생과 임진왜란 때 영의정으로 국난극복에 큰 공을 세운 서애 류성룡 형제가 자라난 곳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하회마을에는 서민들이 놀았던 ‘하회별신굿탈놀이’와 선비들의 풍류놀이였던 ‘선유줄불놀이’가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통생활문화와 고건축양식을 잘 보여주는 문화유산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하회마을은 현재도 주민이 살고 있는 자연마을로, 127개 가옥 중 12개 가옥이 보물 및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하회마을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문화유산해설사가 정기회원 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문화유산해설사의 안내로 우선 하회마을 중앙에 위치한 삼신당 신목을 둘러봤다. 삼신당 신목은 아기를 점지해주고 출산과 성장을 돕는다는 수령 600년 된 느티나무로, 매년 정월대보름 마을의 평안을 비는 동제가 열린다. 신목 앞에 선 회원가족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적은 쪽



하회마을을 지켜온 600년 수령의 신목



하회마을 남촌덕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출연/이정란, 김창돈)



한지 뜨기 체험



지를 신목에 묶어 한해의 안녕을 기원했다.

이어서는 우뚝 솟은 솟을 대문과 장엄한 분위기가 감도는 겸암 류운룡 선생의 종택인 양진당(보물 제 306호)과 서애 류성룡 선생의 종택인 충효당(보물 제 414호), 안채, 사랑채, 큰 사랑채, 대문간채, 사당 등을 두루 갖춘 전형적인 사대부의 면모를 보여주는 하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화경당(중요민속자료 제 84호), 하동고택, 북촌택 등 하회마을에 자리한 주요 고택을 둘러봤다. 충효당과 더불어 하회의 남쪽을 대표하는 염행당(중요민속자료 제 90호)은 정종 21년 지은 99칸의 건물로서 하회마을 남쪽 사대부의 가옥을 대표하였으나, 1954년 화재로 인해 안채와 사랑채가 소실되고, 현재는 대문간채와 별당, 사당만 남아 있다. 남촌택이라 불리기도 하는 염행당에서 부산시립예술단 단원과의 만남이 열렸다.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이정란, 김창돈 씨가 부르는 아름다운 우리가곡과 팝송에 지나가던 관람객들까지 발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1월 테마여행의 마지막 방문지는 서애 류성룡 선생이 후학들을 양성하던 병산서원. 원래 풍악서당으로 풍산 류씨의 교육기관이었으나 류성룡 선생이 선조 5년(1572)에 지금 이곳으로 서원을 옮겼다. 그 후 광해군 6년(1614)에 존덕사를 세워 선생의 위패를 모셨으며, 철종 14년(1863)에는 임금으로부터 '병산'이라는 이름을 받아 서원이 되었다. 병산서원은 선현 배향과 지방 교육을 담당해 많은 학자를 배출한 곳으로,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에도 남아 있었던 47개의 서원 중 하나이며, 한국 건축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유적이다.

서원내 건물로는 위패를 모신 존덕사와 유생들이 선생의 가르침을 받았던 입교당, 기거하며 공부하던 동재와 서재, 행사를 치르던 만대루, 인쇄목판을 보관하던 장판각 등이 들어서 있다. 어스름이 내리는 입교당에 올라서자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이 한눈에 들어온다.

2012년 첫 출발을 알렸던 1월 테마여행. 새해의 부푼 소망처럼 정기회원 가족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유물없는 박물관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2012년 3월에는 **대구**로 역사기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여행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마감 2월 15일)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 2월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가입자

강경희(동래구 사직2동)  
 김애희(부산진구 전포동)  
 김정훈(연제구 거제3동)  
 서동암(사상구 주례동)  
 심수영(연제구 연산2동)  
 윤덕희(수영구 남천1동)  
 이경해(해운대구 재송동)  
 이근희(해운대구 반여1동)  
 이주영(수영구 망미1동)  
 이주정(남구 용당동)

### 엽서당첨자

강행자(금정구 남산동)  
 김옥희(부산진구 연지동)  
 김태진(연제구 연산동)  
 송말남(연제구 거제1동)  
 이경혜(남구 용호동)  
 이인호(부산진구 초읍동)  
 정은주(양산시 웅상읍)  
 최미숙(서구 아미동)  
 함수정(동래구 안락동)  
 함영규(해운대구 우1동)





## 부산문화회관

###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을 편리하게 예약, 관람할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은 물론 부산시내 전 공연정보를 담은 공연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를 통해 다양한 공연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 회원 종류 및 가입회비 •

구 분	가입회비	할인매수
특별회원	50,000원	4매 할인(공연회당)
일반회원	30,000원	2매 할인(공연회당)
청소년회원	20,000원	1매 할인(공연회당)
단체가입	30명 이상 가입 10% 할인	

※ 청소년 회원은 만 15세 이하이며, 회원가입시 증빙서류 제출

- ∴ 회원기간 \_ 가입일로부터 1년
- ∴ 할 인 율 \_ 기획공연 10~30%, 부산시립예술단공연 10~30%
- ∴ 혜 택 \_ 월간공연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문화강좌 할인, 정기회원 테마여행(추첨)  
부산시내주요 공연장 할인, 할인쿠폰제공 등
- ∴ 가입신청 \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http://culture.busan.go.kr>), 전화 607-3100  
 ※ 가입비 납부방법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계좌입금(부산은행 036-01-034846-1)
- ∴ 가입취소 \_ 5일이후 회원 가입 취소 불가
- ∴ 예약취소 \_ 공연당일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 2012년 부산시립예술단 신규단원 모집

## 1. 모집부문 · 인원 · 전형과목

구분	모집 부문 및 인원	전형 과목
총 계	38명	
교향악단	상임단원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곡 : 협주곡 빠른 악장(한 악장)</li> <li>• 지정곡 : &lt;협주곡&gt; Vn. 모차르트 협주곡 제 5번 K219 제 1악장 Vc. 하이든 협주곡 D장조 제 1악장 &lt;오케스트라 엑셉트&gt; 원서접수 시 배부</li> </ul> <b>※ 반주자 없이 진행</b>
	비상임단원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곡 : 협주곡 빠른 악장(한 악장)</li> <li>• 지정곡 : 원서접수 시 배부</li> </ul> <b>※ 반주자 없이 진행</b>
국악 관현악단	비상임단원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금 1, 피리 1, 해금 1, 아쟁 1, 타악 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곡, 창작곡 : 홈페이지 공고란 참조</li> </ul> <b>※ 반드시 암보 연주, 창작곡 악보(6부) 원서접수시 제출</b>
무용단	상임단원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무용 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하기 : 음악, 과제 당일 제시</li> <li>-남자 : 흰색 레오타드 상의, 검은색 한복바지, 버선</li> <li>-여자 : 흰색 레오타드 상의, 검은색 긴 랩치마, 버선</li> <li>• 전통무용(5분 이내) : 의상 및 음악 CD 본인준비</li> <li>살풀이 춤, 태평무, 산조, 한량무 중 택 1</li> <li>• 창작무용(2분 이내) : 음악 CD 본인준비</li> <li>-남자 : 흰색 레오타드 상의, 검은색 한복바지, 버선</li> <li>-여자 : 흰색 레오타드 상의, 검은색 긴 랩치마, 버선</li> <li>• 타악무(2분 이내) : 악기 및 음악 CD 본인준비</li> <li>-남자 : 한복바지, 저고리, 조끼, 버선</li> <li>-여자 : 치마, 저고리, 버선</li> </ul>
	비상임단원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무용 4</li> </ul>
합창단	상임단원(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프라노 1</li> </ul>
	비상임단원(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프라노 2, 알토 1, 테너 1, 베이스 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곡 : 홈페이지 공고란 참조 <b>※ 반주자 개인 동반</b></li> <li>• 자유곡 : 팝송 중 본인선택 <b>※ MR 사용가능, 본인준비</b></li> </ul>
극 단	비상임단원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 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연기(당일 제시) • 자유연기 • 특기</li> </ul> <b>※ 자유연기 및 특기에 필요한 소품이나 반주용 CD는 본인준비</b>

※ 해당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응시자격

### ●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 필한 자 또는 면제 재(남자의 경우)
- 해당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실력을 갖춘 자
- ※ 원서접수일 현재 1년 이상 부산시립예술단 비상임단원 재직 경험이 있는 자, 비상임단원 응시불가

- 교향악단 상임단원 : 전문오케스트라 수석단원 유경험자(경력증명서 제출)

### | 선발(모집) 방법 |

- 교향악단 :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구분 모집 및 선발(중복 지원 불가)
  - 비상임단원은 위촉기간 내 퇴직시 해당파트 차점자 순으로 위촉가능
- 국악관현악단 : 비상임단원 파트 성적순으로 선발
- 무용단 :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구분없이 성적순으로 상임(1명)을 먼저 선발하고, 차점자순으로 비상임(4명)선발
- 합창단 :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구분없이 성적순으로 상임(1명)을 먼저 선발하고, 차점자순으로 비상임(5명)선발
- 극 단 : 비상임단원 성적순으로 선발

※ 해당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실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형 실시



### 3.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국악, 무용, 합창, 극단 : 2012년 2월 1일(수) ~ 2월 10일(금) 17:00까지
  - 교향악단 : 2012년 3월 5일(월) ~ 3월 14일(수) 17:00까지
- 접수안내
  - 공휴일·토·일요일은 제외, 지정곡 악보(교향)는 원서접수 후 배부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교향의 경우 우편접수자는 지정곡 악보 반송용 봉투(우편첨부) 동봉시 지정곡 악보 우송 가능
  - 국악 우편접수자는 창작곡 연주악보 6부 동봉 제출
- 접수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051-607-6041~6)  
(우 608-811)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부산문화회관내 공연과(공연담당)

### 4. 제출 서류

- 공 통 : 응시원서(소정양식), 이력서,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최종학력증명서(외국어로 된 경우 번역본 포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국악관현악단 : 창작곡 연주악보 6부 제출

### 5. 세부 전형 일정

구분		실기 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 전형	최종 발표
교향악단	상임(2)	3월 26일(월) 10:00 교향악단 연습실	3월 28일(수) 14:00	3월 30일(금) 10:00 문화회관 회의실	4월 2일(월) 14:00
	비상임(10)				
국악 관현악단	비상임(5)	2월 22일(수) 13:30 국악관현악단 연습실	2월 24일(금) 14:00	2월 27일(월) 14:00 문화회관 회의실	2월 28일(화) 14:00
무용단	상임(1)	2월 17일(금) 10:30 무용단 연습실	2월 21일(화) 14:00	2월 23일(목) 10:00 문화회관 회의실	2월 24일(금) 14:00
	비상임(4)				
합창단	상임(1)	2월 21일(화) 10:00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2월 23일(목) 14:00	2월 27일(월) 10:00 문화회관 회의실	2월 28일(화) 14:00
	비상임(5)				
극단	비상임(10)	2월 20일(월) 14:00 극단 연습실	2월 22일(수) 14:00	2월 24일(금) 10:00 문화회관 회의실	2월 27일(월) 14:00

### 6. 참고사항

-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함. 단, 비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함.
- 보수 및 복무 등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립 예술단 운영규정에 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위촉 취소가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1차 합격자는 부산광역시문화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2차 합격자(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사항 없음.

### 7. 문의처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http://culture.busan.go.kr>) 공고란 참조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607-6041~6)
- 부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607-3115, 국악관현악단 607-3121, 무용단 607-3132, 합창단 607-3142, 극단 607-3152)



11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2 웰빙콘서트  
시에 만나요!

무대예술의 결정체

# 오페라

# OPERA

매회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문 의 607-3111~3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입장권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 I.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2.23



지휘 · 해설 이동신



소프라노 구민영



테너 김지호



바리톤 강경원

## II. 도니체니 사랑의 묘약 4.26



연출 유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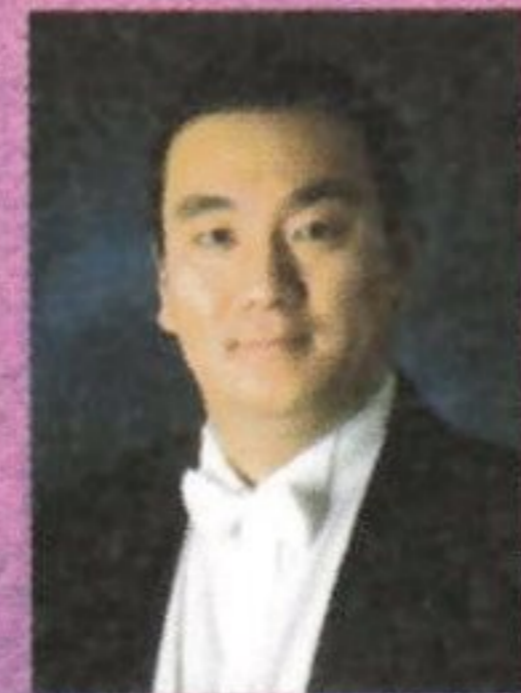
소프라노 고예정



테너 김성진



바리톤 김태우



베이스 함석현

## III. 비제 카르멘 9.7



소프라노 김유진



메조소프라노 성미진



테너 김화정



바리톤 박대용

## IV.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11.16



소프라노 장은녕



테너 조윤환



바리톤 박기국



바리톤 김중화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2년 2월 공연일정



부산문화회관 전경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대극장    중극장    소극장</p> <p>국제회의장</p>			1	2	3	4
			<p>☞ 부산시립교향악단 시민클래식교실 '리스트와 비르투오조의 시대' 14:00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 2012 부산국제음악제 보로메오 스트링 콰르텟 19:30 5만원 · 4만원 · 3만원/부산아트메니지먼트(740-5833)</p> <p>☞ 한국소년소녀정가단 제 7회 정기연주회 19:00 무료/문금재(010-5559-6119)</p> <p>☞ 김화정 · 조은비 2인 음악회 19:30 1만원 · 5천원/조은비(010-5026-7570)</p>	<p>☞ 2012 부산국제음악제 영품합주곡의 세계 with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19:30 5만원 · 4만원 · 3만원/부산아트메니지먼트(740-5833)</p> <p>☞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26 '아마도이처럼'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p> <p>☞ 토요일상설무대-(사)한국무용협회 부산시지회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5	6	7	8	9	10	11
	<p>☞ 부산시립무용단 정월대보름 특별공연 '지신불기와 기원무' 16:00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3131~1) (부산문화회관 일대 및 대극장 로비)</p> <p>☞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공연 '악기가족 이야기-콩콩 텡탕 타악기가족 이야기' 10:30, 15:30 균일 1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 2012 부산국제음악제 가족음악회 '거장의 실내악' 19:30 5만원 · 4만원 · 3만원/부산아트메니지먼트(740-5833)</p> <p>☞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공연 '악기가족 이야기-콩콩 텡탕 타악기가족 이야기' 10:30, 15:30 균일 1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 2012 부산국제음악제 세르게이 바비안 피아노독주회 19:30 5만원 · 4만원 · 3만원/부산아트메니지먼트(740-5833)</p> <p>☞ 부산시립교향악단 시민클래식교실 '베를리오즈와 표제음악' 14:00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 2012 부산국제음악제 페막연주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19:30 5만원 · 4만원 · 3만원/부산아트메니지먼트(740-5833)</p> <p>☞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공연 '악기가족 이야기-뿌우뿌우 나팔가죽 이야기' 10:30, 15:30 균일 1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공연 '악기가족 이야기-뿌우뿌우 나팔가죽 이야기' 10:30, 15:30 균일 1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 부산광역시남구소년소녀합창단 제 3회 정기연주회 19:00 초대/부산광역시 남구청(607-4069)</p>	<p>☞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12	13	14	15	16	17	18
	<p>☞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공연 '악기가족 이야기-휘릭휘릭 피리가족 이야기' 10:30, 15:30 균일 1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내 데뷔 10주년 기념 임동혁 피아노 독주회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7)</p> <p>☞ 레이디스필 앙상블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최명화(010-3564-1194)</p> <p>☞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공연 '악기가족 이야기-휘릭휘릭 피리가족 이야기' 10:30, 15:30 균일 1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 부산시립교향악단 시민클래식교실 '멘델스존과 화화적 오케스트라' 14:00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 김혜린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예은예술기획(632-6904)</p>	<p>☞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40주년 기념 특별연주회 '가들의 노래 &amp; 발레가 있는 합창'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2)</p> <p>☞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공연 '악기가족 이야기-피가피가 바이올린 가족이야기' 10:30, 15:30 균일 1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 김정원, 리웨이 첫 듀오 리사이틀 19:30 6만원 · 4만원 · 3만원/더 스톱즈(02-2658-3546)</p> <p>☞ 글로리아이어 창단 30주년 기념연주회 19:30 균일 1만원/김명일(010-6428-7019)</p> <p>☞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공연 '악기가족 이야기-피가피가 바이올린 가족이야기' 10:30, 15:30 균일 1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 토요일상설무대-국악실내악단 '산 · 바다 · 해'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19	20	21	22	23	24	25
	<p>☞ 부산예고 졸업생 작은 음악회 19:30 무료/백현주(010-4585-2052)</p>		<p>☞ 부산시립교향악단 시민클래식교실 '벨리니와 초기 낭만파 오페라' 14:00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 기획연주회 웰빙콘서트 무대예술의 결정체, 오페라 '베르디 라트라비아타' 11: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 어린이 영어뮤지컬 신데렐라 16:00, 19:30 균일 1만원/서정아(010-7503-6564)</p>	<p>☞ 아이치 세벨레와 함께 하는 신춘음악회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김정아(010-9334-6105)</p> <p>☞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 4중주 Grace Quartet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p>☞ 인코리안 유스오케스트라 제 10회 정기연주회 18:00 초대/장은정(010-4842-6688)</p>
26	27	28	29	3/1	3/2	3/3
<p>☞ 우리들의 노래 18:00 초대/양승엽(010-7767-4390)</p>			<p>☞ 부산시립교향악단 시민클래식교실 '슈만과 성악 소품' 14:00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 February 2012 Program Guide



The Busan Cultur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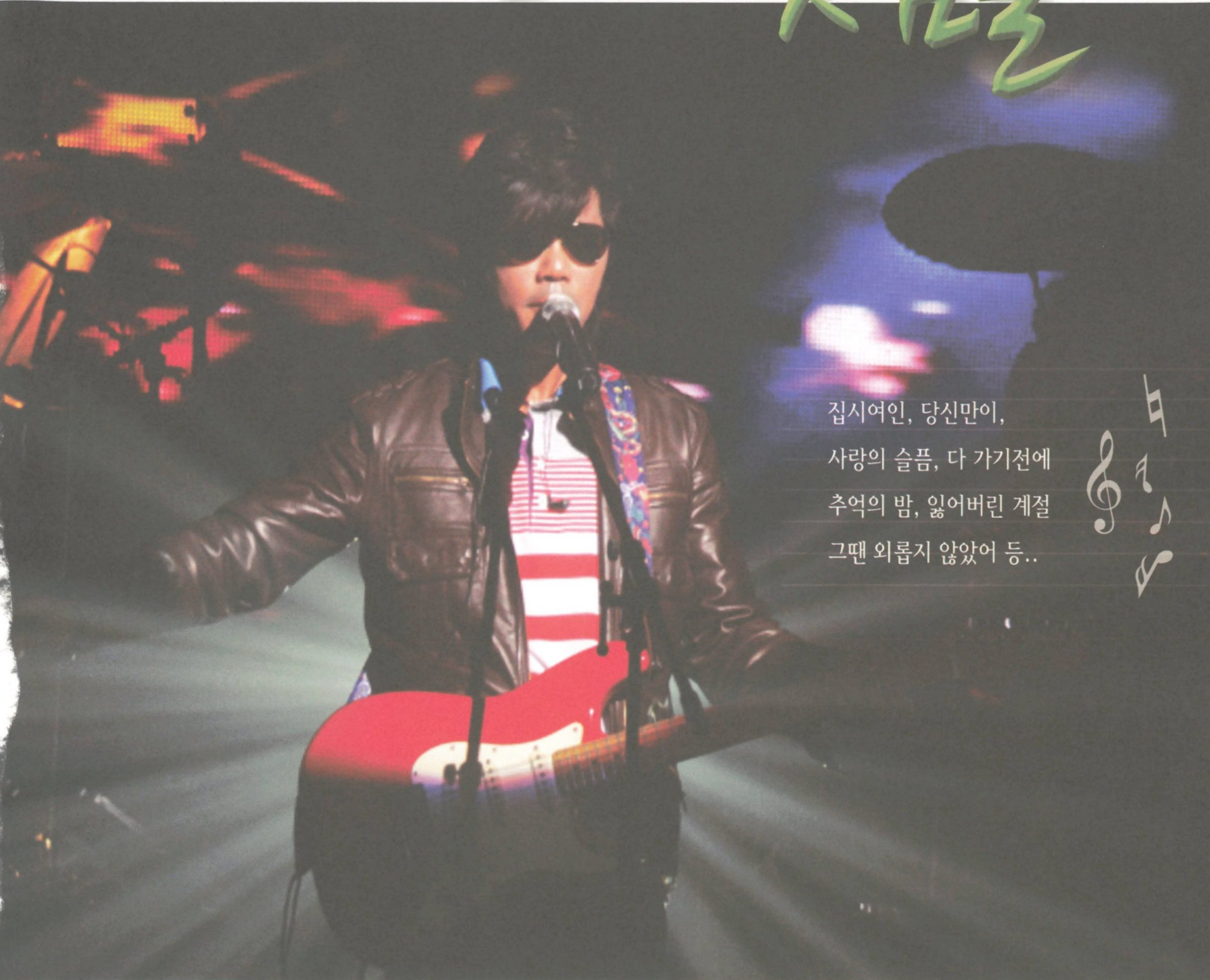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④ Grand theater ③ Medium theater ② Small theater ①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p> <p>• B.P.O./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B.M.T.O./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 B.M.D.C./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 B.M.C./Busan Metropolitan Chorus • B.M.T./Busan Metropolitan Theater • B.M.Y.C./Busan Metropolitan Youth Chorus</p>			<p><b>1</b></p> <p>⑤ The Citizen Classical Music with B.P.O 14:00/B.P.O(607-3111~3)</p>	<p><b>2</b></p> <p>④ The 7th Busan Music Festival 'Borromeo String Quartet Concert' 19:30 ₩50,000 ₩40,000 ₩30,000 Busan Arts Management(740-5833)</p> <p>④ The 7th Regular Korea Youth Chorus Concert 19:00 Free/Moon Kemja(010-5559-6119)</p> <p>⑤ Duo Concert by Kim Heejoung &amp; Jo Enbi 19:30/Jo Enbi(010-5026-7570)</p>	<p><b>3</b></p> <p>④ The 7th Busan Music Festival 'Concertos with Busan Symphony Orchestra' 19:30 ₩50,000 ₩40,000 ₩30,000 Busan Arts Management(740-5833)</p> <p>⑤ The Concert, underneath the Sky'Amado Izaram Bamd' 20:00 ₩30,000/B.C.C(607-6058)</p>	<p><b>4</b></p> <p>⑤ The Saturday Regular Stage 16:00 Free(On a first come Serve basis) B.C.C(607-6056)</p>	
<b>5</b>	<p><b>6</b></p> <p>⑤ Concert for Children-Percussion's Story- 10:30, 15:30 ₩1,000 B.P.O(607-3111~3)</p>	<p><b>7</b></p> <p>④ The 7th Busan Music Festival 'Family Concert' 19:30 ₩50,000 ₩40,000 ₩30,000 Busan Arts Management(740-5833)</p> <p>⑤ Concert for Children-Percussion's Story- 10:30, 15:30 ₩1,000/B.P.O(607-3111~3)</p>	<p><b>8</b></p> <p>④ The 7th Busan Music Festival 'Piano Recital by Sergei Babayan' 19:30 ₩50,000 ₩40,000 ₩30,000 Busan Arts Management(740-5833)</p> <p>⑤ The Citizen Classical Music with B.P.O 14:00/B.P.O(607-3111~3)</p>	<p><b>9</b></p> <p>④ The 7th Busan Music Festival 'Do you like Brahms?' 19:30 ₩50,000 ₩40,000 ₩30,000 Busan Arts Management(740-5833)</p> <p>⑤ Concert for Children -Bugle's Story- 10:30, 15:30 ₩1,000/B.P.O(607-3111~3)</p>	<p><b>10</b></p> <p>④ The 3rd Regular Busan Metropolitan Namgu(state) Youth Chorus Concert 19:00 Invitation/Namgu District Office(607-4069)</p> <p>⑤ Concert for Children -Bugle's Story- 10:30, 15:30 ₩1,000/B.P.O(607-3111~3)</p>	<p><b>11</b></p> <p>④ [Donation Concert] Love Concert for International Peace of T.O.F 18:00 ₩10,000/Y' Men(440-3347)</p> <p>⑤ The Saturday Regular Stage 16:00 Free (On a first come Serve basis) B.C.C (607-6056)</p>	
<b>12</b>	<p><b>13</b></p> <p>⑤ Concert for Children-Pipe's Story- 10:00, 15:30 ₩1,000/B.P.O(607-3111~3)</p>	<p><b>14</b></p> <p>④ The 2012nd Piano Recital by Lim Donghyuk 19:30 ₩50,000 ₩30,000 ₩20,000 B.C.C(607-6057)</p> <p>④ Lady's Phil Ensemble Regular Concert 19:30 ₩10,000 Choi Younghwa(010-3564-1194)</p> <p>⑤ Concert for Children-Pipe's Story- 10:30, 15:30 ₩1,000/B.P.O(607-3111~3)</p>	<p><b>15</b></p> <p>④ The Piano Recital by Kim Haerin 19:30 ₩10,000/Kim Haerin(010-6717-9932)</p> <p>⑤ The Citizen Classical Music with B.P.O 14:00 B.P.O(607-3111~3)</p>	<p><b>16</b></p> <p>④ The 40th Commemoration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Chorus 19:30 ₩10,000 ₩7,000 ₩5,000/B.M.C(607-3141~2)</p> <p>④ The Piano Recital by Kwon Haejin 19:30 Free/Kwon Haejin(010-2809-5263)</p> <p>⑤ Concert for Children-Violin's Story- 10:30, 15:30 ₩1,000/B.P.O(607-3111~3)</p>	<p><b>17</b></p> <p>④ Pianist Julius kim &amp; Cellist Li Wei Duo Recital 19:30 ₩60,000 ₩40,000 ₩30,000/The Stomp(02-2658-3546)</p> <p>④ The 30th Commemoration Concert of Glory Choir 19:30 ₩10,000/Kim Myungill(010-6428-7019)</p> <p>⑤ Concert for Children-Violin's Story- 10:30, 15:30 ₩1,000/B.P.O(607-3111~3)</p>	<p><b>18</b></p> <p>④ Chorale House Male Festival Chorus Concert 19:30 Invitation/Kim Seongman(010-4183-2293)</p> <p>⑤ The Saturday Regular Stage 16:00 Free(On a first come Serve basis) B.C.C(607-6056)</p>	
<b>19</b>	<p><b>20</b></p> <p>⑤ Busan Arts highschool Graduation Concert 19:30 Free/Back Hyunjoo(010-4585-2052)</p>			<p><b>22</b></p> <p>⑤ The Citizen Classical Music with B.P.O 14:00/B.P.O(607-3111~3)</p>	<p><b>23</b></p> <p>④ [Well-being Concert]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Concert 'Verdi La Traviata' 11:00 ₩10,000/B.P.O(607-3111~3)</p> <p>⑤ [English Musical] Cinderella's Story 16:00, 19:30 ₩10,000 Seo Jounal(010-7503-6564)</p>	<p><b>24</b></p> <p>④ The New Year's Concert of Amichi Settelle 19:30 ₩30,000 ₩20,000 ₩10,000 Kim Jounal(010-9334-6105)</p>	<p><b>25</b></p> <p>④ The 10th Regular Incorean Youth Orchestra Concert 18:00 Invitation/Jang Enjoung(010-4842-6688)</p> <p>⑤ The Saturday Regular Stage 16:00 Free(On a first come Serve basis) B.C.C(607-6056)</p>
<b>26</b>	<p><b>27</b></p> <p>④ Our Song 18:00 Invitation/Yang Seungyup(010-7767-4390)</p>			<p><b>29</b></p> <p>⑤ The Citizen Classical Music with B.P.O 14:00/B.P.O(607-3111~3)</p>	<p><b>3/1</b></p>	<p><b>3/2</b></p>	<p><b>3/3</b></p> <p>⑤ The Saturday Regular Stage 16:00 Free(On a first come Serve basis) B.C.C(607-605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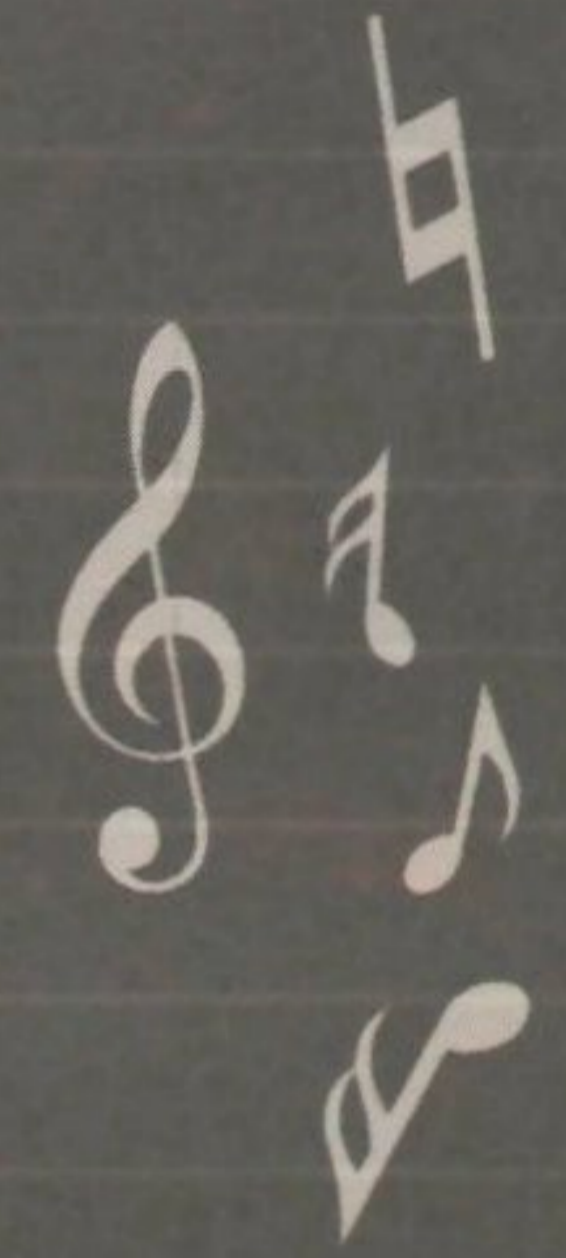


Part II  
야생아리  
관객 Yesterday

# 이제야야 신과 버니드 사람들



집시여인, 당신만이,  
사랑의 슬픔, 다 가기전에  
추억의 밤, 잃어버린 계절  
그땐 외롭지 않았어 등..



## 2012. 3. 16 (금) 오후 8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주최\_ 부산광역시    주관\_ 부산문화회관    문의\_ 홍보마케팅부 051) 607-3100 / 공연과 051) 607-6057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입장권\_ 전석 3만원    예매\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 테마여행

2012년에도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의료선교박물관

## 2012년 3월 9일(금) 대구 근대역사기행

조선시대에서 일제시대, 아픈 한국의 근, 현대사와 그 속에서 곳곳이 살아온 대구사람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구 근대역사 기행.

도심 한복판 거미줄처럼 이어진 좁은 골목에서 근대를 추억한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 10:00 대구도착, 근대역사 골목투어  
(동산 선교사주택, 3·1 만세운동길, 계산성당 등)
- ⊙ 12:30 중식
- ⊙ 14:00 약령시 한의학문화관, 약령전 골목투어
- ⊙ 15: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6:00 부산으로 출발

## 2012년 4월 13일(금)

###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룬 경주 남산



경주 남산

신라인들은 남산 바위 속 부처님을 찾아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유물들이 산재해있는 경주 남산. 왕릉 13기, 산성지(山城址) 4개소, 사지(寺址) 147개소, 불상 118체, 탑 96기, 석등 22기, 연화대 19점 등 672점의 문화유적이 남아 있는 노천박물관 남산으로 봄빛 기행을 떠난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 ⊙ 09:30 경주 도착, 배리삼존불 → 삼릉 → 선각육존불 → 마애여래좌상  
→ 석조여래좌상 → 상선암 마애석가 여래좌상 → 용장사지 삼층석탑  
→ 용장사터 → 용장마을
-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7:00 부산으로 출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 테마여행

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시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여행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기림빌딩 2층 ☎ 628-2592

## 연극 옥탑방 고양이 20% 할인



2012.2.10(금)~3.11(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3/1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 없음)

- ▶ 입장권: 균일 35,000원
- ▶ 장 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 ▶ 문의 및 예매: 1588-2757

-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 ▶ 날짜: 2011.1.1(토)~2011.12.31(토)
- ▶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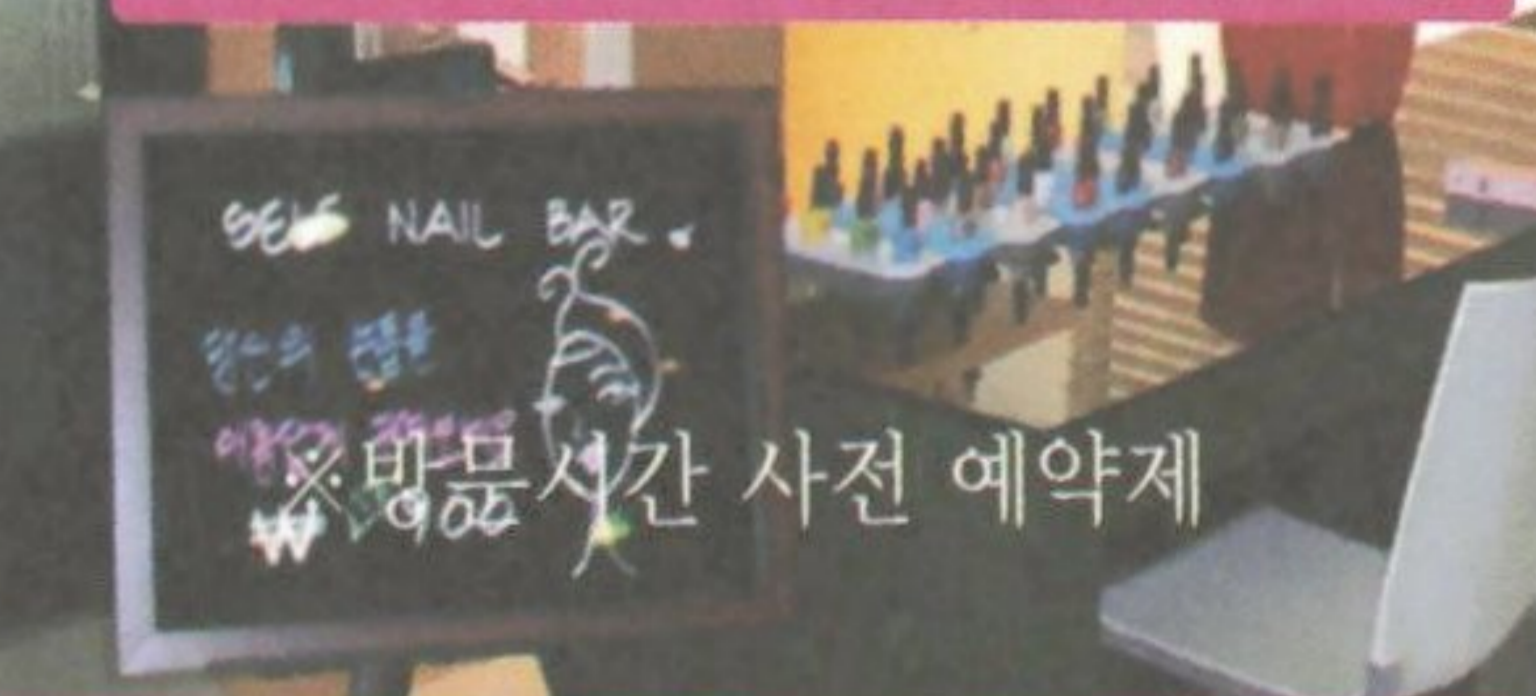
혜택 쿠폰에서 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참존 직영점

## 참존 스킨타운 부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마사지 무료 체험권



부산시 남구 대연4동 733번지 유안빌딩 051-626-676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27

## 아마도 이자람밴드

2012.2.3(금)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입장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8)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사이클럽 하늘아래 그 콘서트 club.cyworld.com//0912.concert

## 코메디연극 바라바라 20% 할인



2012.1.13(금)-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 입장권: 균일 30,000원
- ▶ 장 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 ▶ 문의 및 예매: 1588-2757

-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명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퍼즐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Blank box for answer 1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Blank box for answer 2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 ?!

광고 하나로 천냥 빚 갚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 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NO

YES



# A Jubilant Song (기쁨의 노래)

## & 발레가 있는 합창



지휘  
박광하

- **Mass in Honor of St. Joan of Arc**  
(잔 다르크 미사) | J.Gruber  
- Kyrie(불쌍히 여기소서), Gloria(영광)  
- Sanctus(거룩), Agnus Dei(하나님의 어린양)
- **백두산** | 최인식
- **Te Quiero**(너를 사랑해) | A.Favero
- **Waltzing Matilda**(마틸다 왈츠) | 오스트레일리아 민요
- **Jamaican Market Place**(자마이카 시장터) | L.Farrow
- **A Jubilant Song**(감사의 노래)/N.D.Joio

- **Ballet와 함께 하는 Johann Strauss의 왈츠-발레 :**  
김옥련 발레단, 최석태 편곡  
- An Der schoenen blauen Donau(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  
- Fruehlingstimmen(봄의 왈츠)

- **Opera 합창**  
-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오페라 <Nabucco> 중 | G.Verdi  
- 투우사의 노래/오페라 <Carmen> 중 | G.Bizet
- **흥부와 놀부이야기** | 김명자

2012. 2. 16(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_ 부산시립합창단  
BUSAN METROPOLITAN CHORUS

문의\_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4

예매\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입장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셔틀버스 운행(무료)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22년간의 기다림  
세계 4대 뮤지컬

# 미스 사이공



KCMI, INC. PRESENTS  
CAMERON MACKINTOSH'S  
PRODUCTION OF  
BOUBLIL & SCHÖNBERG'S  
LEGENDARY

**Miss  
Saigon**

TM © 1988 CML

2012년 4월 5일 - 4월 2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예매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interpark.com](http://interpark.com) 문의 | 1599-1980 [goconcert.co.kr](http://goconcert.co.kr)

주최 | 부산광역시 KNN 부산일보사 주관 | 부산문화회관 (주) 예술기획성우 제작 | (주) 예술기획성우 KCMI